

081P- 0322

10009067199308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격월간 교육개발/발행일 1993년 8월 25일/등록번호 마-574/발행인·한중하/인쇄처·국정교과서(주)/서매품

# 교육개발

1993

통권 85호



**특집**

## 통일시대의 교육

허문영·김태완·신상조·전철우·최영표

권두칼럼

**이영덕/교육의 목표는 빵이 아니라 인격**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정병삼/西山의 사상과 僧伽教育**

스승의 한마디

**유경환/부드러움의 힘, 그 파장**

**92년도 KEDI 연구 시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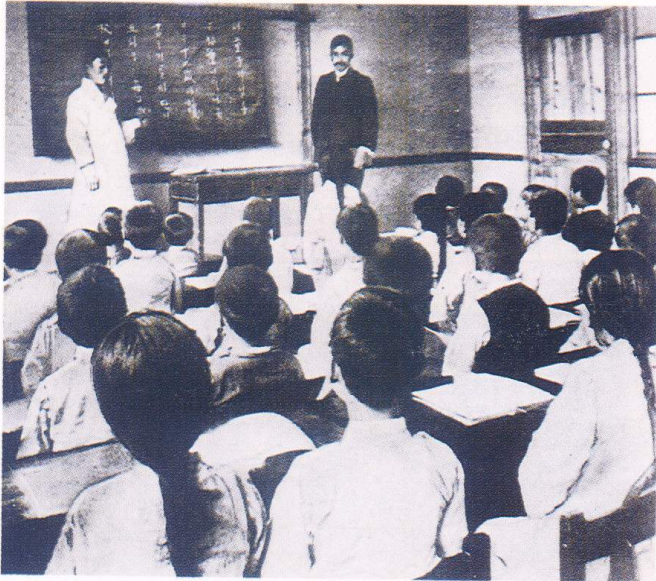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화기의 소학교 교실



우리나라 개화기의 수업 장면을 담은 사진이 동아일보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이 사진은 1910년대 소학교의 수업 모습으로 칼을 차고 카이젤 수업을 기른 감독관이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그 상황 아래에서 우리나라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초의 소학교는 1895년에 세워진 서울의 水下학교, 壯洞(현校洞)학교, 貞洞학교, 濟洞 학교의 4개 교였다.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인 1915년에 '개정사립학교 규정'을 공포하고 사학에 관련된 교육관계를 총독부에서 총괄하여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철저한 무단(武斷)정치의 일환으로 교단에 서는 교사들에게까지 위압적인 복장을 하게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사진에서 보면 남학생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그 중의 한 두명은 양식 옷을 착용한 반면에 교사는 망건에 도포까지 입고 있으며, 여학생들은 개화기 전의 복장은 물론 머리를 땃고 땡기까지 했다.

당시의 판서(板書) 역시 오늘날과는 달리 세로 쓰기였다는 사실도 흥미가 있다.

한편, '남녀칠세부동석'을 철저히 지키던 조선조의 풍속을 깨고 남녀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 사진제공(동아일보)
- 글(손영주)

# 교육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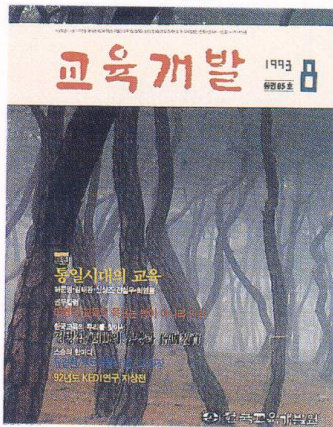
1993. 8

교육개발 1993, 8/통권 85호/1975년 8월 25일 등록  
등록번호 마-574/1993년 8월 25일 발행/격월간  
발행인: 한중하/발행처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우편번호 137-791  
대표전화 572-5021, 5121/인쇄처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육개발은 한국 도서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인/한중하
- 출판심의 위원/강중훈, 김재웅, 임선하, 정재걸, 정택희, 한유경
- 편집특임부장/남미영
- 기자/손영주

• 표지 설명



‘교육’이란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력,  
인간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과  
‘개성이 조화를 이룰 때 더욱 빛난다.’  
이번 호에서는 20여 년 동안 한국교육을 위하여  
이 땅을 지켜온 한국교육개발원의 의지를  
강산의 소나무로 표현해 보았다.

- 사진 배병우
- 표지디자인 유성희

## 2 권두칼럼

교육의 목표는 빵이 아니라 인격/이영덕

## 4 한국교육의 뿌리를 찾아서 ③

西山의 思想과 僧伽教育/정병삼

## 6 시론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김윤태  
한국교육의 판(板)/문용린

## 13 '92년도 KEDI 연구 시상전

### 21 특별기획 ㉑

#### 통일시대의 교육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 /허문영  
통일을 위한 교육의 책임/김태완  
통일교육의 현주소/신상조  
개인을 국가가 통제하는 북한교육/전철우  
남북 교육공동체를 수립하자/최영표

## 44 스승의 한마디

부드러움의 힘, 그 파장/유경환

## 46 세미나 중계

한국의 진로와 민주시민 교육/김왕근  
과열과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최준열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최돈형

## 61 연구동향

가치관 교육의 성격/이계학

## 65 알아봅시다

한국의 교육비 수준/백성준

## 68 교육개발 상담실

도벽 어린이 정서교육/이나미

## 71 특별기획 Ⅱ

### 입시위주교육의 개혁방안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강무섭  
고등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하여 /임연기  
고교체제의 개혁을 통하여 /김홍주  
교수·학습 평가의 개혁을 통하여 /김재웅  
교육외적 요인의 해소 대책 /신익현

## 95 외국교육소개

프랑스의 모국어 교육 /박은수  
청소년을 위한 대만의 직업 교육 /장석민  
영국국민학교 참여관찰일지(Ⅲ) /이용숙

## 112 문화광장

음악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벗에게 띄우는 음악예찬가— /장기범

## 117 교육정보

### KEDI 데이터베이스 활용안내 ①

—샘플링과 우편발송 주소짜기를 도와주세요— /이우화

## 120 시·도 교육연구원 활동

## 123 KEDI 연구뉴스

## 125 KEDI 교육자료 안내

이달의 명상 /윤양희



• 사진으로 보는 •  
**한국교육개발원**

“

**베스트셀러의 산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연구본부의 별명이다.**  
 20여 년동안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그리고 각종  
 교육자료들을 개발하여 명실공히 한국 교육의 핵이 되어 왔다.  
 60여 명의 연구진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

**3 교육과정 연구본부 편**



◀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개발센터의  
 성격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1987년 및 1988년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995년부터 활용될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까지 전문적 역량을 경주하여  
 미래 교육에 힘쓴다.

▶ 교육과정 연구본부는 국제적으  
 로 알려진 교수 연수 센터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모델로  
 삼고 있는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  
 이 교육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연  
 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소설책이 아니다. 교육과정 연구본부는 국·중·고등학교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는 일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 교육과정 연구본부는 교육 현장에서 요청하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사고령 교육 자료, 민주 시민 교육 자료, 환경 교육 자료, 국민학생용 영어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여 현장의 요구에 응한다.



◀ 교육과정 연구본부는 매년 10여 종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개선, 그리고 교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료들이다. 또한 외국 교과서에 반영된 우리나라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교육과정 연구본부의 주업무 중 하나이다.

# 간추린 메모



▲ 7월 1일 본원 월례조회에서 독일 유학 중 우리나라로 귀순한 전철우씨의 북한 교육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



▲ 7월 2일 과학교육연구부에서는 과학교육 진흥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학연금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7월 8일 기획처 주관으로 한국의 교육제도 및 한국관 시정 사업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캐나다 및 호주 교사 43명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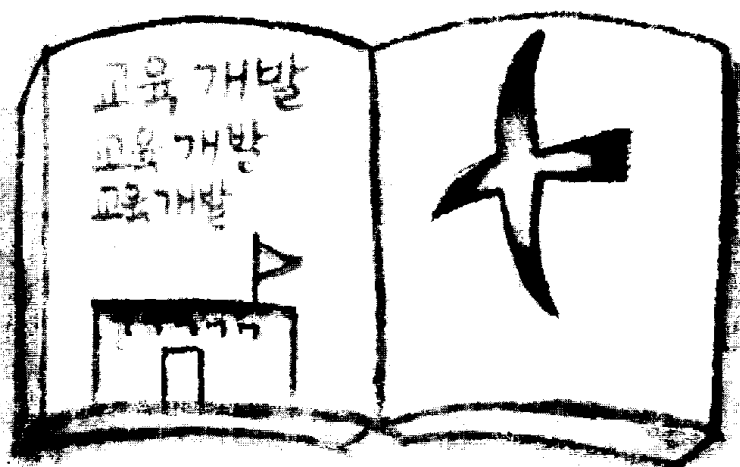
▲ 7월 23일 Dr. Shan-nan Chang 대만 국립 대동 사범대 교수는 KEDI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원을 방문하였다.



# 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의 이념·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개발」을 통하여 현장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목표는 빵이 아니라 인격



이 영 덕  
(명지대 총장)

한국교육개발원이 창립 21주년을 맞는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늘의 훌륭한 연구개발기구로 성장하기까지에는 그 탄생 과정과 초기 성장 단계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가장 생산적이었던 나의 40대의 정열을 모두 쏟아 일한 곳이다. 창립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진 시련들이 회상되곤 한다. 그 때 같이 고생하며 같이 싸우고 승리했던 동료들과 나누던 말 중에는 “우리가 왜 이리 힘들게 싸워야 하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우리들 모두의 합창이 되는 대답은 “이 땅에 좋은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되는 인간상은 ‘창의적 지성과 민주시민적 자질과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격을 지닌 건강한 한국인’이었다, 이 교육목표의 성취를 우리들은 소망했기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할 전국 규모의 교육연구개발기구로서의 한국교육개발원 창설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했던 것이다.

70년대의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한 교육개혁 추진자들이 품었던 교육목표 의식과 그것을 기초로 한 많은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육의 현장과 그 결과를 볼 때에 분명히 교육목표의 중요성의 순위가 뒤바뀌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흔히 말하는 입시위주 교육은 그 최상의 목표를 명문대학 입학과 입신출세에 두고 있다고 해도 반박하고 나올 사람이 없다. 교육이 입신출세에 그 목표를 두는 한 성숙된 인격의 사람 그리고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키워지지 못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그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들을 갖고 태어난다. 먹고 마시고 입고 운동하고 자고 배설하는 등 신체적 욕구를 위시해서,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 소속과 인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욕구, 보다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아

통합적 욕구, 심지어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도덕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본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여기서 기본 욕구라고 한 것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장애를 주게 된다는 뜻에서이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육체적 생존에 위기가 오듯,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심층적 욕구가 좌절될 때, 정신에 병이 온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인간의 기본 욕구 항목들을 주의깊게 분석해 보면 그것들 속에 가치의 위계 같은 것이 발견된다. 이를테면 먹고 마시는 신체적 욕구의 계속적 좌절은 죽음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식욕은 기본 욕구로서의 우선순위는 가장 높은 듯이 보인다. 지식을 배우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죽지 않는다.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한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은 따르지만 당장 죽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이웃을 돕지 못하고도 부와 권세를 누리며 잘산다고 뽐내는 이들까지 있지 않는가?

그러나 가치기준을 인간의 정신적 건강과 풍요의 관점에서 찾는다면 인간 욕구의 우선순위는 정반대로 뒤바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늘의 훌륭한  
연구개발기구로  
성장하기까지에는 그  
탄생 과정과 초기 성장  
단계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정신문화가 발달되면서 더욱 뚜렷해져 가는 것은 인간과 그의 세계에 대한 앞의 갈망은 육체적 욕구보다도 강한 경우를 보게 된다.

유용한 지식에의 갈망도 크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갖는 인간의 고통은 음식을 결하거나 지식 부족으로 갖는 고통 이상으로 그 인격에 손상을 받게 됨을 보게된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배척과 소외는 그 도가 심해지면 정신질환의 원인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소속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 이상으로 강한 정신적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선을 추구하는 도덕적 욕구이고, 한 차원 더 넘어선다면 절대선, 절대진리의 원천인 신과의 사귄다는 종교적 욕구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절대자인 신과 동행하면서 참된 사랑과 의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한 차원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를 선을 추구하며 사는 데 두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자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운 좋게 그런 사람을 직접 접하거나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수가 있다. 그분들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서 세상사람들의 존경이 저절로 따라간다. 그리고 불의한 욕망이나 잡된 생각에서 해방되어 있기에 그분들이 아는 지식은 참되고 왜곡됨이 없으므로 지혜로운 사람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의식주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굶게 되더라도 정신적 풍요가 있기에 별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빵으로가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풍요로 사는 사람들만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건강하고 성숙된 한국인을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교육개혁의 목표일진대, 오늘의 전도된 교육목표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 입신출세를 지향한 입시준비교육을 하면서 아무리 전인교육하겠다고 노력해 보아도 결과는 잘먹고 잘입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하는 교육목표의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인격구조의 외피에 속하는 신체적 욕구 충족에만 치중하게 될 때 심층적 욕구인 도덕적, 종교적 욕구에는 소홀히 되면서 이른바 도덕적 공백상태의 인격으로 전락하여 사회적으로 짐이 되고 개인적으로 불안한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병은 그 원인이 육체적 욕망충족에 치중되어 심층적, 인격적 욕구를 외면한데서 오는 도덕적 불감증을 동반하는 불안한 군중들의 병적 존재방식의 증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원인의 하나는 외적 만족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입신출세 지향이 입시경쟁과 그 준비교육에서 찾게 된다.

21세기 새 세계에서 한국이 살고, 한국인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목표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일이다. 빵이나 권세가 아니라 도덕적 성숙과 인격적 건강이 최우위의 목표가 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일반의 가치관과 교육관 및 교육의 목표 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전도된 교육목표의 위계를 본질적 위계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개혁 노력의 최종 목표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개혁기관으로서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정신을 살리는 일이다.

21세기 새 세계에서 한국이 살고, 한국인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은 교육현장에서의 교육목표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일이다. 빵이나 권세가 아니라 도덕적 성숙과 인격적 건강이 최우위의 목표가 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일반의 가치관과 교육관 및 교육의 목표의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 西山의 思想과 僧伽教育

정 병 삼

현대 승가에서 승려가 출가하여 거의 공통적으로 거치는 것이 講院에서 배풀어지는 履歷과정이다. 이를 마치고 나서 禪院에서 참선 수행을 하든가 사회에 나가 포교활동을 하든가 뜻한 바대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력 과정은 승려의 정규 교육과정인 셈이다.

지금은 대체로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이력 과정은 처음 沙彌科 1년 기간에 기초적인 儀禮를 학습하고 이어 四集科 2년 동안은 선문의 요점을 배운다. 다음 四教科 4년 동안에는 고급 경전을 학습하고 마지막 大教科 3년 동안에는 최고의 경전과 禪語錄을 배우도록 한다.

즉, 10년 기간 동안에 기초적인 의례에서부터 고도의 經典과 禪語錄까지 수학하도록 한 체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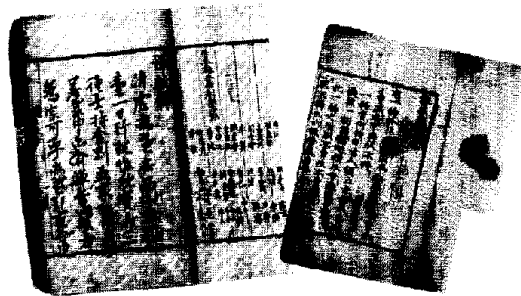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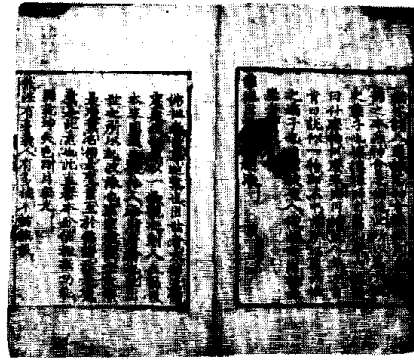
그리고 이를 마친 후에는 隨意科라 하여 임의로 공부하는 기회를 연장하여 다른 전적을 수학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이력 과정은 처음에 승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태도, 특히 마음가짐을 중시하는 학습을 제시한다.

그런 연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교재를 학습하도록 하며 마지막에는 대상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었다.

승려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본과정에서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부터는 철저하게 부여되는 자율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러한 이력 과정은 조선 중기에 활동하던 西山대사 淸虛休靜(1520-1604)대에 확립되었다.



임란의 민족수난기에 구국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기억되는 서산은 사실 그보다는 체계적인 사상 정립과 많은 문하제자의 배출이라는 승려 본연의 활동에 뛰어난 자취를 남겨 그의 思想과 法脈이 조선 후기를 지배하다시피 하도록 한 인물이었다.

서산이 태어나던 시기에 조선 사회는 여러 차례의 좌절을 겪으면서도 성리학의 이념을 정치 사회에 구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시기로서 불교는 상대적으로 철저히 배척되고 있었다.

어려서 儒學을 공부하였던 서산은 18세에 불문에 투신하였는데

얼마 뒤 명종 초년에 일시 추진되던 불교 부흥정책에 따라 부활된 僧科에 급제하고 최고 僧職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승관직이 승려의 本分이 아님을 깨닫고 이내 여러 명산을 돌아다니며 門徒를 지도하는 데 전력하였다.

임란이 일어나자 열세에 몰린 관군은 조직적인 힘을 가졌던 僧軍의 대대적인 봉기를 요청하였고, 서산은 이를 주도하여 제자 四溟대사 惟政이 승군을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왜군을 물리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승군의 활약은 승려의 출가가 인정되지 않던 당시 상황에서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승려들은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으며 국가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승려들은 조선 전기에 분산 유지해 온 명맥을 보다 굳건한 기반 위에서 확대해 나갈 방도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이 이력 과정의 확립

승려의 자질을 함양하는 기본과정에서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부터는 철저하게 부여되는 자율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러한 이력 과정은 조선 중기에 활동하던西山대사 淸虛休靜(1520~1604)대에 확립되었다.

이었다.

그런데 서산이 활동하던 시기는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珥의 주도로 性理學을 완전히 이해하고 조선화해 가는 때였다.

특히 주자성리학의 이해에서 한 단계 나아가 조선성리학의 문호를 연 울곡은 성리학의 이념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를 체계화시켜 小學에서 시작하여 大學, 論語, 孟子, 中庸, 時經, 禮經, 書經, 易經, 春秋의 5書 5經, 그리고 先賢의 性理之書로 이어지는 순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리학 교재의 체계화는 교단 재정립을 갈구하던 불교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 대응으로 서산은 이력 과정을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서산의 사상은 禪家龜鑑, 禪教譯, 禪教訣과 같은 저서에서 찾아지는데, 그 사상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은 禪教會通의 사상이다.

선과 교의 근원은 세존이다.

말 없음으로써 말이 없는 데에 이르는 것이 선이요, 말 있음으로써 말이 있는 데에 이르는 것이 교이다. 그래서 마음이 선법이요 말씀이 교법이다.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한 것이 선이요, 일대에 걸쳐 설한 것이 교이다. 그래서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禪是佛心, 教是佛語).

선과 교는 일념 중에서 일어난 것으로, 심의식이 미치는 곳을 헤아려 생각하는 것이 교이고, 심의식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참구(參究)하는 것이 선이다.

교와 선을 대립적 우열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로 회통한 것이 서산의 禪教觀으로서 이는 이력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궁극적인 귀결점은 參禪에 두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敎學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하는 서산의 선교회통 사상은 조선 전기를 지나면서 성리학의 사상체계 정립과 대중적인 보급에 따라 위축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 불교계를 중흥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대책이었다.

이미 교종과 선종의 특색 있는 진전은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역량을 응집시켜 강력한 성리학의 이론에 대응하여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교합일적인 사상 경향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교관에 덧붙여 서산은 염불에 의미를 부여하는 自性彌陀의 정토관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이후의 불교계는 참선과 교학, 염불을 함께 수행하는 三學수행이 보편화되었다.

당시 주도적인 사상이었던 성리학의 위세에 대응하는 교단을 재정립하고자 했던 서산의 사상과 이력의 내용은 오늘날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불교계의 새로운 방향 정립과 교육 내용 설정에 반드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깊은 뜻으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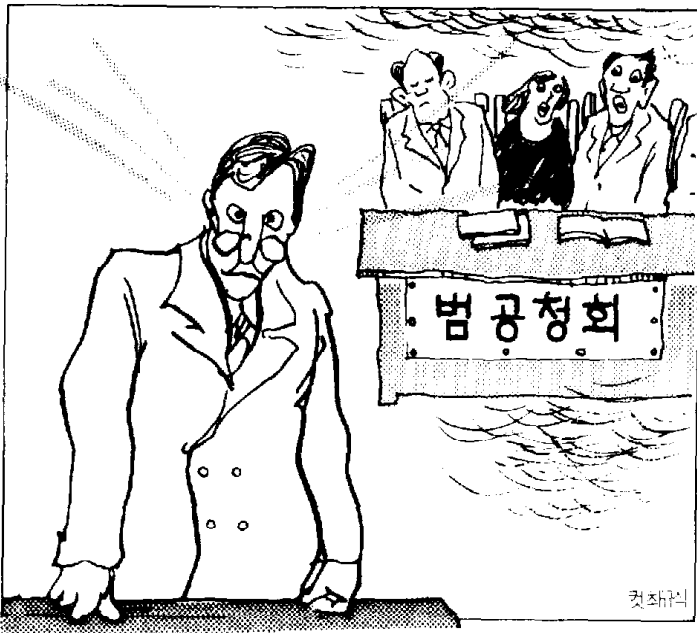


점 범 삼

-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조교수
- 「의상 화엄사상 연구」 등

#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김 윤 태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수많은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성격이 지나치게 혁신적이어서 국민의 저항이 컸던 것도 있었고, 보수적 성격이 강하여 교육발전을 지체시킨 경우도 있었다.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교육 개혁안이 탄생되고 개혁의 방향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교육개혁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 도구적 가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사전 연구없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단기적 미봉책을 강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교육발전을 저해한 것도 있다. 또한, 교육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미흡하였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교육개혁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실패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교육개혁은 이러한 교육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전망하면서 교육을 개혁하는 일과 이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교육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하는 일은 우리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적 과제가 된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때보다도 높다.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교육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크게 변모될 21세기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이 추진될 것을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과거 우리의 교육개혁 경험을 반성하고 향후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즉,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만 한다. 교육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격완성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다. 교육개혁은 이러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원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은 주로 경제성장과 기타 다른 부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 왔다. 더욱이 교육은 주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개발 기능으로 간주되었고 교육계획도 이러한 부문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종합성을 띤 것 같으면서도 실은 경제나 기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적 부문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도 이러한 특수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은 뒤로 처지고 이에 대한 투자도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기능주의 교육관이 사회에

팽배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인격완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보다 입신출세를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교육관이 지배해 왔다.

교육의 본질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교육개혁은 교육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교육을 왜곡시킬 뿐이다.

이러한 교육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그 근원적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교육발전은 지체되고 나아가 '교육망국론'도 또다시 제기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은 개인의 인격완성이나 자아실현 또는 어떤 영원한 진리나 가치를 탐구하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구현하는 방향에서 교육의 근원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전망과 안목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교육 문제를 규명하고 교육문제의 근본적 치유책과 발전책을 창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제 교육의 도구적 가치만을 중시한 그 동안의 교육관에서 탈피하여 교육의 본질에 더 충실한 교육개혁이 구상되고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즉, 교육내용과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교육개혁은 내용적인 것보다 외형적, 형식적인 제도개선에 치중하였다.

즉, 교육제도, 교육행정, 교육재정 등 교육의 지원적 측면에 강조를 두었고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초점을 두고 교육개혁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사실, 그 동안 교육개혁 계획에는 주로 교육행정 전문가가 참여했고 교육과정 전문가의 참여가 비교적 부족했던 점도 교육내용과 방법을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전문가의 참여 폭을 넓히고 교육관계 전문가의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교육내용과 방법개혁에 치중해야 한다.

향후 고도 산업화·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의력과 첨단 기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될 것이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처럼 되어가고 있고, 개방화·국제화의 추세가 고조됨에 따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가 절실하다. 근래 우리 사회에는 이기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결여, 인간존중 의식의 부재,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태

도 등이 팽배하여 우리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높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교육의 역기능 때문만은 아니고 교육체계를 에워싼 정치·경제·사회 등 교육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은 장차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개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교육목표와 내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정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 이외의 부분은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교육은 아직도 전근대적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외형적·제도적 개혁을 하여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개혁되지 않으면 실속 없는 개혁이 될 것이고 겉치레에 불과할 것이다.

범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해야 교육에 관련된 집단은 다양하며 전국민이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다. 교육에 대한 견해도 저마다 다르며,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상식도 난무하며 편견도 많다. 저마다 교육에 대해 일가견이 있고 이해관계도 다르다. 한 마디로 말이 많은 곳이 교육부문이다.

따라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관련집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교육개혁의 추진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 교육개혁 정책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제외한다든가 개혁시안을 지지하는 층을 중심으로 이론을 형성해 나간 적도 있어 범국민적 합의를 받지 못했다고 하겠다.

교육정책형성 과정에 관련된 정책변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련집단을 모두 참여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범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교육개혁은 그 실천에 있어서 협력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교육정책은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 교육의 효과는 장기간 지나야 나타나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많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다보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또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엇갈려 교육을 혼란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 교육개혁은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고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교육개혁안은 공식적으로 채택하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광범한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안으로 결정해야 한다.

교육개혁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교육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이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의 민주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범국민적·범사회적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교육정책 주체인 정부만이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도 개혁 주체가 되는 범국민적, 범사회적 참여 및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확고한 교육개혁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장·단기 교육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교육개혁 지원, 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앞으로 신설될 교육개혁위원회와 그 운영기구는 적절한 기구라 하겠다. 각 시·교육청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교육개혁안을 구체화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행정요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 요건이다.

교육개혁은 학교안에서도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교사는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지적 수월성을 보장하는 교육을 하되, 자율적·도덕적 인격형성에도 노력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교장은 제반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확립하여 교육개혁 추진을 지원하며 교육개혁 추진과정에 교사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활용을 통해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자녀관, 양육태도 등의 변화를 통해 교육개혁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나 종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다. 부모는 자녀교육에서 그들의 소망보다는 자녀의 적성과 요구를 앞세우고 자녀를 격려하고 후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합리적 사고와 진취적 태도, 예절과 절제의 정신, 공익의 추구하고 정의구현 등 이른바 발전지향적 정신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 일은 부모가 가정생활을 통해 자녀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길러 줄 수 있다. 근래 일부 학부모에 의해 성행되었던 교육계의 부정과 부조리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건전한 학부모상의 확립도 필요하다.

사회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환경으로서 이들 교육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기업체, 시민단체, 대중매체는 교육개혁의 지원체제가 되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다.

기업체는 산학활동을 통해 교육과 연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이 교육에 의하여 양성·공급되는 고급인력의 확보와 연구의 성과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필요와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회성원들도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조성하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비판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언론, 방송 등 대중매체는 교육개혁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범국민적·범사회적 참여와 동기를 유발하는 한편 교육개혁안 또는 활동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여론을 형성하여 반영토록 하는 비판자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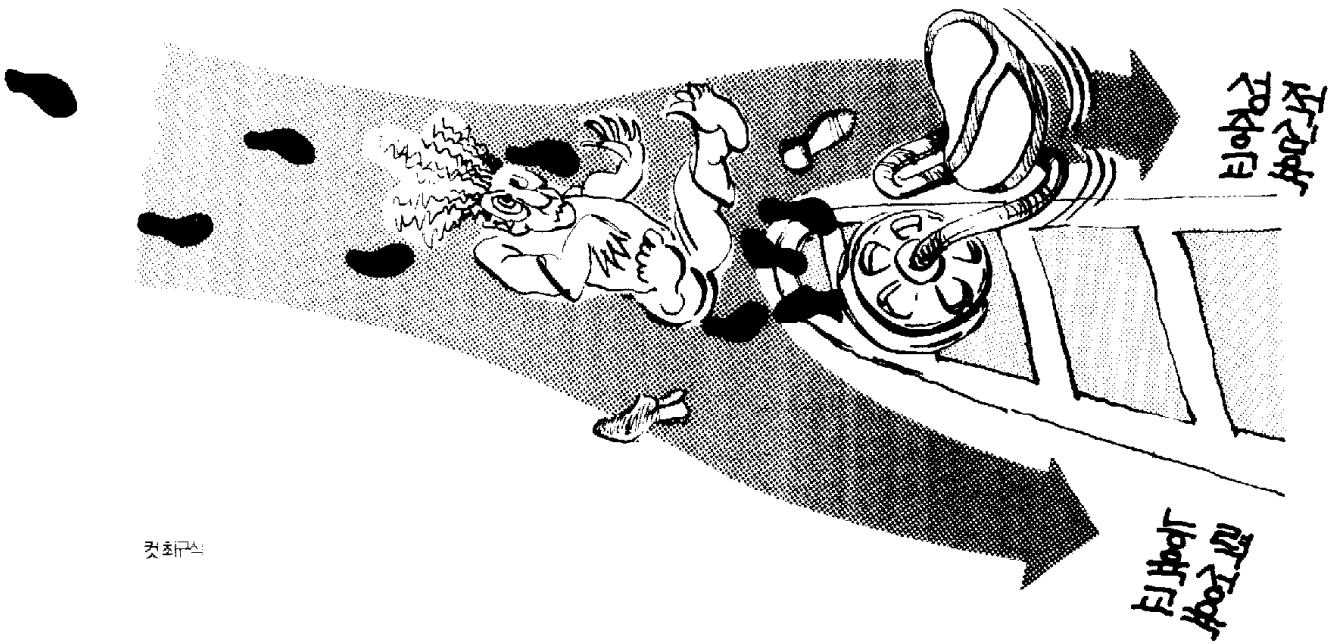
김 윤 태

-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졸업
-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서강대 교육대학원장
- 「교육행정」, 「경영신문」, 「교육행정학」



# 한국교육의 판(板)

문 용 린



컷화식

## 1. 판이론의 비유

지질학에서 지진현상을 설명할 때 판이론이 사용된다. 즉 지구를 구성하는 대륙들이나 바다는 그것을 떠 받치고 있는 몇 개의 쟁반같은 판(plate)이 있다.

이 판들은 1년에 얼마큼씩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판들도 그 아래 있는 마그마 위에 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판들은 서로 다른 속도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판과 판 사이에서는 충돌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지진도 그 현상 중의 하나라고 간주된다.

일본에 지진이 많은 것은, 그 나라가 아시아 판과 태평양 판 사이에 위치해서 그 충돌효과를 직접적으로 겪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지진의 효과를 더 적게 느낀다. 판 위에 떠 있는 한 그 판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비유를 한국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적 모순과 부조리 현상들은,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거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들을 제공하는 어떤 판(板)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속적이거나, 부수적인 일이나 사건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 2. 두 가지 교육의 판

한국교육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것이다.

교사는 10등 이내 상위권자를 감싸고, 그들이 공부하려는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고무해주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포기한 아이들’, ‘해도 안되는 아이들’로 치부해 버린다. 그 아이들이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기준 학력에 도달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어떤 이는 우리의 긴 역사 속에서 굳어져 온 교육관행 속에서 교육이론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해방 이후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서구 교육이론의 틀 속에서 교육이론을 끄집어 내기도 한다.

이런 차원의 교육이론들이 교육적 사실과 현상들을 어떤 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데에는 훌륭하지만, 한국의 교육이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지 못한다.

즉, 한국의 학제가 어떻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무슨 과목은 강조되고, 어떤 과목은 소홀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과외 현상이나 학원의 난립, 대학정원의 과도한 통제, 교육예산의 열악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두 가지 교육관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교육을 움직이고 있는 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판(板)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발굴 및 육성 중심 교육판이다.

### 3.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에서는 성적 우수자가 언제나 관심의 초점이 된다. 교사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공부 못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적다.

국민학교 수업 현장에 대한 참여관찰 보고서 중의 하나에 의하면, 국민학교 5학년에서부터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상의 수업진도에 따라 교과서를 가르친다. 그들은 반 전체 학생들이 모두 자기의 진도속도에 맞추어

따라 오리라는 것은 기대조차 안한다.

5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약 15~20명만이 교사의 설명에 주목하고, 나머지는 수업과는 상관 없이 자기 일에 몰두한다. 수업이 끝난 후에 그들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고, 노트에 필기는 되어 있으나, 그들은 수업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결국 50명의 인원 중, 그 날 수업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쫓아가는 학생은 15~20명에 불과해진다.

이렇게 해서 한두 달이 지난 후에 시험을 보게 되면, 10 등이내의 상위권이 부각되고 25등 밖의 중하위권 그룹이 생겨난다. 교사는 10등 이내 상위권자를 감싸고, 그들이 공부하려는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고무해주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포기한 아이들’, ‘해도 안되는 아이들’로 치부해 버린다. 그 아이들이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기준 학력에 도달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학부모를 불러 “공부를 못하니, 집에서 더 열심히 가르칠 것”을 요구한다.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더 공부하라고 다그친다. 그러나 이들 교사들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미달된 학력’을 끌어올려서 국가가 정한 표준까지 학력을 도달시켜야 한다는 자기 책임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자기의 수업진도를 자기 힘으로 쫓아오는 학생들만을 데리고 수업을 전개시켜 나간다. 못 쫓아오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들 부모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성적 우수자 중심교육은 중·고등학교로 들어가면 더욱 심각하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다수의 수업,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의 수업은 5~10명을 겨냥해서 이루어진다. 대다수 학생은 그냥 들러리라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하에서는 성적우수자 그룹에

끼는 일이 중요해진다. 여기에 끼이지 못하면, 학교의 주류집단(主流集團)에 끼이지 못해서 많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자리를 얻어 공부할 기회가 박탈된다.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혜택이 배분되기 때문이다.

중학교에서 성적 우수자 집단에 끼이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믿는 부모들은 국민학교 저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는 정작 7~8년 후에 닥칠 일인데도, 성적 우수자 집단에 끼이지 못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이, 국민학생인 자녀들에게 영·수를 가르치게 만드는 것이다.

“

학교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들이 학교 밖에서 이처럼  
왕성하고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대한민국 말고도 또 있을까? 이런 모든  
폐해가 다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이라는  
판 때문에 생겨난다. 이 판이 바뀌지  
않는 한 과외는 계속될 것이고,  
학원산업은 더욱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 판이 존재하는 한 교사들은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 왜 나쁜 것이고, 얼마나 정상에서  
벗어난 교육이 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

”

학교는 성적 우수자만을 끌고 가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관심 밖으로 둔다.

그런 학생들은 그들 부모가 책임져 가르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버리고 돌보지 않지만, 부모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집에서 가르치기도 쉬운게 아니다. 그래서 학원에 보내게 되고, 과외를 시키게 된다. 학교가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학교 밖의 사람들에게 떠 맡기워지게 된다.

학교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들이 학교 밖에서 이처럼 왕성하고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대한민국 말고도 또 있을까?

이런 모든 폐해가 다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이라는 판 때문에 생겨난다. 이 판이 바뀌지 않는 한 과외는 계속될 것이고, 학원산업은 더욱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 판이 존재하는 한 교사들은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 왜 나쁜 것이고, 얼마나 정상에서 벗어난 교육이 그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다.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렇게 해서 일류대학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학교나, 교장,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주가를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교사와 교장들이 많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판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물인 셈이다.

교육계 내부에 존재하는 상벌의 기준이 바로 성적 우수자 중심교육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와 교장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 판이 요구하는 논리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의 판을 바꿀 필요가 있게 된다. 이 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사, 교장, 좋은 학교의 기준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수한 교사, 교장, 학교는 극소수의 성적 우수자로 하여금 일류대학에 많이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표준 학력 도달률을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고1 학생들의 경우, 국가가 정한 학력도달기준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가 맡은 고1 학생들 중에서 95%를 기준학력에 도달시킨 교사는 50%만을 기준학력에 도달시킨 교사보다 유능하고, 우수하다고 평가해 주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의 기준학력 도달률을 재는 평가 개념이 없다. 단지 매년 입시철마다, 일류대 합격과 수만이 공개되고, 그에 의해서 좋은 학교, 좋은 선생이 드러날 뿐이다.

이러한 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

국 학력평가(national assessment)가 하나의 대인이다. 전국의 학생들이 국가가 정한 기준 학력에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잣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때문이다. 이런 학력고사의 도입으로 건전한 학력경쟁이 교사간에, 교육청간에, 지역간에 일어날 것이다. 학생들의 상호간 성적 경쟁이 아니라, 교사나 교육청 행정가들간의 잘 가르치기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적 우수자 중심교육은 어느 새 사라지고, 전체학생들의 기준학력 도달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품미케 될 것이다.

이런 경쟁은 그 자체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교육의 기본관이 변화하게 되면, 새로운 교육관이 자동적으로 들어서게 되는 바 그 관의 명칭은 능력발굴·육성중심 교육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4. 능력발굴·육성중심 교육

능력발굴·육성중심 교육은 성적우수자 중심교육에 서와는 달리,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교육이란 각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굴하고 육성시키는 일이며, 성적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선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교육은 이 능력을 발견하고, 발굴·육성시켜서 그가 이 세상에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학교가 보다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말은, 민주적으로 보다 허용적으로, 관대하게 아이를 다루라는 뜻이 아니다. 전인적이란 말의 본래 뜻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고유한 능력과 소질, 특성을 발휘케 하여, 독특한 기여를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면서 살아가게끔 한다는 의미이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에는 천재였지만, 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보통 이하의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가 많다. 모

든 과목을 합쳐서 평균을 냈었다면 아인슈타인의 특성과 재질은 교육을 통해서 발굴되지 못했을 것이다. 수학만을 잘하는 자기 능력을 발굴하고 육성시킨 교육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성공할 수 있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태어났더라면, 그는 총성적석차를 중시하는 관행 속에선 열등아로, 하위권 학생으로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을 탈피하게 되면, 우리가 서 있게 될 교육의 판은 능력발굴·육성중심의 교육관이 될 것이다. ㉠



문 용 린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미네소타대학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도덕교육론」, 「두 세계의 어린이들」

# '92년도 KEDI 연구 지상전

## I 교육과정연구 및 한국관 시정사업

### 1.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행동 양식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1990년부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자료를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성인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가해지고 있는 비난들이 대부분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처방의 일환으로 단체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식이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관점 하에 자료를 개발하였다.

연구자: 광병선 외 14인

### 2. 학교현장의 교육 방법 혁신 사례 연구

-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학교가 선진국에 비하여 월등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혁신적이고 효

과적인 수업사례(995개)를 조사·분석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상적인 교육방법들을 체계화하였다.

- 조사결과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교사 중심의 일제식 수업 방법에서 탈피하여 열린 교육, 주관식 평가, 사고력 교육, 자율 학습 방법, 소집단 학습 방법, 즐거운 교실 만들기, 전통 교육, 사제간 인간 관계 개선 방법 등 새로운 교육 방법을 활발히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었다.
- 이 방법들은 외국의 방법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들이 필요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연구·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천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자: 허경철 외 4인

### 3. 국어 표현력 신장 방안 연구

- 이 연구는 작문 교육을 위한 지도 내용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인 지도 모형을 탐색하여,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문 지도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개발·제시하였다.
- 학생들에게 단순히 작문 과제를 제시하여 주고 작문 결과를 점검

하는 방식보다는, 교사가 작문 능력을 구성하는 기능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 주어 학생들이 실제의 작문에서 적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기능을 습득시키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다.

연구자: 손영애 외 2인

### 4.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도덕 교육의 역할(I)

- 이 연구는 2개년('92~'93) 사업으로서, 1차년도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병리 현상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도덕적 위기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 도덕 교육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1992년도 연구 결과를 볼 때 학교 도덕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덕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도덕 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일대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 도덕 교육은 이러한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 학교 도덕 교육은 교육적 슬로건에 그치고 있다.

연구자: 유균상 외 4인

**5.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학교  
교육 평가 체제 연구**

- 현행 학교 교육 평가는 교육의 본질은 무시된 채 '점수따기 요령'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으며, 인간다운 인간은 넓은 의미로 지적·정의적·심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전인적인 인간을 말한다.
- 이 연구는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평가 체제를 구안할 목적으로 1990년부터 3년간 추진되었으며, 각 교과와 평가 모형과 행동발달상황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 제1차년도(1990년)에는 평가체제 일반 모형을 개발하고 각 교과 교육의 역할 및 평가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2차년도(1991년)에는 1차년도에 개발한 학교 교육 평가체제 일반 모형에 근거하여 9개 교과와 평가 모형 및 예시 도구와 행동발달상황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3차년도인 1992년에는 9개 교과와 행동발달상황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학교 교육 평가 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자: 성경희 외 11인

**6.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학교  
교육 평가 체제 연구(III)**

-초·중등학교 교육 평가 개선 방안-

-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학교 교육 평가 체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교육과정 중심 평가를 하되 고등 정신능력 신장을 위한 논술식 평가를 강조하고, 평가에 관한 교사 재교육 및 직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하며, 전국적인 평가정보를 수합하고 확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학교 평가 체제 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 신세호 외 2인

**7. 외국어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자료 개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 이 연구는 우리의 외국어 교육이 문법, 번역 중심의 읽기 교육에서 탈피하여 직독 직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글감과 연습 문제로 구성된 읽기자료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 다양한 문제 및 재미있는 게임, 생각해 볼 문제와 논쟁거리의 물론 학생들의 토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연구자: 최진황 외 3인

**8. 중학교 진로교육 강화 방안 연구**

-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진로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14개 항목의 진로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참고로 일본 「진로교육의 개략」을 부록으로 첨가하였다.
- 중학교의 진로교육 성패는 교과 교사 및 학급담임의 진로교육 인식확대에 달려 있다. 교과 및 특별활동, 상담활동 등이 진로교육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연구자: 임두순

**9. 외국 7개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분석 연구**

- 이 연구는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필리핀, 타이랜드, 몽골, 터키 등 7개국의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를 나라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분석된 7개국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주변 열강들의 대립 속에 오랜 기간 파란을 겪어 온 나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암울하고 불운한 역사의 나라, 그렇지만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 한국 관련 내용이 잘못된 것은 정보 수집의 미흡과 낙후된 자료의 인용 때문이다. 그러한 자료의 대부분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논리로, 냉전 체제의

강대국의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연구자: 이찬희 외 3인

### 10. 일본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변화 분석

● 이 연구는 1989년에 개정된 교

육과정에 의해 새로 편찬된 일본 소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을 구 교과서와 비교하여 1982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 이후 얼마 만큼 변화되어 올바르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주제별, 출판사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리·제시하고 있다.

●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왜곡의

정도가 심한 몇몇 주제(일제 침략기의 토지수탈, 인력수탈 등)는 출판사의 의도라기 보다는 문부성의 검정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침략을 사실대로 기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이 요구된다.

연구자: 이찬희 외 2인

## III 교육기초연구 및 자료 개발

### 11.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 구상

● 이 연구는 우리 나라의 교육 전체를 올바르게 보고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된 과제이다. 학생과 교직 문화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 학력 미달과 교육적 역기능 등이 성장세대의 정신적·신체적 장애의 요인이 되며,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도 파헤쳐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 나라의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포함하여 10책의 대단원으로 우리 나라 학교 교육의 문화 전체를 상세히 해부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미래 구상을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구성
- 교육내용과 수업방법의 혁신
- 우수한 교사의 확보와 깨끗한 교직풍토의 정착

- 공통체적인 학생들의 삶과 문화 형성
-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실천을 학교에서 유도
- 학교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교육 행·재정의 과제 해결
-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한 선발제도 운영

연구자: 정재걸 외 7인

### 12.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효율화 방안 연구

● 이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젊은층의 3-D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공고, 상고, 농고, 종합고)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의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요구 조사를 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기술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터해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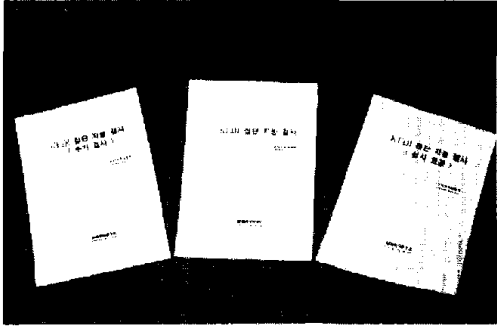


● 고교 직업·기술 교육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하여 인력 개발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민간 산업 부문의 참여와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직업훈련분담금」을 「인력개발분담금」으로 전환하여 열악한 직업·기술 교육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연구자: 임천순 외 2인

### 13. KEDI 집단 지능검사 개발 연구(II)

● 이 연구는 전통적 지능이론인 심리측정적 입장과 새로운 경향인



인지과정적 입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지능 검사 도구를 연구·개발하였다. 지능검사 도구는 국(4학년 이상)·중·고와 대학생용 집단지능검사 8종(학교급별로 A, B형 동형검사로 구성)으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 이 검사는 기존의 지능검사와 같이 지능 지수를 산출하는 것 외에, 인지 과정적 정보를 줄 수 있다. 인지 과정적 정보는 첫째, 문제 해결시 학생들의 수행능력에 기초한 과제의 위계화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부류의 문제를 어려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부분과 둘째, 학생들의 오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두 부분에 의해 제공된다.

연구자: 박경숙 외 3인

#### 14. 행동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근 정서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와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행동장애 학생을 치료하고 그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자료이다.
- 이 연구는 학생의 문제 행동과 심리적 문제를 학교 내에서 진단·치료하여 학생의 적응력을 키

워 줄 목적으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부적응 행동 수정 프로그램」, 「언어 지도 프로그램」, 「학업 기술 프로그램」 등 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자: 이나미, 황혜남

#### 15. 국민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I)



- 환경문제는 현재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또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관, 태도, 행동 등은 어릴 때에 형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어린이 환경교육이 절실하다.
-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스스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알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1992년에 「보람찬 환경탐구」(국교 5~6학년용)와 「재미있는 환경탐구」(국교 3~4학년용) 자료를 개발하였으며, 1993년에는 「즐거웁한 환경탐구」(국교 1~2학년용)와

교사용 지도서를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자: 최돈형 외 4인

#### 16. 국민학교 영재를 위한 심화 학습 자료 개발 연구 - '사고, 탐구, 창조' -

- 우리 나라도 영재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잠재력의 최대한 개발에 결정적인 시기라 볼 수 있는 국민학교 수준에서의 교육은 방치된 상태이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현행 교육 체제는 획일적이고 평준화되어 있어,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지적호기심이 강한 영재들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보다는 문제나 학습 부진으로 전락시켜가고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영재들의 사고력, 자율적인 탐구능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길러 줄 목적으로 국민학교 3~4학년과 5~6학년 영재아를 위한 「사고, 탐구, 창조」의 심화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연구자: 조석희 외 2인

#### 17. 유아인지 학습자료 개발 연구

- 유아의 지능발달은 추상적 언어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사에 따르면, 현 유아교육 자료는 대부분 언어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



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아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놀이 기구로서,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4, 5, 6세용 유아인지 학습자료 25종을 개발 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교육현장에 투입하여 유아교육의 혁신적 방법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 특히, 이 연구의 자료는 한국적 소재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서, 외국 상품에 물들어 있는 우리나라 유아들을 한국적 놀이기구를 통해 '한국인'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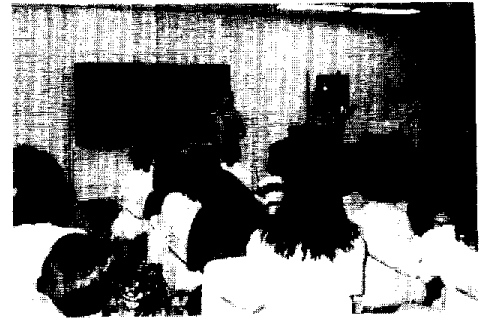
연구자: 나정 외 2인

### 18. 한국 사회교육의 실상과 미래 전망 연구

- 최근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부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발전의 제2원동력인 사회교육의 성장과정과 발전적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 사회교육의 청사진을 그려내기 위한 연구이다.

- 1993년에 2차년 연구가 종료되면 한국 사회교육의 과거 및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자: 최문실 외 2인



## III 교육정책연구

있다.

### 19. 입시위주교육의 실상과 대책

- 우리 나라 학생들은 무제한 경쟁의 입시위주교육 체제하에서 인격교육, 직업교육, 사회화 교육을 등한시하여, 윤리·도덕과 양심적인면에서까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차원에서 1990~1992년도에 걸쳐 입시위주교육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교육적·사회적 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입시위주교육의 완화는 고등교육체제를 다양화하고, 대학정원 결정권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여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한편, 대학 교육의 질관리를 철저히 하는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연구자: 강무섭 외 4인

### 20.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의 교육 -교육투자의 확대 논리 연구-

-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교육여건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주요국가의 교육 투자 정책과 비교하고, 국민 의견조사 등에 터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가 부담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빠른 시일 안에 GNP 중 공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5%까지 증대하여야 한다.

연구자: 한유경

### 21.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1) -통일단계별 정책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

-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여러 노력들 중에서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것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본원은 2년간에 걸쳐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1992년에는 국가의 통일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과제를 정립하였으며, 1993년에는 통일에 대비한

교육체제 통합의 모형구축, 남북한 교육제도 비교분석, 남북한 교육체제의 통합을 위한 지원 체제 및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자: 박재운 외 2인

### 22. 농어촌 소규모 국민학교 경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최근 농어촌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및 행·재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 및 사회적·문화적 발달이 저조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아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 연구결과, 농어촌의 소규모 국민학교에서는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지침서, 학습자료, 그리고 복식수업을 위한 교사 연수 및 교육대학 내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부재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자: 김용우 외 2인

### 23. 교사 신규채용 및 전보제도 개선 연구

-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교사의 신규 채용과 전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 및 전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요구조사에 터하여 분석하여 도서벽지 조건부 임용을 전제로 하는 교육감 추천 위탁교사 교육제도, 전보구역 및 기간 그리고 기관의 조정 및 시·도간의 협정에 의한 교류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 이윤식 외 2인

### 24.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 지방교육자치제가 199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 정착·발전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합리적인 체제 구축은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 이 연구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재원의 조달과 배분 및 운영체제별로 합리적인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 공은배 외 2인

### 25. 대학단계의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방안 연구-전문대학,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 현재 대학단계의 직업기술교육 기관에서 배출되고 있는 기술인력은 산업체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연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인력의 공급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대학, 산업대학을 우선하여 보완·정비하고 직업·기술교육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전문대학위제도를 전문대학부터 대학원단계까지 도입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자: 최영포 외 2인

## IV 컴퓨터 교육 연구

### 26. 학교에서의 컴퓨터 도입과 활용을 위한 지침 개발 연구

- 현장에 있는 많은 컴퓨터 담당 교사나 학교 행정가들이 학교에

서 컴퓨터를 도입하고 활용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도입·설치하는 경우, 점검하고 준

비해야 할 사항과 교수-학습 및 학사 업무의 사무자동화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세한 안내 및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연구자: 손병길 외 2인



### 27. 교육용 LAN 시스템의 활용 방안 연구

- 이 연구는 '93년도부터 현장에 보급·활용될 교육용 LAN 시스템(교실망)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선 및 개발 방안, 교육용 LAN 시스템의 설치 방안 및 학교 내 고유 정보의 관리와 교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김동식 외 1인

### 28. 문제 해결 학습을 위한 CAI 프로그램 전형(Prototypes) 개발

- 컴퓨터가 갖는 다양한 잠재적 특성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의 고차적 사고능력,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CAI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 이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학습에 관련된 이론에 터하여 CAI 프로그램의 전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소규모의 대상에게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자: 김동식 외 2인

###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학교 컴퓨터 교육 강화 사업

- 이 사업은, 학교 컴퓨터를 위한 컴퓨터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자료, 교육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교육 요원 양성, 컴퓨터 시설 설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연수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 '92년도의 실적을 보면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학교 경영 학사 업무용 소프트웨어 90편, 「학교 컴퓨터 도입·활용지침」 등과 같은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이 밖에도 컴퓨터교육 담당전문직 60명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12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손병길 외 2인

### 30. 초·중등학교 컴퓨터 과목 운영 방안 연구

-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 수가 늘어날 전망이나 아직 교육과정, 교사 및 시설 등에서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 제6차 교육과정 적용기간 중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가 선택과목으로 도입될 기회가 주어짐에 따

라 학생들간에 컴퓨터 교육 기회의 개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학교에서의 컴퓨터 과목 최소 이수 단위를 제시하였다.

- 제6차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목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학생에게 적절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학생 수준에 맞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정택희 외 5인



### 31. 교육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 교육연구개발 및 정책수립은 관련 정보의 과학적 활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하여 방대한 교육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국가전산망 구축계획(교육전산망)과 연계하여 KEDI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과 시범정보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이 장기계획은 교육부의 교육전

산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데, 1차년도인 '92년도에는 시범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학교정보

검색 시스템과 전자게시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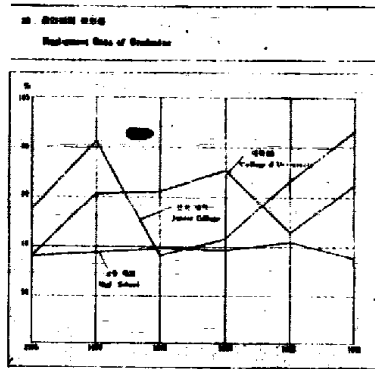
연구자: 이옥화 외 2인

## V 교육자료정보연구

### 32. 한국의 교육지표

- 「한국의 교육지표」는 한국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1984년 이래 매년 발간되고 있다.
- 이 연구는 교육의 발전과 관련된 한국의 교육정보·통계자료를 체계화하고, 요약·정리하는 사업으로, 국내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를, 교육관련자 및 해외 교육기관에게는 한국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이 자료는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한국교육의 발전 상황을 지표화하여 도표로 개관하였고, 제2부에서는 교육기

회,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의 발자취를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주요국의 교육발전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제4부에서는 교육발전지표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 기초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 이 자료는 우리 나라의 교육발전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게 해 주고, 일부 외국의 교육정보 및 통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우리 교육의 위치를 국제적인 무대에서 가늠하게 해 준다.

연구자: 류삼태 외 1인

## VI 방송통신교육연구

### 33.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과정 시범운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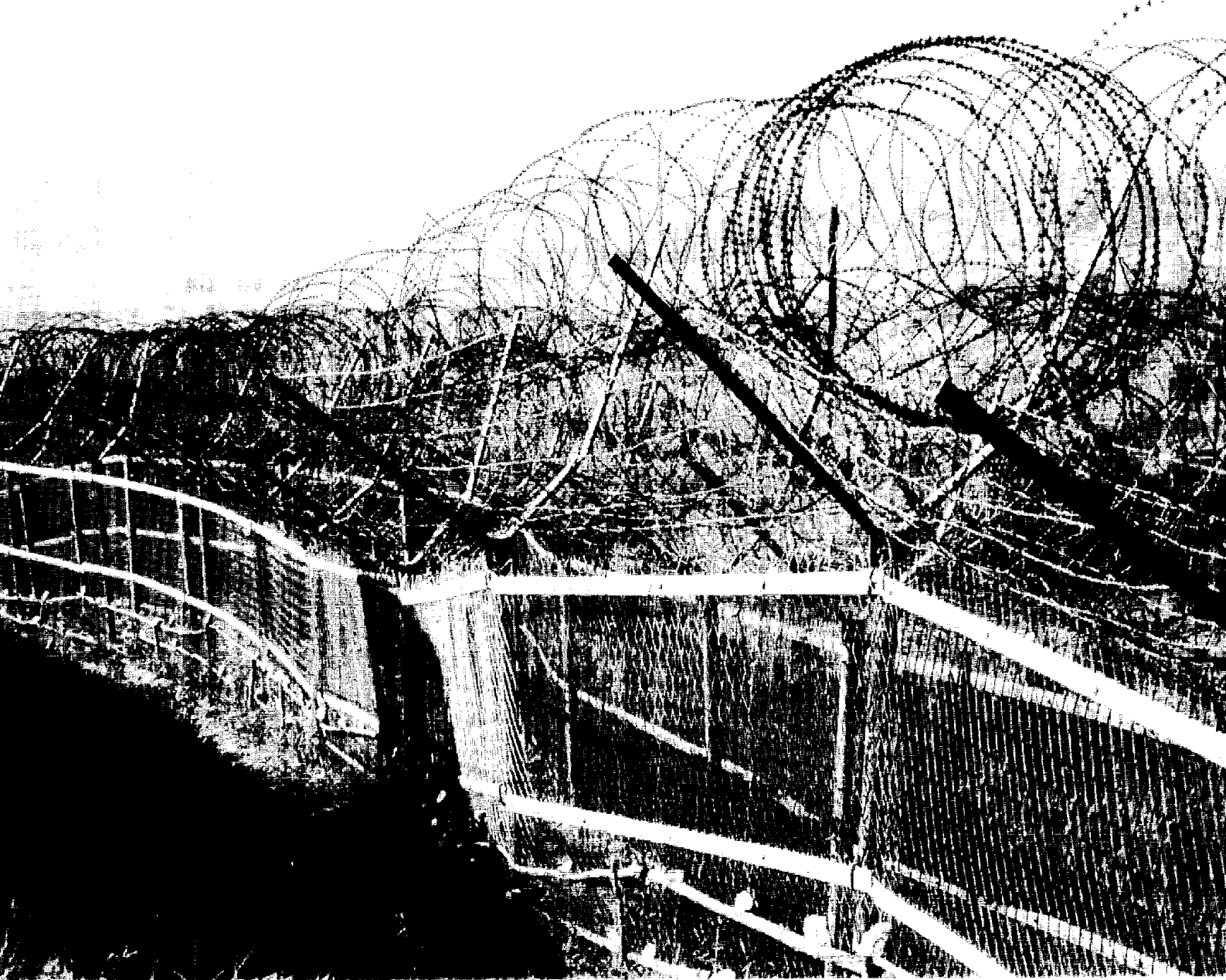
- 1974년 국민 교육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개교한 방송통신고등학

교(이하 '방통고')는 1987년을 분기점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에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45%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0, '91년도에 수행된 방통고 제도개선 연구결과를 투입, 직업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방통고 직업과정 설치의 가능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비 규모 등 방통고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연구결과 1년간의 방통고 직업과정은 교육기간이 짧으며, 수료점정의 혜택과 기능사 자격 취

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년 또는 1년반의 직업과정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 이범홍 외 4인



■  
특집

## 통일시대의 교육

분단40년, 남북간 언어도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통일의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넘어야만 할 길이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서 교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번호에서는 통일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

—통일의 의미·당위성·과제—

허 문 영



허 문 영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정치학박사)
- 강원대·성균관대·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북한학과 강사
-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북한 체제의 실상과 변화 전망」(공저)외 다수

## 1. 서언

우리는 그 동안 분단 청산과 민족 통일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고,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고위급 및 각종 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등 총 12건의 합의문서를 발표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에 따른 국제적 대북 압력과 통독 사례에서 시사되는 통일비용의 과도한 부담에 대한 우려등으로 인해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이다. 더욱이 남북한간에 각종 「합의서」가 도출되었다고 해서 통일이 단순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우리의 주체적 능력과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통일 의지가 온전하게 갖추어질 때,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문제에 대한 감상적 주장을 지속하기 보다는 이성적 이해를 토대로 차분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80년대 말 어느 통일문제 세미나에서였다. ‘왜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한 청중의 문제제기에 강단 위에 있던 논문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여러가지 이유를 거론하였으나, 청중에게는 별로 감명적이지 못하였다.

작년에 있었던 어느 세미나에서는 ‘통일’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하나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을 검토해 보고 우리의 과제를 간략히 제안하려 한다.

## 2. 우리는 어떠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민족구성원 각자의 세계관, 국가관, 이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된다. 또한 각자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받아 들이는 자세도 각양각색으로 표출된다.

이산가족의 경우 생활공간의 통합을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북한동포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인도주의자들은 정치적 체제통합 보다도 남북 경제협력을 통일의 제1요건으로 생각한다. 한편 일부 공산주의신봉자들은 선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후 남북 정치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통일을 이룬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통일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결국 우리의 통일은 '함께 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에 살고 있는 민족구성원 어느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나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통일은 남과 북이 싸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는 과정적 창조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통일의 의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통일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통일은 창조적 또는 새로운 통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통일신라 이래 1300여년의 통일사를 이루어 온 단일민족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두 개 이상의 국가사회가 하나로 되는 통합(Integration)이나 통일(Unification)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통일을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의미에서 재통일(Reunification)이라고 규정짓는다.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재통일은 복고적인 「분단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뜻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냉전후기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계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이고, 새로운 통일(New Unification)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통일은 과정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좁게 해석하여 정치통합(즉 단일헌법의 통용과 정부형성)만 이루어지면 통일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일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서 민족구성원이 하나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생활공간의 통합, 경제체제의 통합, 문화통합, 의식통합, 정치통합 등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를 통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은 앞의 사람들이 사용하듯이 양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연속변량적 개념이다. 예컨대 문화통합이 이루어지면 30% 통일, 생활공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50% 통일, 경제체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70% 통일, 의식통합이 이루어지면 90% 통일, 정치통합이 이뤄지면 95%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통일은 '함께 사는 통일'이 되어야 한

다.

그 동안 우리는 냉전적 국제질서 하에서 '이기는 통일'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기는 통일'은 통일을 우리의 뜻대로 이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손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추구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통일이라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이제 분단 주범국의 하나였던 소련이 해체되었고, 화해와 협력의 냉전후기적 신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우리의 통일은 '함께 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한에 살고 있는 민족구성원 어느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나아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통일은 남과 북이 싸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협력하여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는 과정적 창조작업인 것이다.

### 3.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가?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정부 민족구성원 대부분이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상이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 남반부 인민의 해방에서 통일의 당위를 찾고 있다. 북한은 노동자·농민·근로인텔리·근로인민만을 주권자로 인정하는(개정헌법 제4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는 계급국가(제12조)로서,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다. (로동당 규약 전문) 이러한 시각에서 그들

은 남한사회 내의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는 통일의 당위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적 이유로서,** 남북한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말로 다할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경험했다. 좁은 국토에서의 3년간에 걸친 대규모 파괴로 인해 국군 22.9만명, 북한군 52만명, 유엔군 3.8만명, 중공군 90만명 등 총 180여만명에 달하는 전투요원이 사망하였다. 민간인의 피해는 더 큰 바, 남한지역에서만 사망자 24.5만명, 부상 23만명, 공산군에 의한 피살 13만명, 남북 8.5만명의 피해가 있었고, 이에 따라 30만명의 전쟁미망인, 33만의 전쟁불구자, 10만명의 전쟁고아, 100만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난지 40년이 되는 지금의 남북한 군사력은 그 때에 비해 훨씬 강력하고 무서운 힘(한국전쟁 당시보다 80배가 넘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의 경우 핵무기가 개발되었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분단 상태하에서는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위협과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의 공포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통일이 되어야만 이러한 위협과 공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이유로서,** 민주주의 발전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하의 민주화나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유한성을 갖게 마련인 바, 분단이 극복된다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계약요건이 제거되기 때문에 민주화와 자유화가 신장될 것이며, 정치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에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일은 모든 부분의 민주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반도는 미·일·중·러 4개국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지역으로서, 4대국간의 분쟁요인을 줄이고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분단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이유로서,** 남북한 경제역량의 단일화를 통한 비약적 경제발전과 민족번영을 성취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세계시장·국제경제와의 밀접한 연관성에서,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각각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다면 남북경제의 강약점이 서로 보완되면서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며, 6천5백만의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에게 비굴할 필요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도한 남북경쟁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민족역량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는 바, 남북한 모두 서로 상대방을 제1의 적으로 삼고 지출하는 막대한 군사비(북한은 GNP중 30%를, 남한은 6%를 사용함 : 북한은 전체노동인구의 12%, 남한은 6%를 군의 병력으로 이용함)와 국제사회에서의 치열한 외교경쟁 및 체제경쟁에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자원과 역량을, 통일이 될 경우 민족번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인도적 이유로서,** 100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통일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민족 다국가의 실례는 많은 바, 사실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필자는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 나아가 해외동포와 우리의 후손까지 포함한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근 50년에 가까운 세월을 김일성 일인독재하의 집단주의·전체주의 체제 가운데 살아왔다.

따라서 북한의 형제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보가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빈곤의 평등' 생활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50만 재중·재러 동포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제하 함경도·평안도에서 이주했던 사람이라, 북한을 고향으로 여기며 북한의 궁핍을 자신의 궁



땀으로, 북한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도 우리의 혈육인 바, 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민족 분단에 따른 전쟁의 공포와 민족 자해적 양태를 더 이상 물려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민족사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이래 우리의 민족적 과제는 근대적 민족국가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때문에 국가없는 민족이 되었고, 8.15 해방이후 미·소의 분할 강점 때문에 분열된 민족이 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우리는 국권의 단절과 민족의 분열을 겪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민족적 과업은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복지국가 건설'인 것이다. 더욱이 작금의 국제조류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냉전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다시 자국 실리 중심의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 4국 중 일본과 중국은 이미 뛰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도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민족만 마냥 주저 앉아, 동족간 자해행위를 반복·심화시키면서 아무 준비없이 21세기를 맞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통일이 선'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그 방법과 내용이 민족에 대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통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근대적 민족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하나의 선결조건으로 추구되는 것이다.

#### 4. 우리의 과제

통일은 이제 더 이상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의 문제로서, 우리 민족 모두가 마음과 뜻과 중지와 정성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민족적 실천과제이다.

이제 분단을 초래했던 냉전체제가 몰락하고 대망의 21세기가 목전에 다가옴에 따라, 우리는 자율적인 민족

발전을 위해 통일을 금세기 내에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통일역량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분단은 국제적 냉전이라는 타율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으나 우리 민족 자체의 내부분열 요인에 의해 분단상태가 심화되었다는 바, 이제 우리민족의 자율적 노력에 의해 그 실마리가 풀려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분단이 1945년 국토분단, 1948년 국가분단, 1950년 민족분단으로 심화되어 왔다면, 이를 푸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그 역순으로 추구될 수도 있는 바, 우선적으로 남북한 상호간의 심정상 증오와 적대정책을 회개하고 민족화합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문제는 현실문제이면서 현실을 뛰어 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일과업은 튼튼한 국가안보를 토대로 해야 하는 것인 동시에 현상(Status Quo)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혁명적 방책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실상과 그 변화 추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은 평화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은 우리와 함께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한겨레인 동시에, 현재의 북한 정권은 우리 남한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넷째,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인 바, 주변 4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협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주변 4국은 국내 문제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안정차원에서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을 원하고는 있으나,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한반도상 역학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 통일을 위한 교육의 책임

## —통일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 태 완



김 태 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 계명대학교 교수
- 「교육자치제 연구」,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 연구」 외 다수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교육 부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과 교육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러므로 통일독일의 경험들을 살펴 보면서 우리 교육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학교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통일되기 전 구서독에서는 통일에 대해 얼마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가 가지는 장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경제 분야는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앞서 가겠지만, 사회복지 문제나 교육문제는 자본주의 국가보다 사회주의 국가가 앞서 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교육분야에서는 황금 만능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지 않은 좋은 점들을 구동독으로부터 받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함께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헛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구동독의 학교교육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구동독의 청소년들이 구서독의 청소년들보다 부정직하다는 데에 있었다. 왜 구동독의 청소년들이 구서독의 청소년들보다 더 부정직한가 하는 문제를 놓고, 그 책임을 비난 학교교육의 잘못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의 교육이나 경제보다 뒤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통일독일은 구동독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나 미련을 버리고 구서독식으로 개혁하고 있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주정부의 책임하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과 관련한 모든 개혁은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통일전 15개 주로부터 통일후 5개 주로 재편된 구동독의 주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교육제도나 체제는 11개의 구서독 주들의 교육제도나 체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한 인간을 키워 내는 것이 학교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 이전 구서독은 교육부문에서 어떻게 통일에 대비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 2. 통일 전 서독은 교육부문에서 어떻게 통일에 대비했는가?

구서독은 교육부문에서 어떻게 통일에 대비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본(Bonn) 연방정부의 교육과학성(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막스 프랑크 연구소(Max-Planck-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 고등학교, 국민학교 등을 방문하였다. 국민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용어사용의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만 열면 남북통일이니, 통일교육이니 하지만, 구서독의 학교에서는 통일되기 전까지 통일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독일문제니, 내독문제니 하는 용어를 사용해 온 것이다.

'독일문제' 또는 '내독문제' 등의 용어 사용은 정부 부처의 명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즉, 구서독의 통일문제를 취급한 정부 부처는 우리와 같은 통일원(統一院)이 아니라 내독성(內獨省)으로 명명되었다. 이와 같이 구서독의 지도층은 통일되기 전까지 주변의 국가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독일의 통일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통일 노력을 우리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다루어 온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15개항으로 된 1978년의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에서도 '통일의 실현'보다는 '독일문제의 해결'로 소개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통일이니 통일교육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구동독과 관련된 내독문제로서 여러 교과목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서독의 학교에서 통일대비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 볼 것이 아니라, 구동독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 왔느냐고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서독에서 우리의 민주시민교육 등 통일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교육은 정치 교육센터가 일부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와 주정치교육센터는 우리의 도덕, 국민윤리,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연방 교육과학성의 Eberhard Jobst (Policy, Planning, Law Div.) 박사는 교육정책과 계획 및 법률 담당 책임자이다. 그는 통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으며 자료도 가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지침"은 11개 주문교장관이 합의한 교육지침이기 때문에 연방 교육과학성은

행정적인 뒷바라지만 하였다고 주장했다. 연방의 교육과학성이 교육지침을 만들고 보급하는데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주문교장관들은 필요시에 모여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교육행정기관이 이러한 지침 마련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사실이다. 통일 후 주문교장관회의(KMK)에서는 구동독의 고교 졸업장을 인정하고 각종 자격증을 인정(통일규정 제37조: 자격증 인정)하기로 하는 등, 각 주(州)간에 공동으로 통용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

그렇다고 1986년의 "문화적 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7년의 "동서독 정부간의 학문과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들은 전적으로 내독성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내독성은 통일 이후 즉시 해체되었으며, 내독성에서 취급한 서류나 자료는 별도로 처리하여 대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통일원이 통일과 관련된 교육문제를 다룰 때는 교육부의 통일관련 담당자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내독성에서는 경제,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전담 공무원이 내독성에 소속되어 통일 대비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실이다.

내독성의 각 부문별 담당 공무원들은 통일 후 대부분 구동독지역의 개편된 주정부로 옮겨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피점령지역에 진주한 점령군같은 입장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구동독지역의 주교육성을 방문한 이후에야 알 수 있었다.

내독성을 도와 독일의 통일문제를 연구한 '전독연구소'도 통일 이후 내독성과 같이 해체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내독성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의 정부기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과 직접 관련된 것은 교육문제라 하더라도 내독성에서 담당하였으며, 구동독에 대한 교육은 주교육성에서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분야 전문 연구소인 막스 프랑크 연구소(Max-Planck-Institut für Bildungsforschung)는 전독연구소와는 달리 특별히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한 일이 없었다.

통일되기 1년여 전부터 동서독은 '동서독 교육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서로 협의하여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구서독 교과서 그대로이며, 형식적으로는 상호 협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서독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구서독 교과서 제작자가 8,000만 마르크 상당의 교과서를 40% 수준인 3,200만 마르크에 제공하였다. 교과서의 교체는 구동독의 학생들 중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고등학교 학생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었다. 이외에도 구서독에서는 구동독 주의 교장이나 교육책임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교육의 재정지원에 17억 마르크를 지원하는 등 모두 약 1,000억 마르크를 지출하였다.

이상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 전에는 모든 통일관계 사업을 내독성이 중심이 되어 하였으며, 교육과학성 등 일반 정부 부처에서는 특별하게 통일을 대비한 활동을 하였다기보다는 구동독과 관련된 문제를 내독문제로 포함하여 일상적인 업무로서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독일문제에 대한 교육'으로 정리되어 각 교과목에서 자연스럽게 소화하였다. 우리의 학교 교과목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동독을 따로 떼어서 별개로 취급하지 않은 지혜가 돋보인다. 다음으로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교육제도나 체제의 개편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 3.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교육제도나 체제의 개편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통일전 구성된 '동서독 교육 공동위원회'에서는 학교, 대학교 및 직업교육 등 세 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하였다. 여기서 과도기적 법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과도기법은 각 주들이 독자적인 법을 제정한 이후 소멸되었다. 통일 후 구동독의 새로 재편된 주들이 독자적인 교육법을 제정할 때, 새 체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과 급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립하였으나, 급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

이 우세하여 급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유는 동서독의 통합을 교육면에서 지원함에 있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는 통합과정에서 인구이동 등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구동독의 인구는 구서독 인구의 1/4정도밖에 되지 않고 구동독은 통일전까지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산업을 유지해 왔지만, 구서독지역에서는 이 인구이동을 감당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1/20이나 되며 북한의 경제나 산업의 낙후성에 따라, 향후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주택, 실업문제 등에 있어서 독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구동독지역은 젊은 사람의 이동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로 인해 2010년까지는 100만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이동과 교육인구의 감소에 따라 작센(Sachsen)주에서는 1993년 초까지 18,000여명의 교사가 해고되었으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는 교사를 해고하지 않는 대신에 80% 고용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과 보수를 80%수준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의 노동조합 중앙본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구동독지역에서는 교사의 신분을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하느냐 또는 계약공무원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논쟁이 있으나 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현재 전동독의 교사들은 공무원 임용의 절차를 다시 밟고 있으며, 거의가 계약 고용형태의 반공무원 신분을 지니게 되었다.

구동독의 붕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구동독 주민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함으로써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예를 들어, 동베를린시의 의회는 통일되기 1년 전에 벌써 동베를린시의 교육법을 버리고 서베를린시의 교육법을 받아 들이기로 결의하였다. 구동독의 권력집단은 이와 같이 통일 이전부터 국가나 주정부의 하부체제가 와해되면서 상부체제만 가지고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구서독과 통합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후 구동독지역은 15개

에서 5개의 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며, 각 주정부에서는 구서독의 내독성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각종 개혁사업 및 행정업무를 맡아 보고 있다.

새 지도부는 구동독의 지식인이나 교회 지도자 중에서 공산당이나 슈타시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행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는 정치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교육학 및 역사학 등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분야의 교수들이 대학을 떠났으며, 대부분의 대학에는 서독의 교수들이 출강하고 있다.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들도 많이 해고되었는 바, 이는 통제된 사회에서 서방세계의 학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인문·사회과학 분야보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았던 자연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슈타시에 서방세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자로 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과목을 맡았기 때문에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슈타시에 협조한 교사들만 해고되었다.

구동독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던 베를린 중앙정부와 15개 주대표협의회, 300여개의 교육구는 통일 이후 폐지되었으며, 5개의 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기관들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구동독지역에서는 과거의 국정교과서제도와 중앙당의 지도 등 극도로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운영체제로부터 학생과 교사 개인에 대한 존중을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과 학교제도, 교수법, 학교의 사회적인 분위기, 교사의 교육권, 학교 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깊은 관여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동독지역에서의 교육체제 변화의 방향은 통합유럽을 향한 개방체제를 지향하며, 유네스코의 지도를 따라 인류애적, 문화적, 국제적인 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국제 이해와 협력, 인권 존중,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평생교육 등 교육의 모든 면에서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 정직한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각 주는 “연방주의 원칙” 즉, 연방 내에서 각 주간에 상호 통용이 가능해야 함과 “문화면에서의 주정부의 주권행사 원칙”내에서 학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구동독의 동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기간을 구동독의 12년제로부터 구서독과 같이 13년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동독의 4개 주는 12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동베를린시는 서베를린시와 통합하여 베를린시가 되면서 서베를린의 학제를 그대로 쓰고 있다.\* 또한 다른 구동독의 4개주는 초·중등학교 10년(대학 진학자에 한해서 예비학교 2년이 추가되어 12년제가 됨)을 국민학교 4년, 중·고등학교 6년으로 나눈 반면에 브란덴부르크주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4년으로 나누었다. 한편, 현재 구서독지역에서는 통합유럽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 13년제로부터 다른 유럽국가와 같이 12년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 중이다.

구서독의 주문교성과 개별 학교들은 구동독의 이러한 교육제도 및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주문교성간 또는 개별학교간에 자매결연과 같은 형태의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구동독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종교 및 사회단체가 민간차원에서 구동독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구동독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터키계나 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테러 등의 적대 행위는 한편으로는 실업에 따른 불만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동독의 청소년들이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산 경험도 없을 뿐더러 국제 이해교육이 결여되어 있고 그동안 해외 여행의 기회가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동남 아시아계 노동자들의 취업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나라가 통일될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구동독지역의 학교에 종교 또는 윤리과목을 교육과정에 삽입하는 문제에 대해 교직원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삽입하기로 결정되었다.①

# 통일교육의 현주소

신상조



신상조

- 경남대학교 법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교육부 장학관수실 교육연구관

## 1. 국내외 상황의 변화와 통일여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의 상황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통일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예상치 못한 요인이 돌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변혁에 따른 미·소 중심의 냉전시대가 가고 국가간의 새로운 경제적 협력과 경쟁관계가 강화된 신질서 속에서 북한은 고립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특히 한·러, 한·중 수교는 통일여건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 실리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가속화로 북한은 더욱 고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반면에 남한은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 중국과의 교역 및 문화교류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통일에 촉진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구조가 사라지면서 남북통일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우리와 러시아, 중국과의 수교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남북 교류 협력의 가능성도 증가시켰다.

남북간에도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발효에 의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신뢰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로 전환하여 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탈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대화가 중단되고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경험 등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통일여건은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곧 교육환경을 변화하게 하고 이에 따라 통일에 대비한 교육의 방향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 2. 분단국의 통일교육과 교육의 기능

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국가 중에서 이미 통일을 이룩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베트남, 예멘, 독일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히틀러에 의해 독일 제3제국의 1개 주로 합병되어 2차 대전에 제3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끌려들어 갔다가 패전국이 되어 미·영·불·소에 의해 독일과 함께 분단되었다. 그러나 10년만에 중립화 통일을 이룩하

였다. 오스트리아는 4강에 의해 분할점령되었으나 임시정부를 축으로 단일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민족 내부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피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소련은 이 나라 국민의 투철한 자유민주정신으로 공산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서방진영의 동구 팽창을 저지하는 완충지대로 묶어두기로 했기 때문에 통일을 빨리 달성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는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일본이 패망하자 식민지 지배권을 주장하는 프랑스와 호차밍의 베트남민주공화국과의 8년 전쟁 후 제네바협정에 의해 북위 17도선으로 양분된 나라이다.

그 뒤, 미·월맹전쟁으로 비화하여 8년 5개월 만에 파리평화협정에 의해 미군이 철수하자 월맹은 베트남과 더불어 월남을 전면 공격하여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을 가져왔다. 월맹이 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데는 공산주의 혁명전략전술의 효과적 구사, 베트남인들의 외세 배척 감정, 공산주의의 계급투쟁이론을 반정부·반미운동으로 연계, 월남정부의 부패와 무능, 미국 개입의 정당성 상실, 파리평화협정에 대한 공산측의 속임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예멘은 터키의 지배에서 독립한 북예멘과 영국의 지배에서 해방된 남예멘으로 나누어져 있던 나라이다. 남예멘보다 반세기 앞서 독립한 북예멘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발전하여 왔고, 남예멘은 독립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였다.

남북예멘의 통합은 사회주의 남예멘이 시장경제체제인 북예멘에 흡수통합되면서도 권력을 3:2로 적당히 배분한 비례대표통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4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되었다가 다시 동서독으로 분단된 나라이다. 독일의 통일방식은 동독의 서독으로의 편입형태이지만 동독주민의 자발적인 자유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동독인들의 서독편입 연유는 동독 공산당 체제의 탄압과 빈곤 그리고 서독의 자유민주 발전과 경제성장에 바탕했다.

네 나라의 통일유형에서 베트남을 제외한 세 나라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일을 이룩

하거나 분단지역 주민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통일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단국 통일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집단의 단합된 힘, 지도자의 지도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힘으로 발휘될 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통일을 향해 교육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 개개인의 통일과 관련한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이 기능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교육은 북한 또는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방법과 절차 및 규범을 이해시키고, 여러 사람들과 합의를 창출하는 방식을 알게 함으로써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전체의 문제해결력의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통일 교육은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비판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둘째, 통일과 관련하여 집단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이 기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당위성이나 소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이 두 체제의 통합과정이라고 볼 때 각 집단이 갖고 있는 역량의 비중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정치적 안정, 경제력의 향상, 총체적 체제 존속을 위한 안보의식, 통일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융화와 공감대 형성 등이 통일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문화를 창조하는 데 교육이 기능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화란 통일지향적 가치정향으로서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습득해야 될 지식, 신념, 도덕, 법, 관습 등 무형의 모든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문화는 민족사적 문화전통에 근거하여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적 동질성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이며, 통일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 3.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방침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반공교육으로 일관해 왔으며, 이러한 반공교육의 기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일의지와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민정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반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통일·안보교육으로 대체하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안보교육은 최근 국내외 통일환경변화와 남북화해시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장차 이루게 될 통일국가의 성원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통일교육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러한 방침이 학교현장에서 구체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첫째,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은 목표의 상세화, 체계화가 미흡하며,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진행과정이 고려되지 않아 통일교육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과내용이 90년대 이후의 상황을 수용하지 못해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며, 학교 급별, 학년별 계열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또 통일시대를 향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이다.

셋째,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은 도덕·윤리교과에서만 지도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및 통일관련 내용이 사회과, 국사과, 국어와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며, 학생들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배우거나 관점이 다른 내용을 배움으로써 상호 모순을 느낄 수도 있다.

넷째, 입시중심의 교육풍토 속에서 단순한 암기과목으로 취급되는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관련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 참여방법과 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탐구와 검증과 비판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집단과정을 통한 토론과 문제해결능력의 습득보다는 강의식, 주입식 지도에 치중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 담당교사의 재교육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은 다양한 주장이나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재조직하고 재해석하여 무리없이 전달하는 데 애로를 느낀 나머지 통일교육의 '완전한 프로그램'의 보급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느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이든 그들에게 전문성을 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특히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지식과 거기에 요구되는 관점 및 미래 전망은 다른 교과에 비해 급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한 것이다.

#### 4. 개선방향

제6차 교육과정에서 21세기 우리 나라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는 고도산업화되어 문화 및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는 개방화와 아울러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어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6차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도덕과에서 독립된 생활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통일·안보생활'을 앞으로는 '국가·민족생활'에 통합시켜 다루게 된다.

이는 통일교육의 양적인 축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내용과 기존의 국가윤리 차원의 내용을 통합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 교육은 국가윤리, 민족문제 등과 별도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통일교육은 도덕교육 전반과 어떤 이질감이나 상처점이 없이 일관성 있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되었다. 민족분단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환경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됨에 따라 통일교육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바른생활·도덕·윤리과 등을 통한 통일교육은 계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낮은 학년에서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상상력을 기르고,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기르게 되어 있다. 특히 통일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중·고등학교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통일문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는 각종 통일 논의와 관련 정보 및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확고한 통일외지를 다지며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덕·윤리과를 통한 통일교육이 중심점이 될 것이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을 중점교육 분야로 설정하여 전교과에 반영하여 실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으로 보완·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통일교육 목표의 체계적 정립, 교과내용의 수정·보완, 통일교육의 전교과에서의 반영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밖에 개선방향을 몇 가지 더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통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만일 이질화의 양상이 계속되어 남북 주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민족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상실된다면 우리에게 통일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실상의 객관적 이해와 민족전통문화의 인식을 통해 민족자존과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② 통일교육은 합리적인 통일대비능력과 통일이후의 삶에도 대비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③ 통일교육과 연계한 민주시민자질함양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④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교육이 통일정책이나 북한 관련 내용만을

교육하는 것이 전부인양 생각해서는 안된다.

통일에 보다 비중을 두되 현실적인 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할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교육이다.

둘째, 통일교육은 변화하는 현실 상황에 적절하고 시의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본질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교육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므로 관련 사실들의 실제적 전개와 주변 상황의 변화 및 이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부합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의 통일관련 내용을 조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현 도덕·윤리과 내용 중 제6차 교육과정에 설정된 국가·민족생활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매년 보급되는 교과서의 교과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보조자료를 제작·보급하면 될 것이다(교육부는 '통일교육지도자료'를 발간·보급한 바 있음).

셋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원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객관적 상황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통일실현에 관한 관점과 사회적 요구가 새롭게 변화되었는데도 교원의 관련지식과 관점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른 교원의 내실있는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수과정은 담당교과별, 학교급별 특성에 부합하면서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칠 수 없는 교육이므로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실증, 사례중심의 토의식, 탐구식 방법을 통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분석·종합·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문, 잡지, 영상자료, 관련 서적 등 생생한 시사자료를 수집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남북교육통합 정책과제의 개발 연구 등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에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교육 및 교육통합 전문연구기관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㉞

# 개인을 국가가 통제하는 북한교육

전 철 우



- 1967년 남포 출생
- 남포 산업인민학교 졸업
- 남포 산업고등학교 졸업
- 82~86 평양 김책국립종합 대학 기계제작학부 수료
- 87 동부 독일 두레스뎀 공업종합 대학 정보공학부 자동조정과 재학중 귀순
- 현재 한양대학교 전자과 3학년 재학

북한이나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권에서만 살던 제가 여기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와서 벌써 4년 가까이 살면서 우리 남북한은 떨어질래야 떨어져 살 수 없는 같은 핏줄을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이 깊어지는 동시에, 40여년동안 남과 북을 지배해 온 서로 상반되는 체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극복하기 어려운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이런 민족적 동질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통일된 후에 생길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이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북한에서도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교원은 혁명가를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교육에서 통일된 후에 우리 교육계에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교육면을 보면 역사교육에서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주로 김일성 혁명 역사를 배워 왔고, 우리 조선역사는 고등학교 4학년 때 한 학기 정도 배웠는데 역사과목은 학기말 시험도 안 치고 대학입시에도 없고 수업 참가 태도에 따라 성적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졸곤 하였다.

또 교과내용도 주로 투쟁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농민폭동이나 군인폭동 같은 것만 다루고 왕에 대해서는 착취 계급이라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북 젊은이들은 우리 역대 왕들의 이름을 거의 모르고 있다. 하긴 저도 세종대왕이라는 이름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 이퇴계나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다. 또 우리는 삼국통일에 대해서도 신라와 김유신은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외국 군대인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매국노라고 배웠으며, 이순신 장군은 외적을 물리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착취계급에 충성한 것은 나쁘다고 배웠다.

또 가장 역사적인 인물로 갑오농민 전쟁을 일으킨 전봉준씨를 꼽고 있다. 또 3·1운동도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가 '조선 국민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으켰다고 배워주고 있으며 또 8·15해방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조선인민 혁명군을 이끌고 나와 일제를 몰아내 해방이 됐다고 하고 있으며, 이전의 독립군에 대해서는 30년대 말에 붕괴되어 모두 김일성의 항일빨찌산에 흡수됐다고 가르쳤다.

또 여기 한국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보니 광복군이 있었다는데 이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유일한 항일조직으로서 김일성의 항

일 빨찌산을 꼽았다. 6·25전쟁도 미국과 남조선 정부가 북조선을 먹으려고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쳐 이북의 모든 젊은이들이 남쪽에서 침략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그 분이 북한을 방문한 뒤 김일성한테 너무 감동돼 충성을 맹세하고 한국에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의해 암살되었다고 교육하고 있었다. 하여간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남과 북은 서로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서로 다른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제가 여기 한양대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도 교양 국어에서 우리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이었는데, 그 과목에서 가르쳐 주는 옛날시와 고어는 정말 이북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한국 젊은이들은 역사교육을 많이 받아 역사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 이북 젊은이들의 역사 지식을 보면 김일성이 태어나기 전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TV에 나오는 역사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새로운 역사 지식들을 많이 얻는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된 후에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남북한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역사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통일된 후에 북한 젊은이들이 겪게 될 또하나의 어려움은 한자라고 생각한다. 저희들도 여기 처음에 와서는 한자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이북에서는 한자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된 후에 남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를 좀 배워야 한다고 고등중학교 4학년 때 일년동안 한자를 배우고 있으나 학기말 시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자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북에서는 한글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내 나이 또래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자로 자기 이름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이북에서는 본관같은 족보를 사용 못하게 하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헤어져 살던 친척들이 과연 쉽게 서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어면에서도 한국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영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반면, 이북에서는 한자와 외래어 안 쓰기 운동을 벌여 이전부터 쓰던

한자와 외래어도 많이 새로운 우리말로 바꾸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아이스크림, 야맹증으로 배웠으나 요즘 이북 어린이들은 얼음보숭이와 밤눈어둠증으로 배우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북이 외래어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은 아니다. 이북은 구소련의 러시아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헝가리를 이북에서는 러시아어식 발음인 웅그리아, 폴란드를 뿔쓰까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많은 기계 이름들—여기서 트랙터를 러시아어인 트락토르로 탱크를 탱크로 부르고 있다.

또 한국에도 있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북에서는 외국인들만 들어가 숙박하는 데를 “호텔”이라고 국내인들만 들어가 숙박하는 데를 “려관”이라고 쓰고 있다. 또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한 것은 남북한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발음할 때 악센트를 주는 위치가 서로 달라 여기 한국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다. 아마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의 통일조선에서 살면서 공통된 언어를 쓰셨던 분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빨리 통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우리 분단 후에 태어난 신세대들만 있는 시대에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할 때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와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

만약 통일이 되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에 들어선다면 처음에 이북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시하고 행동방향을 정해주던 강력한 이북 공산정부의 부재로 인해 무엇을 할지 몰라 큰 정신적 혼란을 겪을 것이다.

”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새로운 기술용어 같은 것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용어를 쓰는데 지금이라도 남북한어 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마다 남북한이 서로 통일된 단어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한다.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개인에 대해 국가가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지시대로 생활 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매 개인은 자기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할 수가 없고 국가의 지시에 복종하여 행동하는 데 습관되어 있다.

외국어 교육면에서는 이북에서도 영어와 러시아어를 선택필수로 가르치고 있는데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영어실력은 한국 학생들에 비하면 회화와 듣기(hearing)에서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

자연과학 교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컴퓨터와 같은 최신 과학면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떨어져 있지만 수학·물리·화학같은 기초 과학분야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가르쳐 준다.

또 모든 시험이 주관식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식 시험 문제와 임시를 위한 암기에 적응되어 있는 여기 학생들 보다는 어떤 학술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응용하여 생각하는 깊이가 더 깊은 것 같다. 지리과목을 보면 제가 여기 한국 중학교용 지리교과서들을 보면 이북의 지명들과 광물자원 분포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시 되어 있는 반면 이북에서 지리시간에 남쪽지리에 대해 거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지명이름에 대해서도 서울과 제주도 정도만 아는데 그치고 있다.

일상 생활면에서 보면 한국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도 남조선 사람들은 다 험뵈고 굶주리며 한국 대통령도 미군병사 앞에서 꼼짝 못하며 미군 병사한테서도 지시받아 움직일 정도로 철저한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고 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 한국 사람들의 반일감정은 놀라우리 만큼 엄청나다.

이북 정부에서도 반일감정을 고취시키고 있으나 이북에 보급된 TV와 승용차의 대부분이 일제이고 유일하게 이북에 들어와 외화 상점에서 팔리는 물건이 일본산이며 또 그런 좋은 상품을 이북 사람들은 처음 대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반일감정이라기보다 거의 호기심과 놀라움, 경탄에 가까운 거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반감은 절대적이라고 할만큼 철저하다. 아마 미국상품들이 이북에 흘러들어가면 그런 반미감정도 바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전통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

지고 있는데 이북에서는 옛날 전통을 무조건 살리는 것은 복고주의 경향이라고 비판하며 혁명과 건설을 해 나가는데 불필요한 전통을 없애도록 하여 요즘 젊은이들은 절을 할 줄도 모르며 또 자기 부모님들의 묘지는 찾아가지만 할아버님이나 할머니 묘지는 찾아가지 않는다. 또 윗 어른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여기 같지 않아 함께 술을 마실 때도 어른분들에게 한손으로 술을 따라주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북 TV나 영화들에서는 전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이 많아 TV나 영화를 보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당과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영웅시하기 때문에 이북 젊은이들은 여기 젊은이들 같이 그렇게 심하게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 하지 않으며 어린이들도 즐겨하는 놀음이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가지고 서로 쏘고, 찌르고, 죽이는 전쟁놀이를 가장 즐겨 하고 있다.

또 어떤 건물에 불이 나면 저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들어 김일성의 초상화를 꺼내와 노동당으로부터 충성심을 인정 받으려고 아우성이다. 참, 저도 이북에 있을 때 불붙은 집 속에 뛰어들어가 김일성 초상화를 꺼내오다 화상을 입었던 장면을 상상하며 어느 집에 불이 붙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다.

이북에서는 사유재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국가 재산을 훔쳤거나 횡령하였을 경우에는 심하게 처벌하지만, 남의 집을 터는 일에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잡혀도 심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남의 집 터발을 서리하다 잡혀도 거의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 이북 사람들의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개념이 극히 희박하여 통일이 되어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 남대문 시장같은 물건이 많은 개인이 장사하는 곳에 가보면 돈도 지불하지 않고 집어가는 현상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개인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나 간섭이 없는 대신 매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책임지고 자기 생활을 자기가 콘트를 하며 꾸려나가야 하는 대신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개인에 대해 국가가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지시대로 생활 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매 개인은 자기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할 수가 없고 국가의 지시에 복종하여 행동하는 데 습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일이 되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에 들어선다면 처음에 이북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시하고 행동방향을 정해주던 강력한 이북 공산정부의 부재로 인해 무엇을 할지 몰라 큰 정신적 혼란을 겪을 것이다.

“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이 되면 백두산이나 금강산에 가볼 수 있다는 등 통일 후의 좋은 일만 생각하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북한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 세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등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알려주어 통일이 되어도 실망하지 않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통일대비 교육을 하였으면 한다.

”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진 소련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하고 저런 혼란에 빠져 있는 이유가 오랜 세월 자기의 삶의 목표와 행동을 지정해 주던 강력한 지도부가 갑자기 없어지고 개인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과 자유를 주어 버리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라 헤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실례를 보더라도 북한에서는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을 교실에 붙잡아 놓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또 시험 성적이 낮으면 사상투쟁을 열어 강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성적을 유지해 왔었는데 여기 한국 대학에서 첫 학기말 시험 때 누가 공부 하라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 빈둥거리다가 별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었는데 여기 학생들은 그 누구의 통제도 없었는데도 자기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 성적이 좋은 것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북한의 경제수준 차이가 동·서독의 경제수준차이보다 훨씬 크고 또 역사교육에서도 동·서독은 분단되기 이전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내용의 역사교육을 시킨 반면 남북한은 분단이전의 역사교육 내용도 너무 다르고 동·서독과는 달리 상대방의 TV시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된 후 동·서독보다 더 혼란이 많이 따를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어느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한 우리의 동포애와 끈끈한 혈육의 정을 살려 통일된 후 이북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이 되면 백두산이나 금강산에 가볼 수 있다는 등 통일 후의 좋은 일만 생각하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북한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 세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등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알려주어 통일이 되어도 실망하지 않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통일대비 교육을 하였으면 한다. 또 통일이 되면 갑자기 들이닥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고 우리 경제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부터 여유있는 대로 통일자금을 많이 마련해 놓는 것이 진실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현실적인 통일정책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㉞

# 남북 교육공동체를 수립하자

최영표



최영표

- 광주 교육대학교 졸업
- 대만 국립정치대학 교육연구소 수료(철학박사)
- 본원 통일교육연구부장
-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 연구」, 「재중국 한인 교육의 실상과 지원 방안 연구」 등 다수

## 1. 교육공동체 수립의 필요성

남북 분단 40여년 동안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간에 낯선 존재, 불편한 존재로 변해버렸다. 너무나도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왔으며, 교류의 경험도 갖지 못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도 또한 추구하는 인간관, 사회관의 다름에 영향받아 그 체제의 모습도 매우 다르고 교육내용 또한 이질화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으로 서로 다른 체제의 바탕 위에서 서로 다른 인간으로 길러 지다 보니 남북한의 화합은 커녕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애 설혹 통일이 조만간에 이루어진다 해도 화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남북한 당국이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통일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을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 하물며 물리적인 통합이나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해 예기치 못한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훨씬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최근에는 남북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서로간에 쌓여 있던 적대감을 불식하고 상호 이해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져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지 못하고서는 통일이 이루어진다해도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 신뢰와 수용의 바탕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간에 공존·공영한다거나 민족복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남북한에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의 바탕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에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개변될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개변된 인간만이 또한 모순된 사회체제를 개변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처럼 남북한의 교육체제가 이질화되어 있고서는 통일에 대비한 화합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는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민족 동질성 회복의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서둘러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에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제도의 일종이라는 특성을 띠고 있어서 특정 사회의 정치와 완전히 유리된 교육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교육이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달성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만 남북한 당국은 진정한 민족의 화합을 위해 정치·경제 문제에 앞서 교육공동체 형성을 간과될 수 없는 과제로 여겨야 한다.

독일이 통일전 20여년 전부터 상호 교류하였으면서도 동서독간 교육공동체 형성에는 힘을 기울이지 못해 통일 후 매우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 2. 교육공동체 수립에의 접근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접근하여 수립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교육의 이질화 현상을 이해한 연후에 이론과 현실의 바탕 위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한의 교육은 실로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다. 교육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교육 수행체제와 내용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교육의 개념에 있어**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조건에서 모든 계급에게 복무하는 초계급적인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을 반동적 교육으로 매도하고 있다.

계급사관에 입각한 해석으로서 근로인민 대중만을 위한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를 양성하는 교육만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시각을 처음부터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도** 북한은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수단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 교육의 발전을 저

해하고 있다. 남한은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밀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벗어나 철저한 정치 우선론에 입각하고 있다.

**교육의 수행체제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교육구조에 있어서는 북한이 목적 지향적인 특성이 훨씬 강하다. 빠르면 생후 20일부터 탁아소 생활을 하게 하는 등 학교생활, 성인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교육체제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가 이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당정일치의 성격이 강하여 교육에 있어 당의 영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이 정치에 의해 이끌려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치사상교육을 전문교육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집단주의를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해 몸바쳐 투쟁하도록 생활화하고 있다. 또한 지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부르조아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로 이다. 남한은 학문의 구조에 충실하게 교과를 구성하고 교육내용을 조직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은 학문의 전문성보다는 국가 사회의 정치적 목적에 보다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치원 단계부터 고등중학교 단계까지 모두 김일성 교과와 김정일 교과를 정규 교육과정 안에 설치하여 김일성가를 우상화하고 대를 이어 정권을 세습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내용을 소재로 삼아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학문과 인간생활의 보편성을 왜곡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든지, 남한과 미국, 일본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 그리고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함양하는 내용을 모든 교과와 소재로 취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교육 전반에 걸쳐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교육동질성을 회복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민족동질성

회복 이론, 국제 통합이론 그리고 남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 등을 근거로 하여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 변용론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남북한간에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부문부터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그 파급효과가 점차 커지게 됨으로써 동질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 두 체제 사이의 교육·문화 공동체 형성은 정치적 통합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는 문화의 지체 현상으로 말미암아 체제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교육·문화체제 간의 동질성이 증대되는 과정은 장기적·단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질성 증대 과정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교류·협력 등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법·제도적 정비 등 점차 높은 단계로 이행하여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남북한 교육문제의 공동 인식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통합의 대안을 제시하고 공동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동질성을 증대하여 나가는 방법,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상호 이익에 기반하여 절충가능성을 모색하고 점차 동질화를 추구하여 나가는 방법, 그리고 구조 측면에서는 하위 단위 요소간의 공동체 형성 노력부터 시작하여 점차 상위 구조의 공동체 형성 단계로 이행하여 나가는 접근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남북한의 통일 방안은 그 내용과 방법에 접근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교육공동체 형성에 있어 어느 방안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을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접촉과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하여 국가통일을 실현한다는 통합 추진 전략으로서,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공존·공영, 국민적 합의, 그리고 민족복리 차원에서 자유, 평등, 인간존엄의 실현이라는 기조에 바탕하고 있다.

첫째 단계인 남북 평화공존 단계에서는 평화공존 체제의 정착과 연합 체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의 통일 정책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상호 인정하면서 남북간의 계

반 문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하고, 민족의 공존 공영을 도모하여 평화공존 체제를 정착, 발전시키며 발전적으로는 연합 체제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사회·문화·경제적 민족공동체 실현과 국가 통일의 구체적 준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통일 정책은 '민족의 공존 공영을 도모하고 민족 사회의 동질화를 추구하며, 민족 공동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문화·경제적 민족 공동체를 실현하고, 이와 더불어 남북연합이 과도적 통일 체제인 점을 감안하여 통일민주공화국으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북연합은 그 자체가 통일 국가의 최종 형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호 협력과 공존 공영의 관계를 증진시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과도 체제 안에서 남북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서 연합 연계함으로써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 간의 현안 문제와 민족의 장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일민주공화국 단계에서는 '한민족공동체를 실현하는 국가 통일을 달성하고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 국가로서의 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표이다.

통일민주공화국은 민족 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 국가로서 민족성원의 참여와 기회 균등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주의, 주장의 표현이 보장되는 민주공화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 성원 모두의 복지가 증진되고, 민족의 안전이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단일 민족 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기능적 접근과 단계적 교류보다는 정치적 일괄 타결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다.

이는 동 방안이 선결조건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과 연방정부 실현 후에야 가능한 연방정부의 10내 시정방침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통합의 실제 추진을 위



한 교류·협력의 단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이 내세우고 있는 선결조건은 대부분 정치 문제들이다. 즉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 모든 개인과 단체의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남한 정부의 聯共政權으로서의 대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간에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통일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은 국가 통일 이후야 가능한 논의들에 속하는 것으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이 북한의 통일방안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통합을 통해 남북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통일방안은 비합리적인 면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문화 공동체는 정치적 통합처럼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특성을 띠고 있지 않아 단계적,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한데도 기능적인 접근과 단계적인 교류보다는 정치적 일괄타결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남북 교육공동체 수립의 모형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한 교육제도의 합리적인 통합은 남북한 사회가 상호 적대감을 불식하여 나가는 한편 체제도 상호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흡수 통합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연방제 통합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자는 남북한 양 당국이 배제하고 있으며, 후자는 진정한 통일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남북한의 교육제도 통합 모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접근방식은 앞서 논의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남북한의 교육제도 통합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가도록 한다. 인간의 가치관이나 의식은 비교적 영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일시적인 제도의 개편이나 변환을 통해서만 바꾸어지기 어려운 속성을 띠고 있다. 통일 이전 20여년 전

부터 상호 교류와 이해를 쌓아왔던 독일도 막상 통일을 이룩한 후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급진적으로 정치적 타결을 통한 통일 방식은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큰 갈등과 후유증을 주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교육의 통합 모형은 점진적, 단계적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를 이룩하여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교육 통합의 시각에서 볼 때 남한의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안이 북한의 정체적 타결을 통한 급진적 통일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라고 인정되어 남북한의 교육공동체 모형은 남한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기초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남북한 교육체제의 현격한 이질성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라 비정치적, 교육본질적인 교육부문을 통합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따른 통합방법도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한 교육체제는 남한과 북한이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에 영향받아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1차적으로는 비정치적이며 교육본질적인 부문을 대상으로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뢰감도 쌓아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과학·기술교육과 영재교육 부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육의 구조와 내용의 많은 면에서 이념, 체제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기능주의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치적 접근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한 통합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남북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하고 유학생 교류도 시행하고 나아가서는 표준교육제도도 연구 시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의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동질성 회복 단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류·협력 활성화 및 제도화 단계, 협력체제 확립을 통한 동질성 증대 단계, 그리고 재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단계의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동질성 회복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되어야만이 성취되는 성격 을 띠고 있으므로 동질성 회복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는 교육의 통합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교류·협력을 거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통일 단계로 접속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 남북한 교육공동체 모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제시한 것을 세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지향하는 목표와 모습 그리고 통합이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남북공존 단계에서는 상호간에 깊이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남북한 교육제도를 상호 이해하는 한편으로 비정치적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부문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평화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 때의 남북교육제도의 모습은 공존형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현행 이념과 체제에 따른 교육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부분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통합의 과제로는 상호간에 남북한 교육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존립의 배경을 깊이있게 파악하여 통합의 우선순위와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문화·교류 협력 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정치적 부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전문가 들은 교류하는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장차 교류·협력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상호간에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기반을 형성하여 나가도록 한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이므로 교육부문에서는 다방면적으로 교류·협력을 중점 추진하며 잠정적인 남북한 표준교육제도를 연구·합의하는 노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북한 교육이 상징적으로나마 연합되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비정치적 부문을 위주로 한 유학생을 교류하

는 정책이 수행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 교육제도의 다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인 학력 인정 조치, 편입학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때의 남북 교육제도의 모습은 남북 교육 부분 연합형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현행 교육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공존단계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유학생도 교류하고 장차 교육제도 통합방안도 논의하여 합의하는 노력을 띠게 된다. 이 때 수행되어야 할 통합의 과제로는 교육·문화 교류 협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남북 교육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 교육공동체 현장을 채택하고 교육전문가를 공동으로 파견하여 통합과제별로 연구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표준교육제도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통일민주공화국 단계는 경제·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이어서 정치 공동체까지 형성하는 단계로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걸림돌이 해결되는 시기이다. 이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수월성을 신장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변화된 사회체제와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통합하여 나가도록 한다.

이 시기의 교육제도 통합의 모습은 남북연합단계부터 연구한 표준교육제도를 검토·보완하여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교육제도형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는 표준교육제도 재정과 시행에 따르는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시행에 필요한 교육 경비를 다각적으로 확보하여 제공하는 사업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거시적 교육구조 개편, 학제 개편에 따르는 경과조치 마련, 취학 전 교육과 성인교육제도 개편에 따르는 지원체제 정비·보완,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제도 개편, 교원 양성 및 연수제도 개편 등 산적된 과제가 쌓여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 모형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㉞

통일단계	교육제도 통합의 목표와 모습	교육통합의 과제
남북공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교육제도의 연구, 상호 이해 증진</li> <li>○ 부분적인 교류·협력 추진</li> </ul> <p>남북교육 공존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의 대상과 과제 선정 및 우선순위, 대책 마련</li> <li>○ 교육·문화 교류 협력 위원회 조직</li> <li>○ 비정치적 부문의 교육 전문가 교류·협력</li> </ul>
남북연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점 추진 -유학생 교류</li> <li>○ 남북한 표준교육제도 연구·합의</li> </ul> <p>남북 교육 부분 연합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교육정상회담 추진</li> <li>○ 남북 교육공동체 현장 채택</li> <li>○ 교육전문가 공동 파견 연구</li> <li>○ 남북 표준교육제도 연구 위원회 설치·운영 -유학생 교류에 대비한 학력인정, 편·입학 조치 마련</li> </ul>
통일민주공화국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존엄성 보장하는 남북한 표준교육제도 제정·시행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li> <li>-교육의 수월성 신장</li> <li>-교육의 자율성 보장</li> <li>-사회체제와의 적합성 확보</li> </ul> <p>표준교육제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표준교육제도재정과 법적 기반 확보</li> <li>○ 부문별 교육개혁 방안 채택 및 실시</li> <li>○ 교육통합 경비 확보 및 적정 배분</li> </ul>

## 교육개발 투고안내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기관지인 교육개발에 게재할 원고를 공모합니다.

내용은 교육개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매 수 : 기존의 <교육개발> 참조
2. 기 한 : 수시 접수
3. 제출처 : (우)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편집특임부  
(T. 572-5021,  
교환 426)
4. 기 타
  - ① 한자는 가급적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원고를 보낼 때는 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③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 부드러움의 힘, 그 파장

유 경 환

아침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조회 시간마다 운동장에 줄을 서서 들었다. 더운 날에는 더위 속에 추운 날에는 추위 속에, 한마디 말씀도 낯알 흘리듯 하지 않으려고 귀담아 들었다.

그러나 요즘 되짚어 보면 안타깝게도 단 한마디 말씀도 기억나는게 없다. 이게 내 탓인가 하고 되새겨본다. 남달리 결석을 자주 한 것도 아니고 공상으로 조회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닌데 말이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만 10년동안 조회라는 교육현장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 댤에는 성실히 입력시켰건만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다면 틀림없이 불충(不充)은 내 탓일 수 밖에 없겠다.

국민학교 저학년 과정은 일제 시대였으므로 일본말로 교장훈화를 들었고, 3학년에 해방이 되어 그 뒤로는 전학을 다니면서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들었다. 중학교 과정에선 6·25를 만나 피난지에서 피난 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철저한 조회 훈시를 들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측정이 안 된다.

내 삶에서 나침반 일뿔을 해준 스승의 한마디는, 격식을 차린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아니고, 높은 교단 위에서 내려다 보며 들려준 한마디도 아니다.

국민학교 때 전학을 다니며 낯선 교육 환경에서 새롭게 「나」를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 언제나 부담스러웠다.

K시의 S국민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만난 담임 선생님 민관식(閔寬植) 선생님은, 개나리꽃이 한창인 운동장 한끝 들충계에 앉아 고민을 하고 있는 내게, 이렇게 다독겨주셨다.

“억지로 할 것 없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는 내게 선생님은 슬며시 다가와서, 내 속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공부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반장되기도 그랬다. 물에 내던져진 나무껍질 배가 떠오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도 아니건만 그 시절엔 그 시간 기다리기가 지루하기만 했다.

“억지로 할 것 없어...”

불과 일곱자로 된 한마디다. 주어와 동사도 생략된 불완전 문장이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시련에 부딪치게 될 때마다 화석으로 살아나 좌우명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귀 밑에 숨소리까지 곁들였던 민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되살아났다.

훨씬 뒷날 머리가 커진 뒤, 그 말씀의 뜻은 순리(順理)에 따르라는 것임을 깨우치게 된다. 무리(無理)보다 강하고 질긴 것이 순리임을 알게 된다.



### 약력

경북 고등학교를 마치고 연세대학교를 나온.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함. 연세대학교에서 언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1989). 「현대문학」에서 박두진에 의해 시인으로 추천됨(1958). 사상계사 기자와 편집부장을 지냄(1959~1968). 조선일보사 논설위원을 지냄(1975~1991).  
지금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함(1991~현재)

억지로 하지 않아도 필요충분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구현되는 것이 세상만사이다. 문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들인 자기실력이 있느냐에 있는 것.

나는 직장생활, 군복무를 다 치룬뒤, 마흔이 가까워져야 물건너로 공부를 하려갔다. 내돈으로 갈 수는 없어 장학금을 받아 나갔는데, 두번째이나 첫번째는 안 되고 두번째에는 되었다.

결국 최종학위를 마치기까지 몇번의 무리를 겪어, 임원신세도 되고 '나 홀로' 신세도 되었다. '억지로 할 것 없어'라는 한마디를 잊고 달겨들다 보면, 몸이 못 배겨내 의욕만 도전일뿐 도중하차를 하게 된다.

내가 만난 스승 가운데엔 고매한 인격자도 있었고, 해박한 지식인도 있었으며, 이름난 사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에밀레종처럼 가슴을 은은히 울린 것은 국민학교 시절 만난 부드러운 목소리의 나직한 한마디다.

해마다 개나리가 활짝 피는 계절이면 바람결 속에 이 한마디가 섞여 다가온다. 그래서 선생님의 정년퇴임기념문집에다 헌시(獻詩)한 줄로 이야기를 실은 적이 있었다.

몇년째 모교의 강단에 선다.

무엇인가를 내가 그들에게 주어야 할 위치에 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려하기 보다, 내가 겪은 것을 전해주려 애쓴다.

체험만큼 순수한 감동은 없다. 나의 학생들에게 친구이고 형이고 선배이고 동시에 의논자인 그런 자세로, 그들에게 체험적 사실을 들려주려 한다.

눈빛을 남달리 반짝이다 손을 번쩍 치켜들면서, 체험의 구체적 내용을 질문하는 학생.

그는 내게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학생이다. 속으로 너는 행운아!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따로 만나자고 제안한다.

'풀잎들은, 그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 윗사람의 덕은 바람과 같아야 하고 평민의 덕은 풀잎과 같다…….'

여기 옳긴 한마디는, 미국 사람(H. D. 소로우)이 해석한 「논어」(제12절 19편)의 한 구절이다.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문제이다. 동양의 석학들이 해석한 그 뉴앙스와 아주 차이가 난다. 이렇듯 부드러운 힘을 교육에 원용한다는 것은 정말 지혜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 한국의 진로와 민주시민 교육

김 왕 근

(본원 교육과정연구부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지난 6월 18일에 교육부의 후원 아래 「한국의 진로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일선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과 장학사, 연구사 등 450여명을 모시고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4년간에 걸쳐 연구개발된 한국교육개발원 시민교육모형 및 자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현장적용 가능한 교육 원리를 탐색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세미나의 진행은 다음의 세미나 일정표<표1>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주제별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방식을 피하는 대신 세미나를 통해 드러난 전체적인 맥락에 입각해서 문제의식, 시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표1> 세미나 일정표

09:09~09:30	등록
09:30~09:50	개회식
사 회 : 허경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개회사 : 한종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격려사 : 오병문 (교육부 장관)	
09:50~10:30	기조강연 : 한국의 진로와 민주시민 교육
박동서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민주시민교육이란  
사회가 민주적이나  
비민주적이나를  
문제삼기보다는 삶의  
표준으로서 시민자질이  
무엇이나를 문제삼아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10:30~11:30 주제1,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 개혁의 과제  
사회 : 진동섭 (서울 사대 교수)  
발표 : 이돈희 (서울사대 교수)  
토론 :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덕환 (교육부 장학관)

11:30~12:30 주제2,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책임과 한계  
사회 : 정찬영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발표 : 김난수 (광주대 총장)

토론 : 차경수 (서울 사대 교수)

김성환 (광진중 교장)

12:30~13:50 중 식

13:50~14:50 주제3, 현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 양성

: KEDI모형

사회 : 윤병희 (숙대 교수)

발표 : 광명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토론 : 이택휘 (서울교대 교수)

조영달 (서울사대 교수)

14:50~15:10 휴 식

15:10~16:40 주제4, KEDI 모형의 현장 적용보고

사회 : 박덕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발표 : 조영태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윤실근 (부산 해사고 교사)

이은영 (충남 인주중 교사)

홍민자 (경기 발안국교 교사)

강병효 (충북 문의유치원 교사)

16:40~17:30 토론 및 종합

사회 :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종합 : 김종서 (서울대 명예 교수)

17:30~17:40 폐회식

폐회사 : 한종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1. 문제 인식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시민 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곤 한다. 사회가 비민주적일 경우 시민 교육은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의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회 체제에 비추어 외재적인 한계가 수반된다는 주장이다.

박동서 교수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정치면에서의 지속적인 민주정치 발전과 행정면에서의 공개, 참여, 전문행정의 요구 등 사회 체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현실과 무관하게 어떻게 시민 교육이 가능한지를 반문하며 시민교육 이전에 정치, 사회, 가정의 민주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나(권영빈), 산업화에 따른 가정 교육의 소외와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의 팽배가 시민 교육의 한계로 작용한다는 견해(김난수)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 개혁의 과제를 논하면서 이돈희 교수는 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이 교육 외부에서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나,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에 대한 이념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의 방법적 원리가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교육을 교육 외적으로 작용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인 사회 문제까지도 포섭해 낼 수 있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는 하나 KEDI 모형 또한 같은 맥락을 견지한다. 교육은 단순히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받아들이는 사회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회가 어떤 상태인가를 문제삼기에 앞서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문제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사회가 민주적이나 비민주적이나를 문제삼기보다는 삶의 표준으로서 시민자질이 무엇이나를 문제삼아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KEDI의 입장에 따르자면, 사회가 비민주적일수록 그만큼 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교육이 사회 체제의 하위체제임에는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 체제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이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민주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역할 또한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2. 민주시민 자질

이돈희 교수는 시민 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민주시민의 개념, 즉 민주시민 자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보수세력은 시민교육을 체제도전으로 간주하고 개혁세력은 시민교육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내세우는 시민 자질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보수세력은 애국심,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 등에서 시민 자질을 구하는 반면 개혁세력은 비판적 사고, 해방적 합리성, 문제해결 등에서 시민 자질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교육 외부에서 교육에 대해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있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앞서 제시했듯이 삶의 표준으로서의 시민 자질을 교육 내부에서 논의하는 범주와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바라본 사회의 모습에 비추어 이런 교육저런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 교육의 입장에서 교육을 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교육의 입장에서 시민 자질을 모색하는 경우 그 방법적 원리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민주시민의 자질에 관한 한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토론을 담당했던 김종서 교

수에 의하면 1962년부터 1967년까지 1년에 한 번씩 6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던 민주시민교육 세미나를 통해 '인격존중', '협동과 봉사', '책임완수', '준법정신', '좋은 지도자의 선출' 등 5개 영역으로 시민 자질을 개념화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KEDI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 자질 또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KEDI가 제시하는 '인간 존엄성'은 인격존중에 대응하고 '자유사회에서의 절차'를 협동과 봉사 및 책임완수에 대응하며 '공공질서'는 준법정신에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좋은 지도자의 선출에 대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논한 김난수 총장 역시 인격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강조하는가 하면 관용의 정신과 타협정신, 소수의견 존중 등 자유사회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자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토론에 나선 차경수 교수는 의사결정 능력, 문제해결력, 메타인지 등과 같은 고급사고력을 강조하여 최근에 비중있게 다루지고 있는 절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보다 무게를 실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자질들은 크게 두 측면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개인적 능력, 즉 현명성과 관련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 즉 책임성 내지는 사회성과 관련된 측면이다.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사실과 가치를 판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해내는 능력

등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타인을 고려하고 봉사정신이나 협동정신을 발휘하며 공공 질서를 준수하는 것 등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산업화, 국제화, 정보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상의 변화와 관련해서 사고력이나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개인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부연할 수 있다.

### 3. 시민 교육의 방법적 원리

오늘날 시민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민 자질이 무엇이나 하는 목표 문제보다는 시민 교육의 방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를 각별히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의 과제를 방법적 원리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돈희 교수를 예를 들 수 있다. 이 교수는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유념하여, 관념적인 지식교육이나 지시적이며 규제적인 교육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갈등과 대립이 내재된 문제 상황을 다양하고 균형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론과 실제의 간극은 교육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게 개방적인 논의로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사회적 삶의 원리를 교육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공동체의 목표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즉, 다양성과 통합성을 온전하게 지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이른바 Dewey가 교육의 목적은 없고 다만 사람의 목적이 있을 뿐이며, 그래서 교육은 교육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주의를 따른다고 주장한 것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이돈희 교수는 실천적 경험의 원리를 강조한다. 시민 자질이 문제되는 사태는 삶의 사태가 아니라 행위의 사태라는 것이다. 즉, 시민 자질을 궁극적으로 실천적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천적 능력은 실천을 통해서 길러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입법하고, 스스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감당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 자신의 삶을 살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내 준다.

KEDI 모형 역시 이와 같은 방법적 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 자료(8종 14책)를 연구 개발한 것으로 소개되었는데, 연구진은 그 방법적 원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토의 및 경험 중심 교육 원리: 단순히 읽고 기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교육 내용을 지양하고 대



화(문답하고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교육 내용을 지향하여 텍스트와 학생 사이에 경험의 연속적인 확대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문제해결과정 중심 교육 원리: 일상적인 삶의 실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동료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사고와 개방적인 태도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과정의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이라 함은 판단의 근거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며 판단의 결과에 따르는 상황을 따져본 후의 의사결정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③ 참여적인 활동 중심 교육 원리: 지방의회탐방, 봉사활동, 지역사회연구, 조사, 사례분석, 사회탐구 활동 등과 같은 참여적인 활동 중심 교육을 통해 실천적 능력이 내면화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사회적 관계 중심 교육 원리: 시민 자질은 사회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동방식이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성격을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극이나 사회극과 같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법을 중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방법적 원리는 표현상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열린교육의 원리(김덕환)나, 소집단 협동수업 원리(차경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방법(김성환), 구체적 활동

과 체험의 중시(이택휘) 등과 같은 주장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 풍토 조성

앞에서 사회가 비민주적임을 이유로 시민교육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즉 시민교육의 교육 외적 한계를 주장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학교 교육 내부에서 시민 교육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문제삼을 수 있다.

즉, 이제까지 살펴본 방법적 원리가 제한된 특정 교과를 통해 적용된다 할지라도 학교 교육의 전반적 풍토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민주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습득하는데 커다란 제한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민주적 생활 방식이 담고 있는 실제적 의미를 내면화하는데 그 만큼의 기회를 상실함과 동시에 말대로 행동따로라는 이원적 삶의 방식만을 연속적으로 내면화하는 비민주적 교육 경험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서당개 3년에 풍월을 읊을지는 몰라도 그 개가 풍월의 의미를 알 수 없음은 물론이러니와 결코 풍월에 담겨 있는 의미를 쫓아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누구보다 방법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돈희 교수가, 도 구주의적 교육관을 배격하고 학교

교육에서의 관료체제의 경직성을 지양해서 교육제도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조 강연에서 박동서 교수가 제안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 학부형의 이해와 협조, 민주적 경험을 진작시킬 수 있는 학생 자치 활동 등도 같은 맥락을 달리고 있으며, 교단에 선 학교 교사의 역할 수행 문제가 핵심적 과제라고 본 김난수 총장이나 수업중심이 아닌 생활 경험을 포괄하는 학교 공동체 전체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택휘 교수 역시 시민 교육에 있어 교육 풍토가 차지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봐야 한다.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KEDI 모형 역시 이러한 총체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민주적 학생지도, 민주적 학교 운영」이라는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학급운영에서부터 학생자치활동, 특별활동, 학교 운영,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실제적인 제언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비공식적 인간관계가 시민교육의 중요한 환경적 요건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 과열과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최 준 열

(본원 교육행정연구부 선임연구원)

## 1. 과열과외 세미나 개최의 배경

과열과외는 오늘날 심각한 한국 병의 하나로, 한국교육의 비정상화는 물론 학생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과열과외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명의 발표자, 5명의 지정토론자와 다수의 비지정 토론자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하였다.

발표자는 과열과외의 문제를 학교 밖의 교육정책적 차원과, 학교안의 교육 실제의 차원에서 달리 접근하도록 구분되어 설정되었다.

교육정책적 접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입시교육에 대한 연구를 3년간 계속하였던 임연기 교육계획연구부장이, 교육 실제적 접근은 교육일선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홍래 명일여고 교장이 담당하였다.

지정토론자는 교사(김두성, 현대고등학교), 학부모(김인자, YMCA, 학부모 대표), 언론인(한중광, KBS 해설위원), 교육전문가(김영화, 한국교육개발원), 학원

경영주(문원주, 제일학원) 등이 선정되어 토론에 임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시·군 교육청의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원경영주 등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본 과열과외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계획연구부 임연기 부장은 과열과외의 해소방안을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찾고 있다. 그는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서 과열과외의 양상, 과열과외에 대한 문제의식, 과열과외의 원인, 쟁점화되고 있는 과외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과열과외의 양상은 첫째, 과외의 수강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둘째 과외비의 규모가 점차 고액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90년보다 92년의 사설학원 수강자 비율을 보면 국민학교가 21.02%에서 31.05%로 10% 가량 증가되었으며 중·고교도 5.01%에서 7.64%로 2.6% 가량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서

**과열과외가 왜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 학교교육의 부실, 과외산업의 팽창과 유혹을 들 수 있다. 먼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과열과외를 유발하게 한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학력의 가치가 학교 안팎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했는가 못했는가 그리고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진학했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장래 진로가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업의 가능성, 보수수준 그리고 심지어는 배우자까지도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울보다도 대도시, 기타 지역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열과외의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점으로는 교육의 수월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수월성의 차원에서 볼 때 과외 수업은 학생들로 하여금 입학시험을 겨냥한 단편적인 지식위주의 암기적 학습태도를 갖게 하여 그들의 창조력, 사고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 능력의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아울러 과열과외는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위축·왜곡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과외를 포함한 입시산업이 학교교육과 경쟁하게 되면 입시산업이 학교교육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입시산업화하기가 쉽다.

즉, 학교교육이 입시준비를 소홀히 하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이에 따라 과외수요가 발생하며, 이러한 과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은 본래의 교육목적을 접어두고 교육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 과열과외는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문제를 일으킨다. 신문지상과 TV에 소개된 것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과외 상품들이

개발되고 이러한 상품은 교액화의 경향을 띤다. 극단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과외를 독점하고, 입시경쟁의 열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의 사회적 선발기능을 의심받고, 그 정당성이 약해지고 말 것이며, 계층 국민간에 위화감이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과열과외가 왜 발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 학교교육의 부실, 과외산업의 팽창과 유혹을 들 수 있다. 먼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과열과외를 유발하게 한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학력의 가치가 학교 안팎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에 진학했는가 못했는가 그리고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진학했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장래 진로가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업의 가능성, 보수수준 그리고 심지어는 배우자까지도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학교와 사회에서 학력이 개인의 성공 가능성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진학을 위한 과열

과외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학교교육의 부실이 과열과외를 불러 일으킨다. 평준화 정책으로 비롯된 학교교육의 동질화는 학생의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또한 공교육 투자의 영세성으로 값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외활동을 촉진시키게 한다.

끝으로 과외산업의 팽창과 유혹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과외산업이 과외의 효과를 극적으로 과장하여 광고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심리를 조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들이 모두 하는 데 나만 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과외를 조장하기도 하고, 또 대학입시의 과정이 정당 맞추기 식이어서 과외산업에서 제시한 틀이 때로는 적중되고 있기 때문에 과외가 조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외문제와 관련된 교육정책을 발표자는 불법과외의 범위,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보충자율 학습의 거부운동, 고교평준화 정책, 사교육비의 공교육비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불법과외의 범위는 전면 금지에서부터 부분 허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80년대 초반

에는 어떤 과외도 허용되지 않았다가, 예체능계열, 저학력 학생의 5%, 20%, 학생의 방학에만 학원 수강 허용, 학원수강 전면 허용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정책이 변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불법의 개념이 모호해졌으며 이 때문에 부분적인 과외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게 하였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문제의 출제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 단순히 학원의 수강이나 과외지도에 의해서 입시문제가 해결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내신의 상향조정이나 본고사의 부활은 과외를 조장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보충 지율학습 거부운동은 교사, 학부모 등에 의해서 지지를 얻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의 운동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비록 이러한 운동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대학의 입시에서 탈락의 상황에 있다고 할 경우 과외 거부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고교평준화정책도 학생집단의 이질화를 가져오게 하여 과외를 유발하게 하고 있다.

사교육비의 공교육비화의 정책은 교육정상화를 기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의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 원인, 정책분석을 통해 제시된 과외과외 해소방안은 고등교육 진학기회의 확대, 중

등 후기 직업기술 교육체제 확립, 대학 입시제도의 보완, 학교 보충사율 학습의 전면 폐지, 과외수입에 대한 기본 입장이다.

먼저 국민이 원할 경우 항상 고등 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순차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개방하여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을 수용하도록 한다.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고졸자의 10~20%에게 다양한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도록 단기 직업기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상급학교 진학의 길을 개방한다.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과외수업을 통해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도록 시험문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내신반영의 방법도 상대평가의 강제배분 방식에서 절대기준 평가로 전환하여 경쟁상대가 동료가 아니라 교과별 성취기준에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보충·지율학습은 전면 폐지하고 이를 필요에 의해 시행할 경우 별도의 교원을 채용하여 실시한다.

과외수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학교에서 기본수업을 하고 과외로 보충을 하는 과외기능의 활성화 방안과 과외의 기능을 학교가 완전히 흡수하는 과외수업의 폐지 방안이 그것인데 현재에는 첫 번째 안을 견지하고 장차 두 번째 안을 추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3. 일선학교에서 바라는 과외과외 해소방안

홍래 명일여고 교장은 과외과외 해소방안을 학교 내에서 찾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과 과외수업과의 관계, 과외금지조치와 과외허용범위의 변천, 과외의 실상을 파악하고 과외과외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과외수업을 정규과정 이외의 학습행위로,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보조적 학습행위로 여기면서 학교교육과 과외수업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과외수업이 학교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 과외수업은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학교의 정상교육을 용이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과 과외수업과의 관계는 사회의 교육풍토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풍토가 건전할 때의 과외수업은 학교교육의 보조기능으로 여겨지지만 교육 풍토가 불건전할 경우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보조기능을 넘어 본말이 전도되는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학교를 하나의 출세의 발판으로 보는 수단적 교육관이 지배하고, 학력이나 학벌이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그 결과 교육과정이 입시위주로 편성됨으로써 학교교육의 도덕성이나

교육적 기능보다는 실용성이나 사회적 선발 기능이 강조되고 학교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의 원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등 사회의 교육풍토가 불건전할 경우 학교교육과 과외교육의 役割轉位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외금지조치와 과외허용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 7월 30일 7. 30 조치를 통해 과외를 전면금지하게 되는 데 이는 1980년 8월에 체능계의 학교내 보충지도를 허용하는 것을 필두로 점차 허용의 범위를 넓혀왔다.

81년 7월에는 예체능계, 기술계 및 취미분야의 재학생 학원수강허용, 82년 7월 학습부진학생 5% 범위 내에서의 교내보충수업허용, 83년 학습부진학생 20% 범위 내에서의 교내보충수업허용, 86년 교내보충수업의 운영권을 교육감에게 일임, 88년 5월 운영권을 중·고등학교장에게 일임, 89년 2월 중·고 재학생 방학중 학원수강 허용, 91년 3월부터 중학교 교내 보충수업 폐지, 91년 7월 중·고 재학생 학원수강 연중 허용으로 허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과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중·고별로 1개교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과외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국민학교로 93.94%의 어린이가 과외를 받고 있다. 이 중 42.85%는 두 곳 이상의 과외를 수강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는 62.8%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학생이 과외를 받고 있으며 국민학생과

다른 점은 과외 과목이 영어, 수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31.6%에 불과하나 이렇게 과외를 수강하는 학생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과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이 교육을 바라보는 바른 교육관을 가져야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질관리를 시도해야 하며 학생의 진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조기에 진단하여 자신의 진로를 일찍 결정하게 하고 다양한 진로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대학에 몰리는 경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질 높은 비싼 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 학급규모를 축소하여 개별지도를 가능케 하고, 교육과정의 과목을 축소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며,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시하여 교육의 폭을 확대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수·학습지도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대학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입시전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수용하도록 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전형방법의 개선은 내신성적의 반영에 총점이

외에도 교과목별 성적이 고려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출석, 특별활동 등의 수업외 활동도 고려되는 입시전형방법의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대학 수학 능력시험의 방법도 가능한 한 1회로 축소하며 2회를 치르게 한다고 할 경우 이 중 1회의 성적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2회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방안이 더 교육적으로 여겨진다. 본고사는 폐지하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 4. 과열과외 해소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자의 견해

과열과외의 해소방안에 대한 2명의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들이 토론한 견해를 토론자별로 정리하면 먼저 김두성 현대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을 학벌위주의 입신출세의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과 교육투자의 부실, 과도하게 많은 교과목이 과열과외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벌보다는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의 여건개선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새입시제도에서 내신제도의 석차에 의한 등급설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출석, 특별활동, 행동발달, 봉사활동 등의 점수화는 점수화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역사회 단체의 교육적 의견을 피력

한 김인자는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과외 허용의 범위가 넓어져 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교육여건에 긍정적인 기여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과외과외가 안고 있는 교육목적의 왜곡, 학교교육기능의 축소,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 무익한 사교육비 증대 등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교육 가치관의 개혁, 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한 질 높은 교육 실현, 학생의 경험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학교에 맡기고 분산시키지 말아야 하며,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사회단체의 역할도 확대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언론인으로 토론에 임한 한중광 KBS 논설위원은 많은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진학제도의 개선'에 의해서만 과외과외의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토론에 임하고 있다. 상기의 방안은 지난 40여년 동안 줄곧 주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며, 또 쉽사리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 문제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창의성, 독창성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생존하고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을 위해서, 과외과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철학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토론에 임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영화박사는 대체로 발표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임연기가 제안한 과외수업의 두 가지 방안을 세 가지로 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대안 I은 제시된 대로 학교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추가적 학습 욕구를 학교 밖의 과외수업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과외수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입장이다.

대안 II는 학교교육과 과외교육의 역할 분담이라는 입장에서 학교는 교과교육을 통한 고도의 인지적 교육과 기본적인 정의적, 신체적 교육에 충실하도록 학교교육의 질을 대폭 개선하고, 과외활동은 학교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심화된 정의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체능계 그리고 기술계의 교육활동으로 국한시켜 활성화시키는 한편 그 질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이다.

대안 III은 학교교육이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달 등 전인교육의 일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술계 학원과 예체능계의 개인지도(학원이 아닌)를 제외한 일체의 과외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고, 중학교부터 조기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직업과 취업의 길을 일찍 결정하도록 하며,

”

이 외에도 학급규모의 축소, 개별화 학습, 팀학습,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에 대하여 방과후의 개별지도 등을 권장하여 교육의 질향상을 기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학과과외를 부추기는 정책을 삼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문원주는 과외가 교육에 기여하는 기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밀, 고액과외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과외과외, 불법과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학력위주의 사회와 자기 지식만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대학에 진학시키겠다는 왜곡된 교육열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전환과 학교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국민 홍보활동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올바른 자녀관 교육관을 갖게 하고 국민 역시 교육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게 한다.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하여 학생

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돌려주고, 중학교부터 조기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직업과 취업의 길을 일찍 결정하도록 하며, 예산지원을 통해 교육시설의 확충과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학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여 진학의 길을 넓혀주고 국가가 인가한 입시학원을 건전히 육성하여 교육의 보조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5. 과열과외 해소방안에 대한 종합

발표, 지정토론, 비지정토론을 통해 과외수업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때로는 앞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내용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토론된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에 정리한다.

첫째, 과열과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력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짓는 지금의 상황하에서는 과열과외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대학정원이 비록 모든 지원자를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대학간의 차별화 때문에 과열과외의 문제는 그대로 상존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격증 사회,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의 완성에 있다는 차원으로 의식의 전환

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에 대한 투자의 증대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해야 한다. 그 동안 문제시 되었던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하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GNP 5%를 공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히 실천되어 내실 있는 교육발진이 이루어져 학교의 교육의 요구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학교육을 점차 개방해야 한다.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의 운영체제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방송통신대학 경우 입학자 전원을 현재는 수용하지 못 할지라도 장차 수용하겠다는 입학예고제를 활용한다든지 개방대학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진로교육을 확대한다.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부터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이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한 후에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상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학기회를 부여하며 사내대학, 기술대학을 통하

여 상급학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입시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충실화하도록 해야 한다.

수학능력평가의 발전적 개선, 학교의 각종 활동의 진학시 고려, 학과별 내신성적을 입시전형에서 고려, 수학능력시험의 1회 시행 또는 2회 시행시 2회의 성적을 입시에 반영, 내신성적의 절대평가화 등을 고려하여 대학입시의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학년당 17~18 과목을 이수하는 지금의 교과목 편제로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교과목을 핵심과목 위주로 축소하고 시간수를 확장하여 교육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여 교육과정에 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㉞

#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최 돈 형

(본원 과학교육연구부장)

본원에서는 '93 과학교육의 해'를 맞아 21세기 과학 기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 되는 초·중등학교 과학교육 진흥을 뒷받침할 구체적 재원 확충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진흥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교육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연구책임자; 한종하 원장·연구자; 최돈형, 최준열, 천세영).

본 연구진은 그동안 일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방문, 전문가 자문 및 관련 자료의 분석과 종합 등의 방법을 통해서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향후 1994~2001년 사이에 추진해야 할 과학교육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판단하여 과제별, 연도별, 재원별 소요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계 및 학계의 여론 수렴을 통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의 점검 및 수정 보완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I.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종하(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독창적인 과학기술의 발달과 축적 없이는 나라의 번영과 생존을 기

대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과학교육의 실상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오늘날의 과학 교육은 과학실이 시설 기준의 70%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며, 연간 학생 실습비도 극히 영세하여 맨손으로 실시하는 과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세하여 교과서에 열거된 지식을 암송하는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기심, 개방성, 객관성, 비판성, 협동성을 발휘해야 하는 과학교육의 과정이 권위와 통제로 획일화, 정제화되어 있다. 또한 변화하는 과학의 내용을 탐구하고 전달하기보다 지금까지 배워오고 전해 왔던 과거의 지식을 전달하는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창의성이 결여된 과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과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사람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배우며 활용할 수 있는 대중과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의 강의를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과학교육에서 학생이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과학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이론중심에서 벗어나 원리

오늘날의 과학  
교육은 과학실이 시설  
기준의 70%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며, 연간 학생  
실습비도 극히  
영세하여 맨손으로  
실시하는 과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과학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인의 과학적인 호기심과 관심을 확대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이러한 과학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흥 계획과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발굴한 다음, 정책과제 별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와 규모를 제시하였는데, 정책과제 영역만을 요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시설과 교구를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고, 둘째,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신념, 자세 및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 양성과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실험위주의 과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입시제도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과학영재 교육의 강화를 통해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

I-1 김제완  
(서울대학교 교수)

---

우선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과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TV의 프로그램 편성이나, 신문의 지면 할애 등을 보면 과학의 대중화가 아직도 먼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었

던 과학 프로그램이 일요일 오전으로 옮겨지고 신문의 과학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제일 가운데 넣어서 다른 면보다 볼 확률을 낮게 하고 있다. 물론 과학을 재미있고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을 가르치지 못한 과학자들의 잘못도 크다.

어린이들의 왕성한 과학적 호기심을 끝까지 양성하지 못한 이유는 발표자의 발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 실험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상황을 들 수밖에 없다. 1년에 한 사람이 200원짜리 실험을 하는 과학교실에서 어떤 과학자가 탄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과학기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현재 우리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전자기는 19세기에 이미 이론적으로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었다. 기술은 이와 같이 기초과학에 터해서 발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21세기에 각광을 받을 기술은 금세기에 그 이론적 기초가 확립될 것이다.

현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 주고 있는 전자기 이론을 포함하는 훨씬 발전된 기초과학 이론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방송매체나 국민들은 이와 같은 기초과학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대중의 무관심을 넘어서야 과학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과학의 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I-2 이 용 수  
(동아일보 과학부장)

---

오늘날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붕괴와, 선진국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후진적 경제사회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게 된 것은 교육의 책임이 크다. 교육이 이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다보니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며 강대국인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수장의 자리를 위협당하는 것이 교육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교육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이 미국을 모방한 것이 많다고 한다면 이들보다 훨씬 더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도덕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 도덕성은 민주시민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 구성의 핵심 요소이고, 창의성은 문명 발전을 주도할 생활인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경제 발전의 핵심원리로 설정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도덕성의 부재와 경제발전의 지체는 과학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과학이 추구하는 것이 창조성과 합리성이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학 교육 탓에 합리성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창

의성이 없는 사회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나 올리 없다.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리는 '대전 EXPO'는 세계 각국의 선진 기술과 현황을 잘 보고 느끼게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의 밑거름으로 할 좋은 기회이므로 이를 우리의 과학교육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 II : 과학교육 진흥과제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방안

천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본 연구에서 향후 8년간(1994~2001)의 과학교육 진흥 정책 과제를 (1) 초·중등학교 과학교육의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2) 과학교사의 자질 향상, (3) 과학교육의 여건 개선, (4) 과학영재 교육의 활성화 등 4개로 설정하였다.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이와 같은 정책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약 1,353억원, 총 1조 82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이를 각 과제 별로 보면 과학교육 여건 개선에 가장 많은 6,126억원이 소요되며, 과학교사 자질 향상 4,418억원, 과학영재 교육 188억, 그리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92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원 별로 구분해 보면, 국고 사업에 1,310억원, 지방비 사업에 8,967억원, 과학교육 기금 사업에 548억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 과학교육 재정은 총규모의 교육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롯되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과학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관심과 지원 또한 저조한 편이다.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기금 역시 83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정부관리 기금 36개 중 최하위이다(조성액 16억원, 사업비 1억 5천만원). 이나마도 기금통폐합의 정책 때문에 풍전 등화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렇게 열악한 과학교육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교육재정의 총체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과학교육 재정의 확보를 기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확보 정책의 하나로 향후 1994~2001년까지 '과학교육 진흥 1조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첫째, 김영삼 대통령의 GNP 5%까지 공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실현시킴은 물론 2001년에는 6.5%를 달성함으로써 일반 과학교육재정의 확대를 꾀함과 동시에 과학교육재정을 확고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확충된 교육재정 중 1994~2001년 기간 중 "과학교육 1조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학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2001년까지 과학교육기금을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기금 조성액의 반액은 '과학교육 특별회계'로부

터 출연받고 나머지 반액은 타기금 보조, 민간재원을 동원 확보한다. 넷째, 현행 "과학교육 진흥법"을 정비하여 과학교육재정 1조원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 II-1 박석무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우리 나라에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과학교육 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제대로 이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그간의 과학교육 진흥은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인 것은 미흡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조원 과학교육 특별회계'의 설치와 과학교육 기금 2천억 확충, 현행 과학교육 진흥법의 개정 등의 방안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하며 법령의 개정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일반재정 규모를 확대하여 교육재정 규모 자체를 늘리는 방안은 국민의 조세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기존의 예산 규모 내에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구조의 개혁과 운용의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

교육 재정의 확충과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러나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을 잃은 조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학교 시설 설비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의 20% 이상을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 II-2 공 구 영

(전국 초·중등 과학교육연구회 회장)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 진흥이 어려운 것은 과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 기업체의 장기적인 안목 부족, 매스컴의 편견과 홍보 부족, 정부의 과학자 우대 정책 미흡, 정책 입안자의 인식 부족 등이 그 원인이다.

과학교육 재정 1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성회비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 중등학교의 과학교육비가 국고에서 책정된 금액은 전혀 없이 육성회비 가운데 5%가 실험 실습비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과학과뿐 아니라 기술과와 가정과 실습비로 책정되어 있어 순수한 과학실험을 위한 금액은 더 줄어든다. 따라서 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중등학교의 과학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증원해야 하고, 교육세 중에서 일정액을 기금 조성에 활용하고, 공중전화의 낙전이나 토지 초과세의 일부 전환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위한 기업체와 학부모의 성금 지출 등도 고려할 수 있다.

## II-3 이 세 용 (과학기술 진흥재단 전문위원)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60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실험을 하고, 실험 준비와 정리 평가 등의 부담을 가진 교사가 실험을 지도하고, 대학입학에 목표를 둔 학부모들의 실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 입시에서 과학실험의 홀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과학교육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1조원의 예산을 전액 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에 전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대기업의 창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일본의 과학 기술 진흥재단의 막대한 예산이 대부분 대기업의 협찬금이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의 기업도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슬롯머신, 경마, 오락실 등의 흥행성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금의 일부를 과학교육의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올림픽 복권이 체육 복권으로 전환되어 계속 체육 진흥에 기여하듯이, 대전엑스포가 끝나면 엑스포 복권을 과학교육

진흥복권으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타, 공중전화의 낙전의 일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II-4 이 영 찬 (교육부)

매년 정부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목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학교육의 진흥"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과학기술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 과학교육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한 대책이나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과학교육진흥법이나 그 시행령이 유명무실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과학교육의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교육의 진흥이 단순히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생존전략이라는 절실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기술력 제일주의 기술의 자국 이익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국제 과학 기술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력, 탐구력, 창조력을 형성할 수 있는 신 과학교육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함은 물론 과학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고서는 신세계 기술 질서가 전개되는 미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1994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01년까지의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 부처간의 의견 조정, 법령의 정비, 국회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간을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에 매년 2천억 씩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 부문의 인접 부문인 산업기술부문, 대학의 기초·첨단 부문과의 관계 정립, 상호 협조, 자원 배분에 관해서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액 국고자원에서 되어져야 하고 투자 주체도 교육부가 주관하여야 할 것이지만, 산업기술 부문이나 기초첨단 부문은 산업경제계의 지원육성책을 강구할 수도 있고 지원 주체도 경제부처와 과학기술처 등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 교육진흥 특별회계는 가능한 국고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되 재원 확보 과정에서 인접 산업기술부문이나 대학의 연구부문에 교란 요인을 주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II-5 김태완  
(계명대학교 교수)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제안된 "1조원 프로젝트"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교육개혁운동을 참고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1980년대의 교육개혁은 자신들이 경쟁상대국인 일본에 비

해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잃은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다. 1983년에 "위기에 처한 국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련의 교육개혁 운동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1991년 4월 발표된 "미국 2000"에 잘 나타나 있다.

“

일본은 1984년에 국가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서 21세기를 대비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정부에 보고한 일본의 교육 개혁 방향은 첫째,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둘째, 개별화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셋째, 사회의 국제화 및 전산화 등에 대응하는 교육체제의 수립이다.

”

'미국 2000'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목표가 들어있다. 즉, 2000년까지 (1) 미국의 모든 어린이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게 한다. (2) 학생들이 새로운 일들을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재구조화한다. (3)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재구조화한다. (4)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를

개편하거나 신설한다. (5) 미국의 공립학교를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전문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6) 모든 공립학교가 스스로 학교교육에 대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도록 모든 공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한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움직임의 중심 실천자가 주지사이고, 주지사는 교육개혁을 지지하는 개인이나 단체, 조직을 묶어서 "미국 2000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교육개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정신은 학교와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1984년에 국가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서 21세기를 대비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정부에 보고한 일본의 교육 개혁 방향은 첫째,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둘째, 개별화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셋째, 사회의 국제화 및 전산화 등에 대응하는 교육체제의 수립이다.

일본 문부성은 이 방향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1992년 9월까지 16개의 법안을 상정하여 14개를 통과시켰다. 일본의 교육 개혁은 학교교육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먼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가치관 교육이란 무엇인가 I

# 가치관 교육의 성격

이 계 학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교육윤리연구실장)



이 계 학

-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과 졸업
- 단국대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육윤리연구실장
- 「자아개발 프로그램」, 「인성교육론」의 저자

## 1. 학원만도 못한 학교

화부터 먼저 널 교사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라면 '학원만도 못한 학교 교육'이란 이 말에 당연히 화가 치밀어야 되는 말이다.

학교교육이 설자리를 통채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 고발에 끓어오르는 화를 일단 진정시키고, 학교교육이 존립해야 할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이 지식이나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원 교육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산뜻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교사가 이 말에 벌컥 화를 낸다고 해서 교육세를 지불하고 있는 국민이 학교가 존립해야 할 그 근거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빠! 나 학교 그만두고 학원갈래. 그러면 서울대에 갈 자신 있어”  
내 동료교수가 생각다 못해 이 못

난 교육학자에게 물어 온 진지한 교육상담의 내용이다. 필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진지한 질문에 양심상 어쭙잡은 설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다. 교육학도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래도 무언가 학원보다는 학교 다니는 것이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는 투의 장광설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학교가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교육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말았다.

## 2. 원인은 무엇인가?

앞서 필자는 「교육병의 진단과 처방」이란 제하의 글을 「교육개발」에 기고했다.

'놀이모형'을 원용하여 우리 국민이 선택한 삶의 형식과 내용이 1948년 이래 정치에 의하여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정치가 우리의 국가발전과 국민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교육이 이에 부응하여 어떠한 활동을 전개해 왔는지를 '의료기술적'인 안목에서 진단하고, 그 진단에 의하여 처방전을 마련했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우리의 학교교육이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간을 인격'으로 길러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그 실패의 원인은 교육행정가나 학부모들이 말로는 가치관의 교육, 즉 도덕/윤리교육을 중시하면서도 수단주의 교육관에 영합하여 실지로는 '허드레 교과나 있으나마나한 교과'로 경시해 왔

고, 학생들마저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오는 '허드레 과목'이나 '뻔한 이야기'로 가득찬 교과로 취급해 온 데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이 가치관 교육의 성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놀라운 사실이였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바이블'이요, 교사들의 '경서(經書)'인 초/중등학교의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와 교사용지침서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 수 없게 꾸며진 데 있었다.

그러고 보면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교사들에 국한된 문제만도 아니다.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편찬한 교육부와 교육과정전문가, 교사를 양성해 낸 기관에 있다. 즉, 그들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만드는 교육'만을 가르쳐 온 교육학 교수들에게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가치관 교육이 '무척 어려운 교육'이라는 사실이다. 가치관 교육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에 있어서도 '가치관 교육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감탄할 만한 논문이나 저서를 발견할 수가 없다.

### 3. '기르는 교육'과 '만드는 교육'

광복 이후 한국인의 교육은 진보주의 교육사조와 행동주의 심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듬하여 '새교육 사조'가 한국인의 교육계를 풍미하고 있었다. 이 교육사조는 '만드는 교육'을 상징하고 있

는 교육이다. 한국의 교육현장을 크게 지배한 타일러(Ralph Tyler)의 교수/학습의 기본모형은 공학적 사고방식을 도입한 전형적인 모형이다. 이 교수/학습의 기본모형은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제품생산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교육모형이다.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학교는 사회가 주문하는 표준제품을 대량생산해 내는 공장이고, 학생은 주문대로 생산되어질 소재에 불과하다.

학생은 주문대로 그림이 그려져야 할 백지(Table Rasa)나 가소성이 높은 밀납(密臘)과 같은 존재이다. 현행의 학교에서도 이 모형에 근거하여 지식과 기능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해 내고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모형을 '工場模型'이라 한다. 쉬운말로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만드는 교육'이다.

이 교육모형은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주문에 따라 제조되어질 소재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제 삶을 제 자신이 책임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고 어린존재라 하더라도 주문대로 생산되어질 소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백지의 상태로 태어나는 밀납(密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격 가능성'을 그 씨앗으로서 지니고 태어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天命之謂性', '一切衆生皆有佛性',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어졌다'는 인

간 창조설 등등은 모두가 다 인간은 백지의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인격 가능성'을 그 씨앗으로서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위대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말이다.

'만드는 교육'의 모형은 그런 인격성장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모형이다.

이에 반하여 가치관의 교육은 식물의 씨앗처럼 인간은 인격성장의 가능성을 그 씨앗으로서 지니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가치관의 교육은 학생을 만들어질 소재로 보고 출발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르는 교육'의 모형, 즉 '植物模型', 또는 '成長模型'과 만남의 '模型'을 상징하고 있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른 교육이다.

### 4. 가치관 교육의 성격

교과교육의 성격을 문제삼은 것은 교과의 성격에 걸맞는 교육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내용을 주지교과, 기능교과, 가치관 교과로 삼분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들이 현행의 학교교육이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이나 기능/기술교육에 비하여 가치관 교육의 성격을 교사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식이나 기능교육에 비하여 가치관 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가치관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켜 사람다운 사람, 즉 고매한 인격자를 '길러 내는 교육'이다. 지식교육은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기능(기술)교육은 기능인이나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하면, 가치관의 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한 인격인을 양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다운 사람, '聖子'를 길러 내려는 교육이다.

둘째로 가치관의 학습은 '맘으로 하는 공부'이다. 학교교육의 내용을 知(德/體)로 분류하기도 한다. 지식은 머리로 하는 공부이고, 체육은 몸으로 하는 공부라고 하면, 德은 맘으로 하는 공부이다.

그러므로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야 하고, 신체를 단련하려고 하면 몸이 고달파야 한다. 마찬가지로 덕성을 함양하려고 하면 마음이 아파야 한다. 머리가 아프지 않은 지식공부가 있을 수 없고, 몸이 고달프지 않은 신체의 단련이 있을 수 없듯이 속상하지 않는 덕성의 교육은 없다. 그렇지 않은 덕성의 교육은 사이비 교육이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오는 '허드레 과목'이 웬 말인가?

셋째로 가치관 교육은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교육이다. 지식이나 기능 교육은 피교육자가 모종의 지식이나 기능을 '모르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신나는 교육'이다. 그러나 가치관의 교육은 공부할 내용을 학생들이 보기에 이미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뻔한 내용'이다.

인간은 진공 속에 태어나는 존재

가 아니라 문화라는 토양 속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존재이다. 신생아는 문화라는 토양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생활규범들을 비판 없이 모방하고 배워 나간다. 그래서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아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규범에 따라 생활해 간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생활 규범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 동안의 삶의 체험을 통해 모종의 태도와 신념을 이미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바르건 그르건, 좋건 나쁘건간에 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학교 입학년에 입학하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는 도덕적으로 백지의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일 생소한 이야기들로 가득찬 교과서라고 하면 그건 잘 못된 「도덕」교과서요, 「윤리」교과서이다. 학생들이 도덕/윤리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생소한 생활규범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생활규범 속에 내재해 있는 도덕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관의 교육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어린이가 '국문법'을 배우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넷째로 가치관의 교육은 교사가 '일러주는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묻는 교육'이다. 지식이나 기능은 모종의 지식이나 기능을 알고 있는 교사가 모르는 이에게 일러주기만 하면 되는 그야말로 쉬운 교육이다.

그러나 가치관의 교육은 생활규

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가치를 그 스스로가 파악하도록 이끌어 주는 애타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생활규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가치를 교사가 일러주면 오히려 망치는 교육이다.

왜냐하면 생활규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가치를 파악한다'는 말은 '도덕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말이고, '의미의 파악'이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이고, 심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12월 9일은 대영이 생일이다. 그에게는 의미있는 날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무의미한 날이다. 그날에 얽혀 있는 그 의미를 교사가 어떻게 일러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생활규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 가치를 일러주는 가치관 교육은 '길들이기 교육'이요, 심한 말로는 '교화'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모르는 생활규범을 일러주는 교육은 가정교육의 몫이다. 학교교육의 몫은 인습수준의 도덕성을 인습이후의 도덕성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도덕성의 수준으로 안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질문이다. '지각하는 것은 왜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인사 안하면 어떤가요?'

그러므로 가치관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탐구 수업이요, 발견학습이다. 따라서 가치관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도덕철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로 가치관 교육의 내용은 강건너 불이 아니라 열등의 불이다. '지구는 둥글다'/'물은 100도에

서 끊는다’/‘나는 타자를 잘 칠 수 있다’ 등등은 따지고 보면 강 건너 불이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에게 ‘공부는 왜 하나? 안하면 어때?’란 질문은 발등의 불이다. 그의 삶을 온통 지탱하고 있는 ‘실존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가치관 교육의 내용은 이처럼 바로 실존적인 문제라야 한다. 그래서 물건너 온 콜버그(L.Kohlberg)의 ‘하인즈의 딜레마’는 여전히 강 건너 불이다.

여섯째로 가치관의 교육은 ‘보태기 교육’이 아니라 ‘빼내기 교육’이다. 지식이나 기능/기술 교육은 피교육자에게 없던 지식이나 기능, 또는 기술을 보태주는 교육이지만 가치관의 교육은 피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바르지 못한 태도나 도덕적 신념 등을 빼내는 교육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존의 바르지 못한 태도나 도덕적 신념, 또는 그릇된 가치관을 빼내는 교육이다.

판자집 위에 궁전을 지을 수 없듯이 기존의 바르지 못한 태도나 도덕적 신념, 또는 그릇된 가치관 위에 바로고, 차원이 높은 태도나 도덕적 신념, 또는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치관 교육에서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바르지 못한 인습수준의 태도나 신념, 또는 그릇된 가치관을 빼내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가치관의 교육은 보태기 교육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인습수준의 태도나 도덕적 신념, 또는 그릇된 가치관을 빼내는 교육이다.

일곱째로 가치관의 교육은 삶의

‘지혜를 획득해 가는 교육’이다. 지식의 교육이 지식의 획득에, 기능이나 기술교육은 기능이나 기술의 습득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면 가치관의 교육은 ‘삶의 지혜’를 획득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의 지혜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획득하게 되는 올바른 견해나 생각을 지칭하는 ‘알’ 智字, 지혜가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뛰어난 ‘슬기로운’ 智字, 지혜를 의미한다. 이 얘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다른 지면을 할애할 작정이지만 인격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인격의 실체인 가치관이 바르게 확립되면 필수롭 智字가 늘어난다.

따라서 지식이나 기능교육의 일차적인 목표가 지식을 획득하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라면 가치관의 교육은 잔피가 아니라 ‘卓越한 지혜’를 획득하는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옛날의 양반네들은 지식이나 기술교육은 상것들에게 물려주고,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이다. 모두가 양반인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웬 말인가?

여덟째로 가치관의 교육은 통합적인 성격을 띠는 교육이다.

즉, 知/情/意가 一以貫之하게 통합하여 자아동일성(Identity)을 이루도록 촉구하는 교육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知/情/意가 통합하여 일관지한 인격을 완성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일관지하게 자아동일성을 이루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고, 탁월한 지혜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아홉째로 가치관의 교육은 알기 교육이 아니라 ‘알고-행하기’ 교육

이다. 지식은 ‘알기’에서 끝이 나고, 기능교육은 ‘행하기’에서 끝나는 교육이라고 하면 가치관의 교육은 ‘알고-행하는’ 데서 끝이 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결과가 ‘자판기 처럼 나타나는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이홍우>는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 교육이라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덕성의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지대계의 교육이다.

열째로 가치관의 교육은 ‘알기 교육’이 아니라 ‘깨닫기 교육’이다. 지식이나 기능교육은 알기 교육이라고 하면 가치관의 교육은 도덕적 ‘의미의 파악’에서 끝나는 교육이다. 파악은 직관이고, 직관은 매개 없는 각성이고, 각성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불연속적인 앎이요, 불확정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기약할 수 없는 교육이 바로 가치관의 교육이다. 따라서 어느 누가 천신만고 끝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그걸 이끌어 준 이에게나 德을 탐구한 본인에게나 신비로운 사건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건 神으로부터 받은 恩寵’이라 했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치관 교육은 지식이나 기능교육과는 판이하게 그 성격이 다른 교육이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교육은 만드는 교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척이나 어려운 교육이고, 교사의 교대한 인격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이라 하겠다.☉



# 한국의 교육비 수준

백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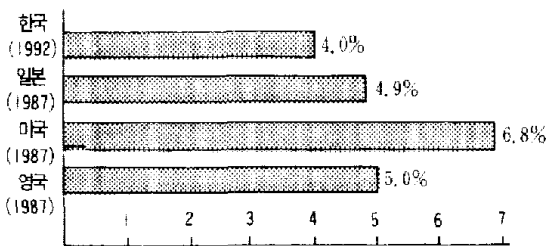
## ■ 공교육비 수준 (1992)

공교육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수준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순수하게 교육부 예산만으로 볼 수도 있고 (GNP 대비 3.4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예산 (순계)으로 (GNP 대비 3.98%), 또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를 포함한 총 학교교육비로 (GNP 대비 5.25%)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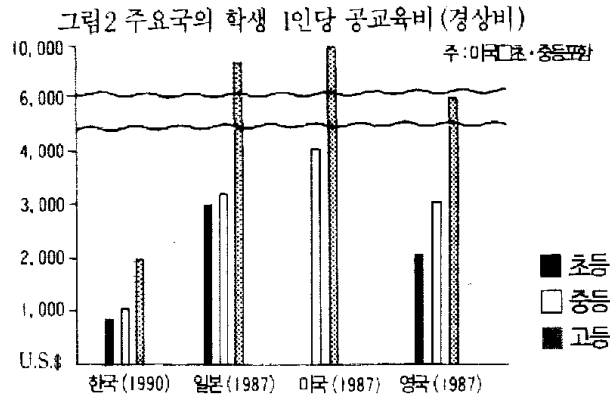
외국의 공교육비 (public expenditures on education)가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예산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하여 보면 세계 168개국 중 공교육비가 GNP 대비 4%를 초과하는 국가는 75개국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 주요국은 5~7%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수준 (3.98%)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림1 참조).

그림1. 주요국의 GN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우리나라의 1992년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4~5년전의 선진국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뒤지고 있어 초·중등교육의 경우 선진국의 1/2 내지 1/3수준, 고등교육의 경우 선진국의 1/3 내지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였을 때 이러한 통계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질 낮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2 참조).



## ■ 사교육비 수준 (1990)

사교육비는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학습준비물비, 과외활동비, 단체활동비, 특기재능학원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총량 규모는 1990년 불변가를 기준으로 하여 1968년 당시 8,8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82년에 3조 940억원, 1985년에 5조 9,820억원 그리고 1990년에 9조 4,27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3 참조).

이를 GNP 대비 비율로 보았을 때 1968년 GNP의 4.46%를 차지했던 사교육비 총량규모는 1985년에 6.59%, 1990년에는 6.79%까지 높아졌다.

직접교육비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계속 점증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의 증대가 공교육비의 증대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4 참조).

그림3 사교육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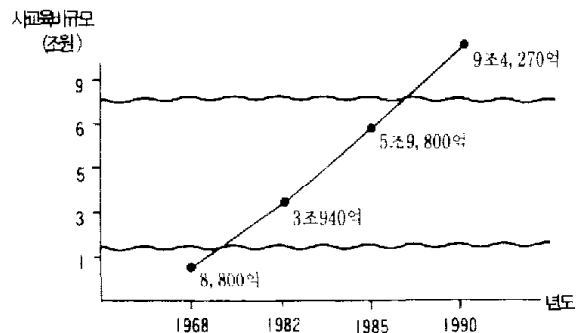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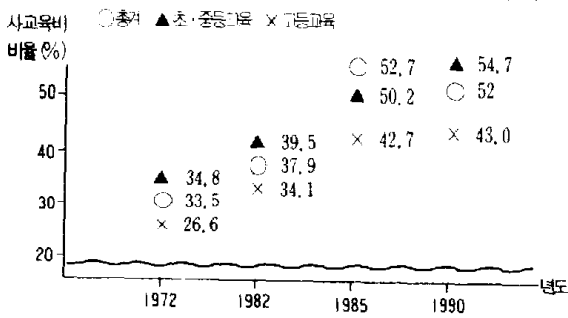


그림4. 직접교육비 중 사교육비 비중 변화 추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규모도 계속 증대하고 있는데 (그림5 참조) 이는 주로 과외활동비(과외 교육비 및 특기재능 학원비 등) 및 교재·부교재대의 증가에서 기인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중 과외교육·학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학생의 경우 35.8%, 중학생과 일반계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25.2%, 20.3%로 나타났다 (그림6 참조).

그림5.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수준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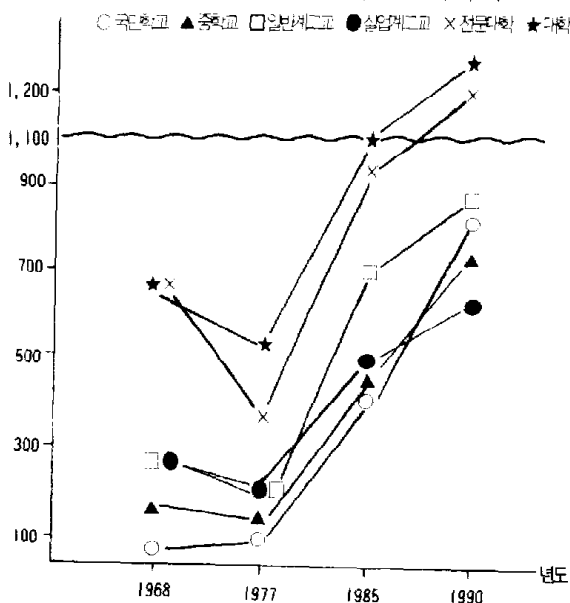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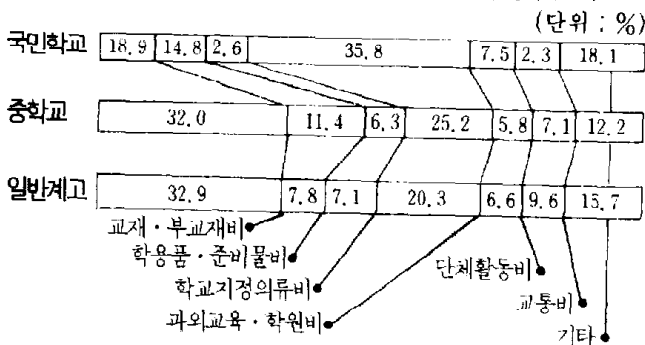


그림6.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의 항목별 구성 (1990)



주: 기타에는 급식비, 하숙비, 잡비 등이 포함됨.

1985년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상급학교 단계일수록 학생당 사교육비가 높게 나타났으나 1990년에는 국민학교의 사교육비 규모가 중학교와 실업계 고교에서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968년 이후 최근에 올수록 학교급간 사교육비 규모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표1 참조).

표1.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 추세 (비교지수)

학교급별	1968	1977	1982	1985	1990
유치원	-	0.97	0.77	0.72	0.64
국민학교	1.00	1.00	1.00	1.00	1.00
중학교	2.30	1.19	1.26	1.08	0.90
인문계고교	3.66	1.94	1.77	1.73	1.07
실업계고교	3.66	1.99	1.61	1.18	0.76
전문대학	8.24	3.55	3.80	2.47	1.55
대학(교)	8.23	4.78	5.28	2.66	1.61

주: 1. 국민학교를 기준(1.00)으로 한 학교급간 불변가 사교육비의 비교지수

2. '77, '82, '85년 대학(교)에는 교육대학이 포함되었으며, '68, '77년 전문대학은 초급대학을 의미함.

학생 1인당 과외비용 지출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1991)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중 과외수업자들의 1인당 월평균 과외비용은 고등학생의 경우 212,985원, 중학생의 경우 72,830원으로 이를 1980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고등학생의 경우 3.2배, 중학생의 경우는 약 2배 정도 더 많은 과외수업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7, 그림8 참조).

월평균 과외수업비와 추정과외수업자수에 근거하여 추정한 1년간의 과외교육비는 약 1조 2천억원으로 당해년도 교육부 예산의 24.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그림7. 1980년, 1990년 과외수업중인 고등학생

(일반계)의 지역별 1인당 월평균 과외비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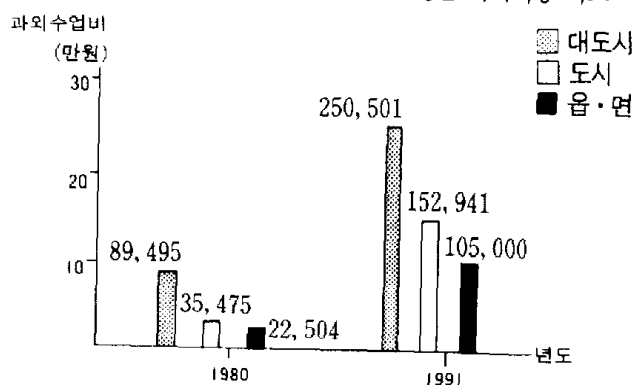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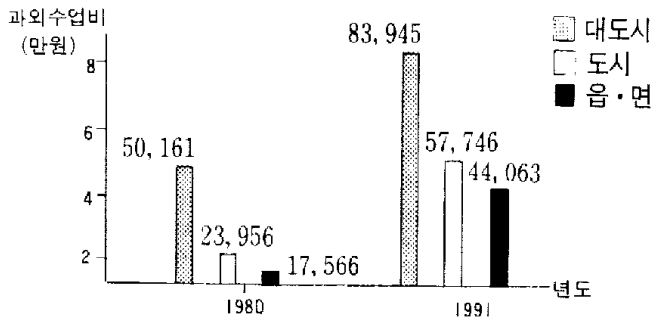


그림8. 1980년, 1991년 지역별 중학생 1인당  
과외비용 비교



고등학생 및 중학생의 월평균 과외비용은 각각 도시 근로자 가계 월소득의 19.7%와 6.8%, 가계지출의 27.3%와 9.4%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학생의 경우 과외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9, 그림10 참조).

그림9. 과외비용이 가계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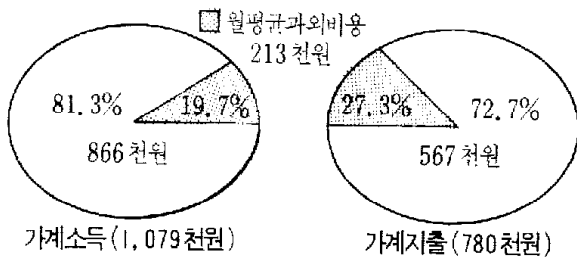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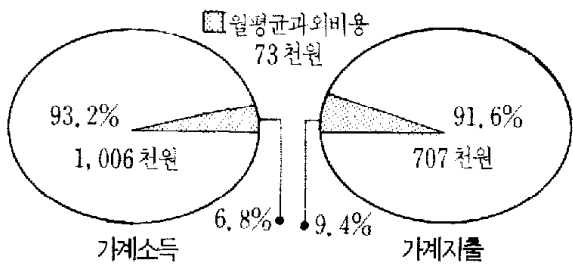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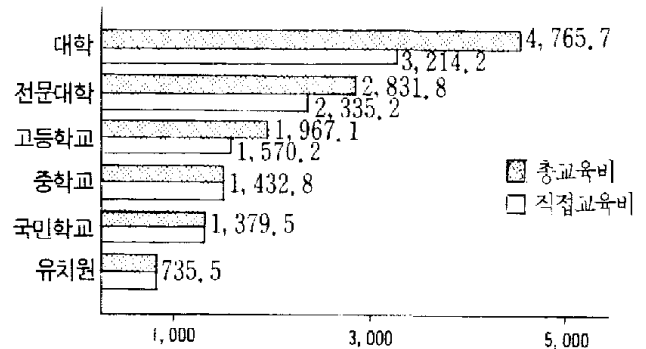
그림10. 과외비용이 가계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학교



학생 1인당 총교육비(1990) :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학교급은 대학으로 4,766천원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2,814천원, 고등학교 1,967천원, 중학교 1,433천원, 유치원 936천원의 순으로 학교 단계가 높을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11 참조).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한 학생이 대학단계까지의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교육비를 산출하면 평균적으로 직접교육비는 3천 108만원, 여기에

그림11.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연간 총교육비 및  
직접교육비 수준 (1990)



기회경비까지 포함한 총교육비는 3천 84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2 참조).

표2. 1990년도 학생 1인당 대학졸업 가정 소요 교육비 (단위: 천원)

학교급별	총교육비기준		직접교육비기준	
	1인당교육비	교육연수적용	1인당교육비	교육연수적용
유치원	935.5	935.5	935.5	935.5
국민학교	1,379.5	8,277.0	1,379.5	8,277.0
중학교	1,432.8	4,298.4	1,432.8	4,298.0
고등학교	1,967.1	5,901.3	1,570.2	4,710.6
대학	4,765.7	19,062.8	3,214.2	12,846.8
총계		38,475.0		31,078.3

주 : 남·여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GN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의 돈을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2:48), 총교육비의 약 71%를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교육비의 사부담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GNP 대비 공교육비 규모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사교육비는 1968년 이래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비의 증가추세를 능가하고 있다. (●)



백성준

- 서울사대 독어교육과 졸업
- 미국 하버드 교육대학원 졸업 (교육학 박사)
- 본원 교육재정연구부 연구원

국민학교 5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반에서는 자주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세히 보니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어린이가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를 데려다 야단도 치고 달래 보기도 해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지도는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을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면 보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청주 ○○국민학교  
교사 송동의)

도벽은 그 자체가 어린이들을 나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강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주는 소유감과 물건 자체의 사용성은 매우 강한 강화제이고 그 행동으로 인한 선생님, 학급반 어린이 혹은 부모님이 보여 주시는 우려의 마음과 질책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관심이라는 강력한 강화제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도벽이 일어나게끔 되면 스스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저절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어린이들의 마음은 여리고 순박하므로 체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여 관심있는 지도를 하시면 심한 반사회성 성향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동이 보이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1. 아동의 반사회적 문제는 행동 자체만을 문제 삼지 않는다.

아동의 행위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므로 우선 아동과 좋은 관계를 갖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유도합니다.

어느 국민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그 아동도 선생님반 아이처럼 유복한 환경입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할 때 하루도 집에서 맞아준 적이 없어 그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결국 도벽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아동이 잘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하며 학급아동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특성을 그 아동에게서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아동과 같이 잘하는 점을 의논하고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음악, 체육, 꽃가꾸기, 산수 등과 같은 일에 흥미가 있고 잘하는 경우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잘한 날 토큰을 주고 일 주일간 모아 상주기(일주일에 과목당 3개 이상인 경우)

과 목 \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결 과
음악시간							
체육시간							
꽃가꾸기							
산 수							

3. 아동과 함께 도벽을 없애는 방법을 관찰하고 의논합니다.

<도벽이 일어나는 상황>

- 학과시
- 놀이시
- 방과 후

<혹은 아동의 기분에 따라>

- 화날 때
- 우울할 때
- 야단 맞을 때

체크를 해 본 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차근차근 줄여 나갑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에 일주일에 4번이나 흠친 경우가 발생하면 방과 후에 친구와 함께 꼭 들이 있게 한다거나 심부름을 시켜 그 상황을 피하게 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의 행동을 체크하여 처음 일주일에는 3번 흠친 경우도 잘했다고 상을 줍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2주째, 3주째로 나아가면서 2번, 1번으로 줄여 나갑니다.

4.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도벽은 자아통제를 하여야 합니다. 흠치고 싶은 욕심을 버리도록 눈을 감고 선생님이 자아통제 훈련단계를 실시하면 처음에는 아동이 보고 따라하다가 점차 아동 스스로 하게 합니다.

<훈련 단계>

1) "나는 이것을 갖고 싶지만 그냥 가질 수 없다."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2) 남의 물건을 집었을 때 "이것은 (누구) 것이다."라고 말한다.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 주인은 어떤 기분일까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3)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생각해 보고 선택한다.

- ① 빌려 달라고 말한다.
- ② 내 물건과 바꾸자고 말한다.
- ③ 나누어 쓰자고 말한다.
- ④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떠올리면서 말한다.
- ⑤ 집에 가서 사달라고 말할 것이다.

4) 3)의 항목에서 선택한 것을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선생님 앞,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다른 친한 아이 앞에서 연습하며 실제 상황에서 말할 수 있게 합니다.

5) "잘했어, 난 남의 물건을 가져 가지 않았어"라고 말하게 합니다. 선생님께 보고하고 자기통제 체크를 하여 상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체크 수가 점점 줄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추언** 만약 3)의 선택에서 ① ② ③ 중 한 가지를 했을 때 싸움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싸움회피하기 통제

- 1-모두 중단하고 10까지 세기 연습
- 2-싸움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확인된 상황을 기록장에 기입한다.
- 3-나중에 선생님과 토의, 학급 아동과의 토의 등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유도한다.

40~50명씩 되는 아동들을 지도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학교상황을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개별적 접근방식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염려됩니다만 대체로 어린이들은 조금만 옳은 일을 체계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부적응 행동이 줄어들므로 아마도 ① ②를 실시하시면 ③ ④까지만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니미 · 본원 책임연구원 · 철학박사)

# 대행출판자료 안내

자 료 명		정 가	대행출판사	자 료 명		정 가	대행출판사
국민학교 특활영어	배움책 (상)	6,000	대한교과서 234-7141 ~ 7145	민주시민 교육자료	유치원 학생용	35,000	대한교과서 234-7141 ~ 7145
	" (중)	6,000			" 교사용	3,300	
	" (하)	6,000			우리와 나 (국교1, 2학생용)	1,300	
	지도서 (상)	2,500			" (국교1~2교사용)	2,200	
	" (중)	2,700			" (국교3~4학생용)	1,600	
	" (하)	2,800			" (국교3~4교사용)	2,600	
배우며 생각하며 (국교용)	배움책 (1~2)	3,400	" (국교5~6학생용)		1,600		
	" (3~4)	2,400	" (국교5~6교사용)		2,400		
	" (5~6)	2,100	민주사회민주시민 (중학생용)		1,600		
	지도서 (1~2)	3,100	" (중 교사용)		3,100		
	" (3~4)	3,600	" (고등학생용)		2,900		
배우며 생각하며 (중학교용)	배움책	2,700	" (고 교사용)	4,000			
	지도서	3,400	" (성인용)	2,400			
			민주적학생지도, 학교운영	3,800			
생각하는 산수공부 (국교용)	1, 2학년용	1,500	우등생이 되기위한 클 읽기	중심내용 파악 학습전략	1,800	삼화출판사 776-6687 776-6688	
	3, 4 "	2,900		자기점검 학습전략	1,200		
	5, 6 "	2,900		관계짓기 학습전략	1,200		
생각하는 산수학습 자 료 (국교용)	(1, 2학년) 상	1,300		정교화 학습전략 (I)	1,700		
	" 중	1,100		정교화 학습전략 (II)	1,900		
	" 하	1,400	읽기학습전략관련지침서	1,200			
	(3, 4학년) 상	1,800	환 경 교육자료 (국교용)	즐거움 환경탐구 (1~2학생용)	1,900		
	" 중	1,600		재미있는 환경탐구 (3~4학생용)	1,900		
	" 하	1,700		보람찬 환경탐구 (5~6학생용)	1,700		
생각하는 산수학습 자 료 (국교용)	(5, 6학년) 상	1,700	진로성숙도 검 사 (중·고교용)	검 사 지	750	한국적성 연구소 515-5722 515-5725	
	" 중	1,900		검사요강	1,000		
	" 하	1,900	KEDI 집단 지능검사	검사지 (국교~대학생용 : 8종)	각 750		
	생활경제 학습자료	지하마을의 건설		1,400	추가검사지 (초·중·고용 : 3종)	각 750	
		태호와 드송		1,500	검사요강 (5종)	각 1,200	
		내일은 야구왕	1,500	KEDI-WISC 개인 지능 검사 도구		104,000	특수교육 812-0348
욕망과 선택		1,500	유아인지 학습자료	자료A (색탁대놀이외 2종)	231,000	국민서관 777-7107	
동수의 병		1,400		자료B (곰돌이도미노외 10종)	132,000		
화해		1,300		자료C (그림수찾기외 9종)	110,000		
이루코부족과 무역선		1,500		자료D (바둑판게임외 7종)	187,000		
쟁구의 물가 기행		1,400	한국교육 영인본		150,000	하우기획 268-4417	
한지붕 두마음		1,300					
물고기의 교훈		1,400					
지도서 (상)	500						
지도서 (하)	400						

※ 대행출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행출판사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출판부 (572-5121, 교환 411)로 문의바랍니다.



## 입시위주교육의 개혁방안

이 특집은 지난 1990년부터 1992까지 3개년 동안 본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입시위주교육의 실상과 대책>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의 학교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강 무 섭



강 무 섭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철학박사)
- 본원 교육정책연구본부 본부장
- 「한국고등교육정책」, 「지역교육 계획의 이론과 실제」의 저수

대학입시제도는 중등교육의 본질 추구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그리고 선발의 과정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관점이나 논의하는 입장에 대해 어떤 것에 더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기능을 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대학교육의 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학입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회정의의 구현 기능은 중등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상당부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94학년 새 대학입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또 다른 대학입시제도를 제안한다는 것은 일선 학교나 학부모·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새 대학입시제도가 보완·발전되어 여기에서 제안하는 장기적인 대학입시제도 개혁 방안과 접목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기본구조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 그 구조 하에서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국가에서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대학입시제도 기본구조의 개편

고등학교가 주도하는 학생들의 진로선별기능을 갖는 대학진학 자격선발제도를 도입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진학 자격자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입시제도의 기본구조를 개편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학생들의 진로선별 기능을 갖는 대학진학 자격선발제도를 도입한다.

대학진학 자격 선발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율의 절대 기준에 터하여 최소한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력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선발(대학진학 자격 선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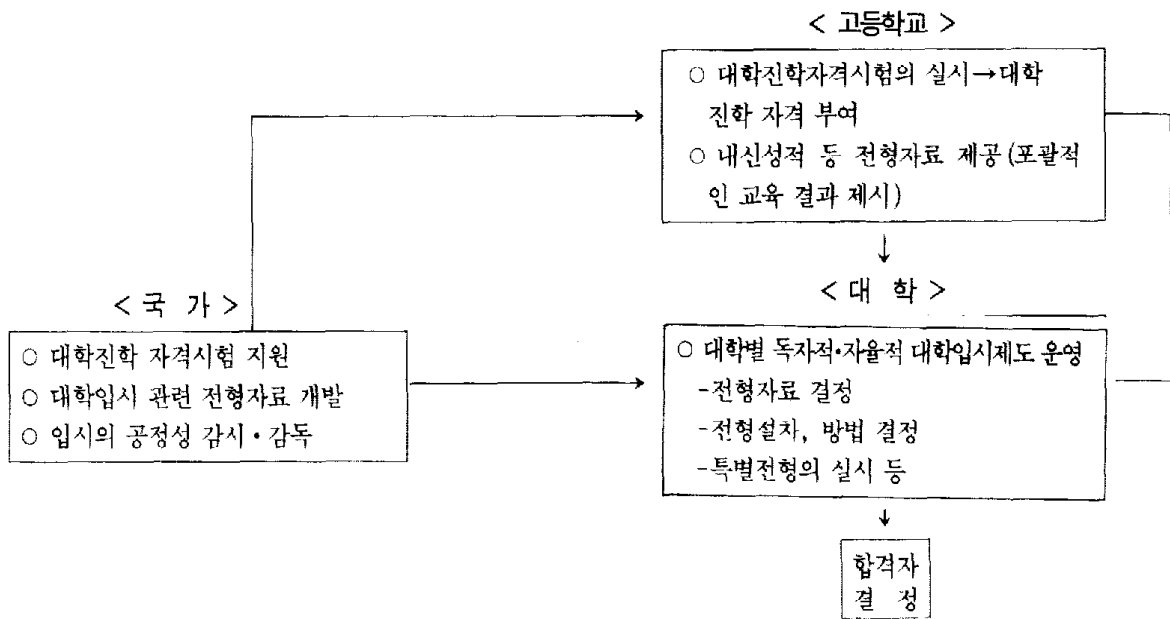
있음)으로써 학생들의 고등학교 전교육의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국적인 고사를 실시하여 선발한다.

-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진학 자격선발제도를 통하여 선발된 대학진학 자격자를 중심으로 대학입학자를 선발하는 것은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일임한다.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에서는 다음에 예시하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독자적인 선발 준거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대학진학 자격을 획득한 학생 중에서 각 대학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격자를 자율 재량으로 선발할 수 있다.

-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결과(전학교 교육의 결과)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 학생의 특기할 만한 과외/특별활동 등
- 학교의 추천서(교장 또는 교사)
- 학생의 자기 소개서 또는 진로계획서 등
- 기타 전문평가 연구기관이 개발한 시험결과 등



< 장기적인 대학입시제도의 기본 구조 >

- 국가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진학 자격선발과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도록 감시·감독하여, 이러한 기능을 지원해 주는데 그쳐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전문평가기관 등을 통하여 대학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개발·제공해 주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이러한 전형자료의 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자격 선발제도 도입

고등학교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진학 자격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과 대학진학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학진학 자격을 부여한다.

단, 대학진학 자격선발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산업대학 등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진학 자격선발은 고등학교의 전체교육 결과를 반영하는 내신성적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학력평가(자격선발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자격선발제도에서 자격선발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전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대학진학 자격선발시험의 형식은 교과와 성격에 따라 차이를 두겠지만 적어도 총점의 절반 정도는 주관식 문제로 구성하여 현행 고등학교의 객관식 일변도 평가 풍토가 개선되도록 한다.
- 대학진학 자격선발시험은 국립교육평가원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책임하에 전국적으로 일괄 실시하고 시험의 관리와 채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진학 자격선발시험은 가능한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분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시험을 분리할 경우 주관식은 3학년 1학기(5월경) 중, 그리고 객관식은 2학기(10월경)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관식의 채점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대학의 독자적인 대학입시제도 운영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진학 자격선발제도를 통하여 선발된 대학진학 자격자 중에서 대학들이 대학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모든 대학들은 독자적인 대학별 대학입시제도를 구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이 때 구체적으로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과 성격에 부합하는 대학입시제도를 구안·운영함으로써 그 대학의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한다.  
대학별 독자적인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선발의 준거와 기준, 전형방법과 절차 그리고 전형시기까지

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모든 대학들이 그 대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학입시제도를 구안하기 위하여 1994학년부터 시행되는 과도기적인 대학입시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전형자료의 타당성과 신뢰도,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수학의 예언도 등을 연구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학교육 수요자가 감소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대학간 선의의 자유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특색있고 합리적인 대학입시제도를 구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모든 대학들이 대학입시제도 운영의 자율화에 대비하여 입시업무와 입시관련 연구 등을 관장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별 학생선발 시기의 자율화와 그에 따른 학생들의 대학지원의 다변화 등에 대응하여 입시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4. 국가의 대학입시 간여(干與) 최소화

대학입시제도 관리·운영을 입시 당사자인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돌리고, 국가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대학진학 자격선발제도 운영과 대학의 독자적인 대학입시제도 운영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대학입시와 관련된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도·감독하는 데만 간여하도록 한다.

국가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국가에서는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자격선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와 선발시험문제의 개발, 그리고 그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이러한 제도정착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국가에서는 고등학교의 교육결과(내신성적 등) 이외에 대학이 학생선발의 전형자료로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특히 질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주요한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를 대치할 수 있는 교과별 학력고사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이를 대학이 활용하도록 한다.

- 대학입시제도의 자율화에 발맞추어 국가에서 국립 교육평가원을 민간 기구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대학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이나  
암기위주의 학습방법으로는  
도저히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도록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이 시험을 문제은행 형식으로  
운영하고, 시험은 학생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 5. 새 대학입시제도의 보완·발전 방안

1994학년도부터 새로이 실시되는 대학입시제도를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대학 입시제도로 발전해 가는 준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도기적인 제도로 보고, 이 제도가 앞에서 제안한 대학입시제도 장기 발전 모형에 부분적으로 근접해 가도록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단편적인 지식이나 암기위주의 학습방법으로는 도저히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도록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이 시험을 문제은행 형식으로 운영하고, 시험은 학생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내신성적으로 대학입시 실질 반영률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내신성적이 대학입학 전형에 주 자료가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신성적의 산출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학들이 전형 자료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대학별고사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부여와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제도 운영의 관점에서 새로이 부과되었지만, 이 시험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한다. 한편, 대학별고사가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문제 출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가능하다면 대학별 출제는 물론 대학별고사가 지양되도록 한다.

- 1994학년도 새로이 시행되는 대학입시제도에서 전·후기 구분하여 10일 범위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입학 전형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고 있는 자율성을 장기적으로 전·후기 구분없이 일정기간(12월~익년도 2월까지 약 3개월이내)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시기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 1994년 새 대학입시제도에서는 수험생이 전·후기 학생선발 시기내에서 일자가 다른 모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입학전형 시기의 자율화에 따라 보다 많은 대학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의 학생선발시기의 자율화와 학생의 대학지원 다변화에 따른 입시업무의 혼란과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대학지원 업무를 대행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대학의 입시업무 전담부서와 연계 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한다.㉞

# 고등교육체제의 개혁을 통하여

임 연 기



임 연 기

- 공주사대 교육학과 졸업
- 동국대 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
- 본원 교육계획연구부장
- 「대학 성원정책의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의 반성과 비판」

## I. 입시위주교육과 고등교육체제와의 관련성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먼저 그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체제의 유형 또는 구조를 기술한 기존의 문헌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영역을 논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전체 교육 체제 중에서 고등교육의 위치, 둘째, 고등교육 주요 기관의 유형 및 각 유형의 목적, 기능 그리고 프로그램, 질, 명성 등의 차이, 셋째, 고등교육에의 접근과 선발방법, 넷째, 수학기간, 이동 가능성, 수여 학위 유형, 학위 단계, 다섯째, 고등교육의 총량 규모와 기관 유형별 배분 규모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영역들은 고등교육체제의 유형 및 특성의 확인뿐만 아니라 체제 개선을 위한 대안 탐색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입시위주교육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들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 유형의 고등교육체제 모델을 상정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모델을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지을 수 있다.

〈표 1〉 고등교육체제 모델

구분	I형	II형	III형
대학 신입생 선발 시기 및 양식	• 고등교육 입학 이전 교육의 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선발	• 대학입학시점에 서 엄격한 선발	• 대학입학시점에 서 느슨한 선발
대학입시 경쟁양식	• 고등교육 입학은 평범한 이동 (non-dramatic transfer)에 불과함	• 대부분의 중등교육 졸업자가 고등교육에 지원 하여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짐	• 대부분의 중등교육 졸업자가 지원하나 입학 시점에서의 경쟁은 느슨함
고등교육 정원정책	• 통제	• 제한적 통제	• 개방
고등교육 기관의 성취기준	• 대학간 격차 극소	• 대학간 격차 심함	• 대학간 기능 분화 • 다양화
대표적인 나라	• 독일	• 한국, 일본	• 미국

위의 표에서 I형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교육 팽창의 과정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갖춘 중등교육 졸업자가 늘어나 대학입학 허용 인원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II형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신입생 선발은 한 시점에서 엄격히 적용되는 선발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높은 교육열과 교육을 통한 지위 상승 욕구 때문에 선발의 결과를 합법화하기에 충분한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항상 제기된다. 이는 대학입시제도의 불안정성으로 노정된다. 그리고 치열한 입시경쟁은 지나친 암기 학습, 교육의 내재적 가치 경시, 협동성 부족 등의 교육적·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I형과 II형은 특히 교육팽창의 과정에서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점차 III형으로 접근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I형의 특징은 고등교육 기회의 개방, 폭넓은 이동의 허용, 결손 학생에 대한 보상 교육기회제공, 고등교육 구조의 분화, 평생교육의 보장 등에 있다. III형의 체제에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게 된다. 전통적인 일류대학, 인기학과가 존속하지만 항상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이르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전통적인 일류대학, 인기학과가 아닌 대안적인 교육의 길도 잘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입시위주교육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입시위주교육은 고등교육체제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II형에서 III형의 고등교육체제로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장기적으로 III형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입시위주교육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 II. 현행 고등교육체제의 특성

앞의 고등교육체제 모델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현행 고등교육체제의 특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체제의 획일성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외형상으로는 비교적 다양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각 유형간 기능의 분화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유형들이 지극히 하나의 모델을 좇아 변화해 오고 있다.

고등교육체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 4년제 대학이기는 하지만 고등교육체제가 지나치게 4년제 대학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이 4년제 대학의 모델을 추종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각 유형간의 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일한 유형의 기관간의 특성은 더욱 획일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와같이 모든 고등교육체제가 전통적인 4년제 대학 모델을 추구함으로써 고등교육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인문위주 교육이면서 학문지향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다소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고등교육에서 전문교육, 특히 전문직업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고등교육체제의 획일성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이 인문위주, 4년제 대학위주로 편향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거나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뚜렷한 목적의식이 결여되고 분화되지 않는 과열된 입시위주교육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고등교육체제의 단층성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체제가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는 가운데 고등교육기관의 유형간, 기관간 서열화가 뚜렷이 고착화되어 있다.

동일한 유형 내에서의 기관간,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학과간 서열화도 심각하다. 전국의 대학이 대학입학성적 점수대와 연계되어 서열이 매겨지고, 이 자료는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과 학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진학했는가 개인 의 장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대학입학성적은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험자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가 모두 힘을 합쳐 입학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이러한 단층화가 존속하는

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진학하려는 입시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고등교육체제의 폐쇄성을 지적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유형간, 기관간, 동일 기관 내에서의 학과간 학생들의 수평적, 수직적 이동이 거의 막혀 있다. 즉, 편·입학과 전과가 쉽지 않고, 학점교환 이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체제의 서열화가 고착되어 있고, 고등교육기관의 정원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전통적 고등교육체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 개방적인 비전통적 고등교육체제가 확충되었으나 이러한 기관 역시 완전한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로는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수요자가 개인의 형편이나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체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체제 속에서 한번 결정된 진학의 진로는 쉽게 변경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무리한 진로결정이 이루어지고 집중적인 과열 입시경쟁이 유발되고 있다.

넷째, 고등교육의 질적 관리가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 고등교육기관은 입학시에는 엄정한 선발의 과정을 거치지만 일단 입학만 하게 되면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의 선발이 전무한 상태이다. 즉, 입학시에는 철저히 질적인 선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학후에는 질적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을 낭만적인 곳으로 판단하게 하거나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여부에 대한 진지한 판단없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일정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고교 졸업생에 한하여 대학입학시험 자격이 주어지기보다는, 입시성적 순으로 입학정원을 채우는 현재의 선발제도 하에서 대학 진학의 거품 수요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고등교육체제에서의 교육적 선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교육경쟁이 하급 단계인 중등교육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 III.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기본원칙과 과제

입시위주교육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체제의 적절성 제고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적절성이란 고등교육이 지향하는 이념과 목표, 구조, 학사관리, 교육내용과 방법 등 일련의 고등교육체제의 존재 양식이 그 사회에 있어서는 물론 교육 수요자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체제는 사회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정치·경제적인 상황 변수 등에 따라 그 존재 양식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등교육체제는 이러한 상황 변수에 적응하여 고유한 존재 양식을 갖게 되며, 독자적인 적합성을 갖게 된다.

입시위주교육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목표를 '사회적·교육적 적절성의 제고'라고 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 개편의 기본원칙은 고등교육체제의 다양화·개방화 그리고 그 운영의 자율화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고등교육체제는 양적인 측면에서 대중교육체제를 지향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고등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다양성이 조장되어야 한다. 향후 탈 산업사회에서의 다원주의를 수용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다.

즉,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이 독자성·특수성을 지니면서 다양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지향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중등학교에서도 합리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교육수요자도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고등교육기관을 겨냥하여 입시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체제가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고등교육체제가 폐쇄적이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고등교육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체제를 개방해야 한다. 물론 고등교육체제가운데 일부 대학은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 기관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대중적인 고등교육 기

회 확충을 위하여 개방적인 고등교육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대중 고등교육체제에서는 질적인 수월성을 강조하는 고등교육기관과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고등교육기관이 공존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체제의 개방은 입학에 있어서의 개방을 의미하며, 졸업에 있어서의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고등교육체제의 다양화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고등교육체제를 완전 개방체제로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고등교육의 질관리 측면에서 입학 개방화되고 졸업에 있어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중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고등교육 기회가 언제 어디서나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질을 강조하는 고등교육기관, 그렇지 않은 고등교육기관이 공존하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의 고등교육 선택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고등교육체제가 다양화·개방화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율성은 다양화·다원화되어 가는 민주사회의 존속에 기본적인 조건이다. 특히, 입시위주교육 해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등교육체제의 자율성은 학생선발과정, 정원의 책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서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다. 고등교육체제 운영의 자율성 보장은 그 자체로도 중요성이 크지만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 조장을 위한 간접적 전략 중의 하나인 것이다.

고등교육체제의 개편은 이상과 같은 원칙 하에서 고등교육 유형의 다양화,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고등교육체제 운영의 개선 그리고 고등교육 정원관리의 개선 등의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고등교육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비전통적인 고등교육의 유형을 개발해야 하는 데, 그 대안으로서 기존의 대학에 부설로 설치하는 단기 직업과정을 확충·정착화시켜 고등학교 졸업생의 10~2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자(engineering technologists)를 양성하고, 실업계 고졸자 또는 일반계 직업과정 이수자의 진학수요를 흡수시키기

위하여 공업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기술대학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체제 유형간 기능상의 분화를 도모하고, 각각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저마다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기관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당국은 모든 대학들이 독특한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은 기관의 특성화 계획에 연계하여 제공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직업 중심의 전문대학, 직업교육과 교양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형 전문대학 등으로 다양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시킨다.

고등교육체제의 운영 측면에서도 다양화, 개방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특히 유사학과 공동운영제, 복수전공제의 확대, 전과 및 편·입학제 확대 등을 통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들이 고등교육체제 유형간, 고등교육기관간에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이와 함께 계속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가운데 다학기제, 이부제 수업 운영 등을 통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끝으로 고등교육정원규모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수요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원관리 방법을 개선한다.

모든 국민이 희망할 경우 항상 고등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원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방송통신 대학과 산업대학은 조기에 희망자 전원의 완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대학은 90년대 말에, 4년제 대학은 2000년대 초에 개방시킨다. 한편, 고등교육정원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자동 조절되도록 하고, 아울러 고등교육기관의 질적관리 노력과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자극하기 위하여 정원결정의 자율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고교체제의 개혁을 통하여

김 홍 주



김 홍 주

- 중앙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중앙대 사범대학 대학원 졸업
- 본원 교육계획연구부 선임연구원
- 「대학입시정책 평가를 위한 준거 체제 탐색」 외

## 1. 기본입장

현재 우리의 상황은 대학입시를 준비하여 얻게 되는 교육의 결과가 학생의 지·정·의 능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초 학교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상당히 유리되어 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실제 대학입학에 성공한 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과연 대입적격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상당수가 탈락하는 현 상황에서 대입에 실패한 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획득된 능력만으로는 마땅히 사회진출의 활로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들 때문에 우리의 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입시위주교육은 결과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제도, 특히 선발의 기준과 시험 내용·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선발기준간의 연계성이 약할수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의 입시준비과정이 성행하게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는 고교교육 자체의 문제로서 고교교육 스스로의 체제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교교육은 어쩔 수 없이 대학입시에 의해 영향받게 되어 있지만 고교교육의 전반적인 교육과정(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임) 활동에서 얻어진 능력의 결과가 개인의 적성에 부합하며, 지·정·의의 조화로운 능력이어야 하고, 대입제도는 그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어 그 결과에 의해 대입 적격자를 선발할 때 고교교육의 정상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시위주교육 해소도 결국 현재와 같은 과도한 입시경쟁하에서는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즉, 입시경쟁이 지나치면 입시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부각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대입 전형상에서 이들에 대한 시비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종합적인 지·정·의 능력 평가 보다는 객관적으로 단편적인 지적 능력 평가가 성행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식으로든 입시경쟁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에는 대입경쟁의 심화가 결국 대학교육 수준의 지나친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육의 공급을 확대하는 접근과 대학교육의 수요를 분산·감소시키는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체제내에서 대학교육의 공급을 확대하는 접근은 결국 대학교육 체제 문제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것이고 대학교육의 수요를 분산·감소시키는 접근은 결국 고등학교체제(크게는 중등교육체제)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체제를 통한 입시위주교육의 해소대책을 탐색한다는 것은 고교체제의 개선을 통해 대입수요를 분산·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입시경쟁의 정도가 약화되어 이는 결국 입시위주교육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배경에 의해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선에는 대입수요를 분산·감소시키는 것 이외도 고교교육 자체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평가체제 개선이 포함된다. 즉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체제의 개선은 교육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입시위주교육 해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교의 교수-학습체제 및 교육과정체제 개선을 통한 입시위주교육 해소방안은 별도의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고에는 고교에서의 교수-학습 혹은 교육과정체제에 대한 개선방안 탐색을 위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 2. 우리 나라 고교체제의 특성과 문제

일반계와 실업계로 분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교는 계열간 교육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다르며, 더욱이 일반계고교 입시제도와 실업계고교 입시제도가 달라 일반계고교 학생과 실업계고교 학생간의 상호 평행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복선형에 가까운 학제를 이루고 있다.

즉, 이와 같은 고교체제의 복선적 운영은 결과적으로 학제상에서 학생의 진로 결정시기를 중학교 졸업시로 고정시켜 놓는 특성을 낳게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공식적인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은 교육법 제104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나 '고등학교 학칙 준칙'(교육부 훈령 제477

호) 제1조를 보면 소위 실업계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라 총칭하고 있음)는 고등 보통교육을, 실업계 고등학교는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우리 국민들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보다는 대학진학에 훨씬 유리한 일반계 고교를 선호하고 있고, 일단 일반계 고교에 입학하면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위주교육을 당연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시위주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의 고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와같은 고교체제의 복선적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제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일반계고교 입시제도와

### 실업계고교 입시제도가 달라 일반계고교

### 학생과 실업계고교 학생간의 상호

### 평행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복선형에

### 가까운 학제를 이루고 있다.

한편 입시교육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고교체제의 문제를 분석한다고 하였을 때 그 문제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첫 번째 물음은 "현 고교체제는 대학입학 수요를 분산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체제인가?"이고, 두 번째 물음은 "현 고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체제가 바람직한 고교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헌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기본입장에서도 밝혔듯이 이 글은 고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체제를 제외하고 오로지 학제상에서의 고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에서 제기한 첫 번째 물음에 의해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일반계 고교 중심의 고교체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계 고교의 교육목적이 법규적으로 혹은, 교육철학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져야 하는가와 상관이 없이 현재 우리의 일반계 고교의 목표는 자기 학교의 학생을 최대한 많이 대학에 입학시키되, 가

능하면 좋은 대학(소위 일류대학)에 더 입학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일반계 고교가 많으면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 입시위주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중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고교 중 일반계 고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이며, 일반계 고교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로서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비중은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이와같은 일반계 고교 중심의 고교체제 운영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교학생의 비중을 높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학진학 단계에서 병목현상을 가중케 하고 나아가 대학진학 수요를 확산 혹은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입시위주교육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고교체제운영의 유연성이 미흡하다. 우리 나라의 학생은 고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진로를 변경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즉,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간의 학생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실업계 고교체제내에서도 계열간 학생 이동이 거의 어렵다.

특히 우리의 고교체제 중 실업계 고교는 일단 취업을 위한 학생만을 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고교 졸업생들에게 계속 교육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는 단절된 종국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실업계 고교로의 진학 기피현상을 가중케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고교체제는 중학교 졸업 단계에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획일화된 체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고서도 개인 적성변화에 의해 다양한 실업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거나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서도 대입준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체제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교체제의 유연성의 미흡은 고교생의 대학입학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히 대입경쟁을 일시에 과열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여 입시위주교육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비진학자 일반계 고교생에 대한 직업교육체제가 미흡하다. 1992년 현재 당해년도 일반계고 졸업자

중 약 49.4%만이 대학진학에 성공하고 나머지 50.6%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반계 고교졸업자 중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졸업자의 13.5%로 약 6만 2천명에 이르러 이들은 입시위주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학생이라고 볼 때 상당수가 교육적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계 고교에서 대학진학 미희망자들을 위한 별도의 진로지도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때문에 최근 일반계 고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학생들 중 직업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과정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1,058개 일반계 고교 중 불과 209개교에만 설치되어 2만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어 동과정 이수를 원하고 있는 학생의 약 40%밖에 직업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일반계 고교의 비진학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부실은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대학진학 이외의 다양한 진로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부득이 입시위주교육 현장에 방치되게 만들고 있다.

넷째, 실업계 고교의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1992년을 기준으로 중학교 졸업자 중 모두 317,503명이 실업계 고교에 지원하였으나 이중 248,382명만이 합격하고(입학정원 266,121명) 69,121명이 탈락하여 평균 1.28:1의 입학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실업계 고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 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전체 69,121명 중 일부는 연합고사 성적에 의해 처음부터 원치 않았던 일반계 고교에 강제 입학당하고 있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어 대학입시 경쟁을 가중케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고교단계에서의 대입 병목 현상을 유발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교체제가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도 처음부터 대학진학보다는 실업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조차 그 교육 기회를 다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서 현 고교체제의 가장 큰 맹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실업계 고교의 입학경쟁률이 오히려 일반계 고교의 입학경쟁률 1.07:1보다 더 높다는 사실은 그 동안 우리의 고교체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업교육 수요조차 원활히 공급하지 못해 왔다는 가

장 큰 증거로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고교체제는 대학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에게 더 많은 고교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오히려 실업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보다 적은 고교교육 기회를 제공해 온 셈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교체제 스스로 대학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창출하는 과오를 범하여 대입경쟁을 더욱 조장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실업계 고교의 진학 유인가가 미흡하다. 중학교 졸업생들 중 일반계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계 고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대학진학 수요를 분산·감소시킬 수 있어 입시경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왜 중학교 졸업자들의 실업계 고교로의 진학 희망이 증대되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대학진학 욕구가 강해서이기 때문이지만 실업계고교 체제 쪽에도 문제가 있다. 즉, 실업계 고교의 유인가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실업계 고교의 최대한의 유인가는 졸업후의 적절한 취업보장으로 볼 수 있는데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은 1992년 현재 89.1%로서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서도 취업하지 못한 학생이 25,159명이 이르러 아직도 그 취업률의 제고가 더욱 필요한 형편이다.

이밖에 실업계 고교의 현 계열별 학생정원 배분이 학생들의 계열별 입학 수요를 적절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실업계 고교 진학 유인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즉, 현 실업계 고교 중 입학경쟁이 제일 높은 계열은 예능계(일부 실업고에 전공분야로 이들 과정이 설치되어 있음)와 공업계이나 실제 실업계열 고교 중 이들 고교계열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상업계 고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더 높다.

즉, 예술계 혹은 공업계 고교의 증설로 이들 학생의 실업계 고교 진학을 적극 유도하지 못한 점 역시 실업계 고교의 진학 유인가를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계고교의 진학 유인가를 저하시키는 근본

요인은 아직도 실업계 고교만을 졸업하고서도 사회에서 떳떳한 직업인으로 생활하기 어려우며 이들이 아직도 대졸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 구조에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 3. 고교체제의 개선방안 탐색

#### 가. 후기 중등교육 단계의 다양화

원칙적으로는 학교를 다양화시키는 것 보다는 개별 학교내에 과정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학생의 학교 선택 기회의 폭을 넓혀 그들의 적성과 능력의 다양한 개발·신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대학진학 아니면 취업이라는 단순 기준에 의해 일반계, 실업계로 2분류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대학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학교, 대학진학 준비교육 위주의 학교, 직업 교육 위주의 전문고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고교단계와 전문대학을 통합한 직업기술교육 위주의 학교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이 고교단계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조치는 결국 일반계 고교 위주의 고교체제에서 탈피하여 지나친 대학입학 수요를 분산·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상적으로 보면 종합대학에서 교양과정 이수 후 여러 계열학과가 분류되어 자유롭게(전과는 어렵지만)코스를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듯이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초 공통과정 이수 후 여러 교육계열 및 과정을 분류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진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와같이 코스변경이 자유로운 새로운 형태의 실질적인 종합고교를 신설 혹은 기존 학교의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후기 중등교육기관의 다양화 차원에서나 혹은

실업계 고교의 진학유인가를 높이기 위해서도 5년제 고등전문학교의 신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실업계 고등학생의 일부는 대학진학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어 대학진학 욕구가 살아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시 실업계 고교 진학 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이를 고교에 입학하면 그 이후 대학접근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실업계 고교 진학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 전문교육을 위주로 하는 고등학교 과정과 이들의 대학 진학 요구를 해소하여 주는 초급대학 과정을 통합운영하는 새로운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면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는 고교 졸업장과 전문대학 수준의 대졸 학력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어 실업전문교육을 활성화시켜 결국 4년제 위주의 대학진학 욕구를 분산·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진로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진로지도체제의 구축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일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더욱이 우리와 같이 인간 자원에 의존하여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적 수준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 입시 경쟁이 어느 나라보다도 치열하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선택한 전공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거나 방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우리의 교육체제가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별하여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확립해 줄 수 있는 진로지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선택과 학교간, 계열간, 학생이동을 최대한 개방토록 한다. 그리고 진로변경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진로지도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진로탐색과정을 두어 진로지도기능을 부여해야 하며 학교별로 진로지도 위원회와 상담실을 두어 관·산·학 종합 컴퓨터 정보망으로 연결케함으로써 진로지도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진학지도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진학적성과 능력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표준화 학력고사를 수회 실시함으로써 대학진학적성과 능력미보유자들의 무리한 입시교육 참여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활성화

대학진학 준비교육을 위주로 하는 일반계 고교가 반드시 대학진학 의사를 가진 학생들만 수용해서 교육시키고 있지만은 않다. 즉 비록 일반계 고교에 입학은 하였지만 실업계 고교 진학에 실패해서 부득이 입학한 학생들도 있고, 아울러 중도에 대한진학보다는 취업이라는 진로를 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은 비록 일반계 고교에 수용되어 있지만 직업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비진학자에 대한 직업과정에서 희망자를 전원수용할 수 있도록 직업 과정을 증설 및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전원 실업계 고교로 전학시킬 수 있는 제도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을 활성화시킬 때 여기에 필요한 교육예산 및 교육시설·설비 가능한 한 전액 정부가 부담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들의 운영체제 역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 라. 실업계 고교의 수용능력 확대 및 진학유인가 제고

중학교 졸업자 중 실업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전원 실업계 교육체통의 학교(실업고, 고등전문학교) 또는 과정(종합고교의 실업과정,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

정)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이들 학교(과정)의 학생 수용능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고교 입학 상황을 보면 일반계 고교 입학경쟁률보다 실업계 고교 입학 경쟁률이 더 높다. 즉 고교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의 수요 공급 격차가 대학진학 준비교육의 수요 공급 격차보다 크다. 이는 대학입시교육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대입요구를 감소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실업계 고교의 입학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실업계 고교 진학 희망자가 크게 증가해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실업계 고교의 학생수용능력이 충분치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교 단계에서의 취업을 겨냥한 실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모두 학교가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도 대학진학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실업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교육적,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 계획(인문 대 실업의 학생 비율을 50대 50으로 바꾼다는 계획)은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50대 50이라는 비율은 너무 경직된 목표라고 생각된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인위적으로 일반계열의 고교를 축소하면서까지 실업계 고교를 확충하면 일반계 고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중학교에서의 일반계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교육이 예상되고, 나아가 일반계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과외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교 진학 단계에서의 재수생 증가가 예견된다.

둘째, 인문 대 실업 비율을 50대 50으로 바꾼다는 정책이 실현되는 경우에,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을 실업계 쪽으로 간주하면 45대 55, 혹은 40대 60으로까지 일반계열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일반계 고교 졸업자수가 현

대학입학 정원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대학정원 미달 사태와 아울러 고등교육의 혼란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

따라서 50대 50의 인위적인 비율이 아닌 실업계 진학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는 차원에서 확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인위적으로 실업계열의 고교를 확대해 나가는 경우에 실제 이들 고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늘지 않으면 실업계 고교의 미달 사태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급격한 실업계 고교 증대는 결과적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난을 가중시켜 실업계 고교의 유인가를 낮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증설은 일반고교와 달리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진학수요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증설하는 것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업계열 고교들이 좀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교들로 보일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특별전형제 확대, 장학금 수혜율의 확대 및 수혜액 증액, 산학협동강화, 취업률 제고 등의 조치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실업계 고교에 하나의 교육계열만을 운영하는 경직된 계열 운영을 탈피하는 것도 실업계 고교 진학 유인가를 높이게 할 수 있다.

즉 종합실업계 고교 같은 형태로 여러 실업계열을 동시에 개설 운영하는 고교로의 개편은 실업계 고교의 진학 유인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

# 교수·학습 평가의 개혁을 통하여

김재웅



김재웅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본원 연구조정부장
- 「한국교육정책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미국 대학생 중도 탈락」 등 논문 다수 발표함.

우리의 학생들은 남해안을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순신 장군'이라고 답을 해야 점수를 얻고 따라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남해안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생각한다든지 혹시 묻혀 있을 지하자원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고향을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어도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교과서에 나는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생각했다라는 귀절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3학년짜리 딸이 최근에 틀려온 음악 문제 중에 "음악감상곡 '위모레스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악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다. 정답은 '바이올린'이었다고 한다. 피아노 레슨을 통해 이 곡을 연주해 본 경험이 있는 딸은 고민해 보지도 않고 자신있게(?) '피아노'라고 답을 했다.

사실 이 곡은 드보르작이 원래 피아노를 위해 작곡한 것을 누군가 바이올린을 위해 편곡하였고, 그 이후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더 많이 연주되고 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딸은 피아노 레슨 시간에 배운 대로 '피아노'라고 답했던 것이다.

'위모레스크'를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악보가 주어지면 연주까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이 그런 능력은 없으나 문제집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 보았던 학생에 비해서 음악시험에서 더 나쁜 점수를 얻게 된 셈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으로 위에서 소개한 것과 같은 시험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도 일종의 관성이란 것이 있어서 변화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및 평가에 일대 혁신이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러한 학생들이 나와 일을 해야 하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전제 하에 1)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2)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3) 교육평가 방식의 개선, 그리고 4) 학교장의 교육 지도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1.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일과 그것을 잘 운영하는 일은 별개의 것이다.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왜곡 변형되면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과정은 본래 의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 입학시험 성적에서 내신 성적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을 높여야 하는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대학 입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대학 입학 시험에서의 비중이 큰 과목들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포함된다. 입시위주 교육의 해소는 곧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는 실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로 공포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이므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별 배당시간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특별활동 및 예·체능 교과의 변칙운영 등에 대한 장학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대학입시 위주의 수업운영을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학생들이 획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충학습을 완전 금지한다. 특히 보충수업 시간에 정규시간의 연장으로 교과의 진도를 나가는 것은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근절하도록 한다.

대신에 보충수업은 희망학생에 한하여 교과별로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반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실제로 보충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에 한하여 말 그대로 '보충수업'의 기회를 제공하지는 것이다.

셋째, 과도한 조조(早朝), 심야(深夜) 자율학습을 폐지하여 더이상 '집에 다녀오겠습니다.'란 인사가 학교에서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학생들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학습이 되도록 유도한다.

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율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실, 도서관 등 학습장소를 제공한다. 한편, 자율학습을 방자하여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철저히 방지하도록 한다.

## 2.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

그것이 암주식(암기 주입식)이든 암죽식(암죽 먹이 기식)이든, 현행 수업 방법으로는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 경쟁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가 없다. 기술 모방에 의지하여 경제 발전을 꾀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창의력을 기르지 않고는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교수-학습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경험이 보다 의미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단편 지식을 아무리 잘 암기하여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식은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에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각 교과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모종의 이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은 그 교과가 어느 교과이든지 상관없이 또 학생의 진학여부와 상관없이, 잘 가르쳐지기만 하면 학생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공부를 죽도록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것이나,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첫째, 주입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수-학습 방법을 청산하고 토의식, 질의 응답식, 발견학습식 등 창의력을 신장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창의력은 실제로 새로운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우리의 학교 교육체제는 유치원 또는 유아원 시절에 질문이 가장 많고,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질문이 없어지는 (또는 질문을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체제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둘째, 상상력이 풍부한 청소년들의 '엉뚱한' 질문을 수용할 수 있는 수업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사실 질문은 학생의 현재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학생들의 질문을 중시하고, 그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다.

셋째, '교과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수 모형이 교과 별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 및 교육공학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적극 활용한다. 과학 및 실업 계통의 과목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TV, VTR, OHP (overhead project) 등의 교육공학 기자재의 활용으로 수업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특히 어학 교과시간에는 TV 및 VTR 활용을 필수화한다.

넷째, 학급내 소집단을 구성 운영하여 가정교사식 수업 방법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 방식을 통하여 수업의 과정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수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에 따라 능력에 따른 소집단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음은 물론 이것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최대한 개발·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위의 대한 대안들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지금 상태에서라도 입시위주교육을 하지 않고 '열린교육(open education)'을 실시하겠다는 학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교들은 대학을 안 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창조적이고 협동할 줄 아는 인간이 임금을 조금 받고 지위는 높지 않음지 몰라도 사회에 보다 많은 공헌을 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조혜정, 1991). 이러한 학교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이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교육평가 방식의 개선

교육 평가는 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 그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학입시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하급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변화시켜 보자는

생각은 평가의 후자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여기에서의 교육 평가는 주로 학교 및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를 가리키는 바, 이 평가의 영역과 방법이 입학 시험 제도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평가는 베이트스(Bates)의 표현대로 '교육적 평가'가 되지 못하고 '관리적 평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잦은 시험으로 학생들은 몸과 마음이 찌들어 가고 있으며, 평가의 내용 면에서도 단편 지식 위주의 주지주의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어서 전인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시험 결과가 상대 평가화되어 다른 학생들과 비교됨으로써 학생들과 경쟁 의식이 조장되고 있다.

“

교육 평가는 주로 학교 및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를 가리키는 바, 이 평가의 영역과 방법이 입학 시험 제도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

더 나아가 대부분의 시험지는 입시전문회사에서 제작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친 것을 평가하지 못한 채 평가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전인 교육의 이념에 부합하고, 교육적인 기능을 충실히 하며,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에서의 평가는 학생의 성적 평가뿐 아니라 프로그램 평가, 교사의 교수활동 평가, 교장의 지도성 평가, 학교 풍토 평가 등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흔히 교육의 성패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교수활동 빈약이 학생의 낮은 학업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평가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둘째, 지적 영역 평가 중심 평가에서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지적 영역 평가의 경우에도 단편 지식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고등정신 기능의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험의 횟수를 대폭 줄인다. 즉, 시험은 총괄 평가로서 학기말과 학년말에 2회만 실시하도록 하며, 형성 평가로서의 시험을 보장한다.

형성평가로서의 시험은 석차를 매겨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성 평가는 학습 목표 달성도 확인뿐만 아니라 학생이 그 교과에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미진한지 파악하여 그것을 교정해 주는 기능도 아울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습 진도에 따른 절대 평가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교사의 이러한 활동은 단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의론(教育正義論)'에 입각하여 각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넷째, '4지 택1식' 객관식 위주의 시험은 교과에 특성 따라 논술식·실험·실기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평가의 방법이 교수-학습 방법과 내용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수학의 문제 해결력이나 과학의 탐구 능력을 객관식 검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도외시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과학(수업) 수업 시간에 교수-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같은 관점에서, 예체능 교과에 실기 평가 방법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이 요구되며, 도구를 평가 연구 전문 기관의 노력과 교사 집단의 실천사례를 종합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시산업에 의한 교육의 잠식을 막기 위해서 외부 시험지에 의한 평가는 근절되어야 한다.

현행 외부대행의 평가체제 하에서는 자기가 가르친

“

4지 택1식 객관식 문제 중심의 평가 관행이 왜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한 마디로 주관식 또는 실기식 평가 결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과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생들에 대한 평가의 과정에서 교사가 소외되어 있다. 평가에 관한 한 교사가 최종적인 결재자가 될 수 있도록(김성훈, 1992, p. 5),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 평가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정책 대안들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교육평가에 대한 연구 개발이 축적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 전문 기관에서는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김성훈, 1992, p. 21).

- 프로그램 평가의 방법 및 도구의 개발
- 각 교과에 절대적 평가를 위한 절대 기준의 상세화
- 절대 평가 문항 및 그 사정 기준의 개발
- 진단 및 형성 평가 문항의 개발
-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 및 도구의 개발
- 과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 및 도구의 개발
- 고차적 지식의 평가 문항 개발
-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 쇄신 연구

4지 택1식 객관식 문제 중심의 평가 관행이 왜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한 마디로 주관식 또는 실기식 평가 결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과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기 평가 기준과 서술형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학교때부터 주관식

평가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주관식 평가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신뢰감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교사 양성기관에서 서술형 또는 실기형 평가에 대한 과목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학교장의 교육 지도력 강화

최근 들어 학교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교사들이 순종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간섭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학교장의 지도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

학교장은 여전히 단위 학교의 지도자로서 학교의 교육적 풍토 조성, 비교육적인 외부압력에 대한 저항 등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의미의 학교 교장의 교육 지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학교와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그 학교의 대학 진학률(특히 일류대학 합격자수)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입시위주교육에서 탈피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장은 여전히 단위 학교의 지도자로서 학교의 교육적 풍토 조성, 비교육적인 외부압력에 대한 저항 등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의미의 학교 교장의 교육 지도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으로서의 학교장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이해는 그 파급 효과면에서 매우 크다. 그것은 학교 교육관의 올바른 정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중요

한 부분이다.

첫째,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장의 교육적 지도력을 강화한다. 예컨대, 교장들이 학교간 대학입학 실적을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수업 운영이 그 형식 면에서나(예컨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금지, 보충수업·자율학습의 교육적 운영 등) 내용면(창조적 능력 강조, 전인교육 강조 등)에서 종래에 해 오던 ‘입시위주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집단적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더 나아가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의 수호와 조장’이라는 학교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를 옹호하는 교육인가에 대한 끝없는 반성(反省)을 통하여 자기의 교육적 소신을 다져 나가는 한편, 그러한 교육적 판단을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시·군·구 단위에 한 학교씩 좋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임을 보여 줄 수 있는 모범학교를 선정·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범학교들은 교육의 한 영역에서 모범을 보여 주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여건, 교육내용, 교수방법 및 평가의 전영역에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이렇게 선정된 모범학교들은 정부, 지역사회, 육성회 등의 강력한 후원을 받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 교육외적 요인의 해소 대책

신 익 현

교육문제는 교육내의 관심사항이지 교육외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육에 관한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관련활동들이 교육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단지 교육안의 관심사항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우선 교육은 어느 조직이나 상황에서든 주요 활동으로 부각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교육체제는 전체 사회체제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체제와 전체 사회체제간에 서로 교환하고 있는 역할과 기대에 따라 입시위주교육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결점 모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교육을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라고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학교내 활동이 학교 밖에서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면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교육을 행하고 있는 주체인 학교 밖에서 입시위주교육 문제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문제 의식을 조관하고 그 해소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 익 현

- 공주사대 영어교육과 졸업
-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대학원 (철학박사)
- 본원 교육제도 연구원

##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교육외적 시각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입시위주교육 문제를 교육외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이해에는 교육외적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내용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

통상으로 문안의 문제와 문밖의 상황은 다르다. 교육이 진행되는 문안과 그것을 지켜보고 감시하며 필요하면 때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교육을 활용하는 입장에 있는 교육외적 환경은 어떠한 요인보다 더 입시위주교육 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고학력주의를 조장하는 기업체 등의 고용관행과 이러한 경쟁적 목표를 불모삼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교육산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환경 요인들은 그것이 둘러 싸고 있는 주체에 의해 인지되지 않으면 의미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교육외적 해소 대책은 환경과 그 주체 간에 존재하는 인지과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또한, 교육문제는 교육본연의 영역을 유지하는 선에서 고려되고 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육은 다른 영역에 종속된 것도 아니고, 부차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활동을 자생력있게 전개하는 독립적인 것이다.

##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교육외적 요인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든 우선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교육체제와 전체사회체제간의 교호 작용이 미흡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사회체제에서 교육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육체제의 조직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왜곡시킬만큼 심각하다. 승문위주 사회의식, 고학력주의, 학벌위주 사회생활질서 등은 교육활동을 파행적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고 있다.

반대로 교육체제는 가지고 있는 체제정체성, 가치관, 사명,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환경적 자극들을 상황과 처지에 맞게 여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 들여 문제의 심각도를 더하게 하고 있다.

둘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결과 중심 사고에서 나온다. 목표의 성격이 어떠한 간에 그 목표를 추구하는 의지와 그 의지로부터 자연적으로 표현되는 제 활동은 때로 그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목표를 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전개 과정을 음미하고 또 그 과정이 주는 교훈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세가 교육에서는 더욱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을 통해 성취해 내는 것이 일견 중요한 것처럼 보이나 학습 활동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졸업이 곧 능력이라는 등식이 주는 교육적 산출에 대한 과대 포장된 기대 효과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필사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 과정이 지나는 가치는 변색되고 그 수단적 의미를 교육활동에 연결시켜 생각해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다.

시카고 대학의 케리베키 교수의 이론을 통해 보듯이 대학 입학을 통해 얻는 사적이익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어떠한 금전적 투자나 경쟁도 아끼지 않는다. 내용보다는 우선 고학력이라는

결과를 얻어 놓고 보려는 결과 지향의 의지가 강하여 교양을 높이거나 학술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향학열은 찾아보기 어렵다.

적절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정당화하는 '어찌됐던 결과'라는 진리함수가 최고의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의식에서 조장되고 부추겨진다. 가족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근거한 사교육풍조는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교육외적 측면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과열과외의 주범이다. 나만은 또는 내 자녀만은 반드시 대학에 가야한다는 의지와 함께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습 기회만을 가지 고서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내게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

설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전체 사회 질서를 좀먹게 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허용되고 있는 교육적 혜택을 독점하여 누가 뭐라해도 그 목표는 반드시 내 것으로 하겠다는 개인주의가 풍미되어 있다.

넷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전체 사회체제가 교육적 기여도를 편벽되게 이해하고 교육결과를 균형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데서 연유되는 비가 없지 않다.

교육기능의 배타적 독립성 또는 독특성과는 무관하게 대학졸업이라는 결과를 절대가치시하는 데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대학졸업=능력'이라는 등식 속에서 대학졸업자를 선호하다 보니 능력이 있어도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직업시장에서 배척되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때문에 고졸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대학 진학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그에 부수되는 가수요까지 부추겨 기특이나 좁은 대학교육기회를 과도한 입시경쟁의 장으로 몰아 가고 있다.

다섯째, 입시위주교육은 교육에 대한 통제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여 나타나게 되는 면도 있다. 교육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다. 개인은 보편적인 성격보다 개별적으

로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구분된다. 즉,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상적인 교육활동이라면 개인을 기본 사고단위로 하고 이러한 독특성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가급적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게 해주어야 함이 교육의 도리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은 국가에 의한 단일 통제를 그 근거로 한다. 특히 입시제도의 운영에 있어 정부 일변도의 통제와 관리는 입시위주교육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획일적인 학생 선발 원칙은 과도한 상대적인 가치화에 치중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경쟁의식을 노출시키고 교육전쟁을 불사하게 만들고 있다.

##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해소는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이러한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 또는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로 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고 각각 문제에 대한 고유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시위주 교육 문제를 학교만의 책임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자기 책임영역을 인식하고 그 영역 안에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입시경쟁이 과도함을 누구나 인식해야 한다. 극심한 교육적 열망이 학생들을 지옥훈련에 임하게 만들고 있으며, 학생들의 근면성을 보도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예외적이고 신기하게 생각된 나머지 입시 실상이 소개되고 있는 해외토픽의 보도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학벌 위주의 사고 방식이 왜 나쁘며, 학력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승문적 전통 및 출세 지향적 사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다함께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입시위주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때 사회체제는 함께 노력하는 교육 실상을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인사 관행이 필요로 된다. 기업체 등을 위시하여 고급인력을 채용하려는 의지는 과열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3D풍조 탓도 있지만 기능공 부족 사태는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의 활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업을 비롯한 인력활용처에서는 인력활용의 닦을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향상성있게 유지해 나가는 관행과 실체가 아쉽다.

고학력이 능력의 척도는 분명 아니다. 고학력주의의 그 자체는 능력에 대한 순수한 포부이자 기대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고학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제도를 변경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한 뒤에 바뀌어야 하고, 입시제도의 운영에는 관련집단의 자율 의지에 부응하는 권한의 위임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입시에의 관련집단들의 전체적인 상호의존성을 존중하는 협조 풍조가 정착되어야 하고, 문제 해결 요구에 대응하는 실천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 요구에 맞추려면 무엇보다도 작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의 역할은 축소 지향의 책임 전가나 역할 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별된 문제를 놓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도성을 발휘하며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해소 방안

입시위주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검토 또는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고학력주의를 선도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시위주교육 문제 타파를 위한 거국적·범사회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입시위주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해결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관련

가치관 및 교육관 정착을 위한 범국민적 시민교육을 실시한다.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리는 정책을 펴 나간다. 생애 직업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며, 산학협동 차원에서 산업체 교육 훈련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학원이나 기타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 기회를 확충하고, 교육기관에 사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대학 학위에 준하는 자격과정을 만든다. 즉, 야간제 운영 확충·독학사제도 확대·통신 과정이나 방송수업 등 비정형 교육방법을 통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또한 정규 학교에 주말과정이나 기타 단기교육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이와 아울러, 평생교육차원의 교육성취도평가제를 확립한다. 대학 외에서 학습한 결과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자격증 기타 공적 인정제도를 모색한다.

셋째,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해소를 위한 매스컴의 협조를 구한다. 언론의 대사회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의식을 계도한다. 주말판 입시 예상 문제의 출제 경향과 내용을 질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교육차원으로 승화시킨다.

넷째, 입시위주교육 문제의 해소를 위해 경제계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노력한다. 인사관리에 있어 단일 호봉제를 권장하며, 학력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한다. 대학 학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 목적·측정치·평가 안목을 서로 달리 하여 그 효용성을 다양화한다. 앞으로 출현할 스트립트칼라시대에 대비하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혼합한 노동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입시위주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제고한다. 학교 관계에 있어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후원자에 국한하며, 학부모가 가정과 학교사이에 중재를 맡으며,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여섯째, 입시위주교육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교육 정책의 선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선별 관리 영역을 선정한다. 교육대강과 방향의 선도부분을 정부

가 나설 영역으로 정하고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소관리를 원칙으로 하여 최대행정효과를 거둔다. 통제보다 조장 내지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력을 강조한다. 이와 아울러 교육전문화 체제를 모색하여 각계에서 교육을 최우선시 하는 시각을 확보한다. 탁월한 교육기능의 발휘를 통하여 타체제의 추종을 유도하며 각계 대표를 중심으로 '입시위주교육 문제 관리 위원회'나 '생애 지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제 대책의 시행을 촉진하며 교육관련활동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 및 교육종합법'과, 국가와 교육발전을 위한 핵심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산하며 입시해소관련 질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제고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일곱째, 입시위주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재정 투자의 확대를 꾀한다. 교육 복지사업 확대와 교육을 통한 국가 방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GNP 5% 교육투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여덟째, 교육관련 환경의 정비를 꾀한다.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이 원칙을 학원 주변의 정비에까지 확산 적용한다.

정비작업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문제청소년화하는 현상을 막고, 그들에게 여유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전인교육의 초석을 다진다.

테레사 수녀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효과적으로 해내려고 애쓰기보다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입시위주교육 문제가 바로 이러한 안목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모든 교육 문제가 그러하듯이 입시위주교육 문제는 관련된 요인과 변수가 너무 많고 이에 따라 문제 자체를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치유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 설사 그 성과가 신통치 않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입시위주교육 문제에 대하여 관련된 여러 집단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과 협조가 요청된다.



## 프랑스의 모국어 교육

박 은 수

### 프랑스의 교육제도에

대한 나의 관심은 1979년에 어느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조사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는 이듬해에 한 편의 논문으로 요약되어 불어불문학회 학회지에 발표되었고, 다시 일반 독자를 위해 고쳐 쓰여져 외대 기념논문집(1984)에 실리기도 했으며, 81년에는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다시 프랑스를 방문, 현장에서 실지로 보고 검토할 기회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는 나름대로의 동기가 없지 않다. 어느 나라의 교육 현실에도 문제점은 언제나 있어 조만간에 개혁을 면치 못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처럼 고유의 교육 전통을 손질해 가면서 꾸준히 지켜오지를 못하고, 일제때에 억지로 받아들인 제도의 타성을 지닌채 해방후에 성급하게 받아들인 낯선 미국식 학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에서는, 오랜 체험에 바탕한 남의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소화하기는 커녕 그 허울에만 사로잡혀 자족하는 폐단을 면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안고 비틀거리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아무리 자주 바뀌보아도 무지 신통하지 않아 뼈저거리고 있는 대학 입시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온갖 잡동사니 말썽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판이다.

그렇다면 빛나는 문화 전통을 오래 이어온 지구의 다른 반쪽, 즉 유럽 여러 나라의 시행착오나 경험에도 눈을 돌려봐야 할 것이 아닌가? 더구나 유럽 문명의 가운데 토막이라고도 할 프랑스의 그것에 말이다. 하물며 달달 외우기와 오엑스 문제 풀기 따위에 식상해 폭넓은 교양이나 논리적인 사변 능력이 가난들고만 우리 2세들에게는, 그것과는 거의 정반대인 학습 방식이나 입시제도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처음 시도

되는 소개라는 지부심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한데 우리와의 차이는 생각보다 커서, 다 비슷비슷하겠지 하고 넘겨짚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우선 초등 중등 교육과정 자체는 우리와 닮은 12년제이지만, 그 구분이나 내용은 사뭇 다르다. 우리와는 거꾸로 11학년에서 시작해 7학년에 끝나는 5년제 초등교육과, 6학년에서 시작해 1학년을 거쳐 마무리학년(classse terminale)으로 끝나는 7년제 중등교육의 둘로 크게 나뉜다.

중등교육은 다시 4년제인 전기 과정(6학년~3학년: 중학)과 3년제 후기 과정(2,1학년과 마무리학년: 고교)으로 나뉜다.

그러나 차이는 교과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편상 우리식으로 말해서 국민학교 과정은 관찰 과정으로, 많은 지식의 주입보다는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 아이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 고교를 거쳐 대학으로 갈 아이와 중학을 마치고 바로 각종 직업학교로 갈 아이를 국민학교 졸업 전에 미리 결정해 버린다.

우리 사회라면 크게 말썽이 될 이 관행이 별다른 불평 없이 오래 계속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11살부터 다니게 되는 중학(국립인 리세나 공사립인 콜레즈)에서는 학급 규모가 24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당 수업시간은 27교시, 특히 국어(불어)와 수학은 우선적으로 상오에 배정된다.

고교는 1학년부터 3전공분야(A-문과, B-이과, T-산업기술)로, 2, 3학년은 5전공분야(A-어문학 철학, B-경제학 사회학, C-수학 물리학, D-수학 자연과학, E-수학 산업기술)로 나뉘지며, 이 5분야는 바칼로레아의 전공계열과 일치한다. 주 5일 수업에 주당 수업 시간이 평균 28~29교시로 공부 부담이 우선 우리보다 덜하다. 더구나 어문학에 충당되는 시간의 비중이 우리

보다 큰 것도 인상적이다.

고1의 경우 주당 국어 5시간에 제1외국어와 라틴말, 그리스말 각 3시간을 합친 14시간은 총시간의 48%에 이르고, 고3에서는 철학 8시간에 제1외국어, 라틴말, 그리스말 각 3시간을 합친 17시간은 총시간의 60%나 된다.

한데, 문학 위주의 교과 내용은 더욱 우리와 판이하다. 우선 국어 교과서가 국민학교서부터 문학 텍스트 중심으로 엮어져 있어 작가들의 훌륭한 글을 분석 감상하고 암송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학교에서 주로 하는 맞춤법 훈련이나 중학에서 하는 문법 훈련도 그런 글들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라루스 출판사의 중1 국어교과서 Lire en 6 (중1 읽기)에서는 라퐁테느, 몰리에르에서 생텍쥐페리, 이오네스코에 이르는 국내 작가를 비롯해, 호메로스, 헤로도토스에서 잭 런던, 카프카에 이르는 외국 작가들의 글 87편이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는 데다, 참고로 읽어야 할 작품들이 출판사명과 함께 군데군데에 소개되어 있다.

“

국어 교과서가 국민학교서부터 문학 텍스트 중심으로 엮어져 있어 작가들의 훌륭한 글을 분석 감상하고 암송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학교에서 주로 하는 맞춤법 훈련이나 중학에서 하는 문법 훈련도 그런 글들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

”

더구나 중1서부터는 학기마다 교과서 말고도 2편 이상의 명작을 통독하도록 독서 지도를 하고 있어 고교 졸업까지 수십 권을 읽어야 하며, 교과서부터는 아예 명저들의 원전을 교재로 택하고 있다.

게다가 현대외국어나 고대어 교재도 문학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 중등교육 과정에서 다루지는 문학 작품은 방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전에 파리에서 제자네 집에 들렀다가 그 딸이 유아원에서 배운 빅토르 위고의 시를 낭송하는 것을 듣고는, 호메로스나 라시느의 시를 어려서부터 읽혀 시어의 아름다움을 터득케 해야 한다는 철학자 알랭의 말을 떠올린 적이 있다.

영국의 국민학교 5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변명이 들어 있다는 말도 들었다. 또 캐나다에서 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는 손녀에게 물어보니, 수학 말고는 교과서라곤 이에 없고, 국어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골라 읽으며 물음에 답하고 리포트를 써낸다고 한다. 그곳에 간 지 1년반만에 미군 방송을 듣고 영어로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 애를 보면서, 10년을 공부하고도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의 영어 교육을 생각해본다.

중학 4년 동안의 국어 교육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각각 3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전기(1, 2학년): 1-말 공부. 2-응용 훈련. 3-작가.

후기(3, 4학년): 1-말 공부. 2-작문. 3-작가 연구.

말 공부에서는 맞춤법과 구두기호 사용법, 낱말의 형태 용법 기능, 작시법에서 시작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세분화된다.

예컨대 맞춤법과 구두기호는 1학년에서 기본 용법을, 2학년에서 기본 동사 형태를, 3학년에서 받아쓰기와 글짓기를, 4학년에서 일치 규칙에 관한 연습문제와 받아쓰기를 공부한다.

특이한 것은 4년간 계속되는 작시법(versification) 공부다. 1학년에서 기본 요소인 음절과 운율, 2학년에서 12음절시의 기본 개념: 음절, 리듬의 강약, 운율, 중간 멎기(césure)를, 3학년에서 음절, 운, 12음절시, 10음절시, 8음절시를, 4학년에서 음절, 시절, 소네트를 익히게 된다.

응용 훈련은 1학년의 경우 맞춤법과 구두기호 사용법 지도, 연습문제 및 받아쓰기와 그 내용의 분석, 교재에



나오는 어휘들에 관한 구두 학습, 텍스트 해석, 독서 지도, 이미 배운 텍스트의 낭송 특히 시문 외우기, 낭독법 훈련 및 연극 장면 연기, 묘사 및 서술 연습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교실에서 읽고 분석한 교재로 부추겨진 상상력을 바탕으로 훈련을 쌓고, 훌륭한 산문과 운문을 외어 모방을 통한 창조를 꾀함으로써, 어려서부터 글이 몸에 배도록 문학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 공부란 불문 해석과 독서 지도로, 학년마다에 정해진 연대순 리스트가 있어 그 중에서 선택한다. 1학년의 작가 리스트는:

A-각반 공통: 1-고대(중동과 그리스) 작가들의 번역 텍스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에피소드 모음.

2-중세기 산문 작가와 시인들의 중단편. 3-몰리에르의 희극 장면 선집. 4-라 폰테느의 우화시 1~3권 선집. 5-17세기에서 현대까지 국내 작가들의 산문 운문선.

B-보충 독서: 1-외국문학에서 따온 콩트와 전설.

2-세계 탐험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리스트는 더욱 다양해져 중학 4년 동안의 국어 학습에서는 고대와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국내외 작가의 대표작들이 부분 읽기와 통독을 통해, 또 해석 독후감 쓰기, 암송 등의 입체적 방법을 통해 익혀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고대어나 현대외국어 학습에서도 비슷한 작품 연구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4학년의 라틴말, 그리스말도 역시 말 공부, 응용 훈련, 작가 연구로 되어 있어, 키케로, 오비디우스, 크세노폰 등의 작품이 같은 방법에 의해 원문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고교 과정의 국어 교육도 중학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나, 분반에 따라 얼마간 달라지고, 3학년(마무리학년)에 가서는 작품 선택이 학생들의 능력과 취향에 따른 교사의 자유재량에 맡겨지는 점이 다르다.

1학년 A, C반을 예로 들면, 1-어학과 문학 연구, 2-응용 훈련, 3-작가 연구의 3부분으로 구성되고, 어학

과 문학 연구는 다시 텍스트 해석과 작문으로 나뉘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텍스트 해석:

1. 언어와 어휘의 역사적 개념. 어휘: 사라진 낱말들, 낡은 낱말들, 새로운 낱말들, 낱말의 뜻: 사라진 뜻, 새로운 뜻. 옛 말투와 새로운 말투.
2. 16세기 초에서 18세기 초 사이의 프랑스 문학사 개념.
3. 작시법 연구: 음향, 시구 자르기, 리듬 주기, 시절과 정형시 연구.

B-작문:

1. 맞춤법, 문법적 정확성, 용어들의 특징 검토.
2. 작문법: 낱말과 관념(과장, 완화, 이미지, 비교). 글의 조화와 형식 선택. 관념들의 전개와 연계, 단락 구성 연구. 지적인 성실성: 생각과 형식의 일치.

응용 훈련에서는 이미 해석한 텍스트들의 암송과 낭독법 연습, 과제로 읽은 책의 독후감 쓰기와 질의 응답, 읽은 텍스트의 구두 요약 훈련, 주어진 테마에 대한 구상과 단락 짓기 훈련 등을 주로 하며, 작문 훈련으로서 서술과 인물 묘사, 스피치, 대화, 문학적 도덕적인 작은 테마를 다루게 된다. 작시법 훈련과 회화 토론 훈련도 병행된다.

작가 연구에서는 인간적인 흥미를 주면서도 문명의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들의 증인이 되는 작품들을 주로 다룬다.

1학년 A반의 작가 리스트에는 라시느와 몰리에르의 희곡, 라 브뤼예르의 성격론, 몽테스큐의 페르샤인의 편지, 볼테르의 콩트집과 서한문선 등을 비롯해, 피테, 세익스피어, 세르반테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등의 외국 작가들도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다.

2학년에서 어학과 문학 연구 중의 문학사가 18세기에서 현대까지로 연장되고, 작가 리스트에 몽테뉴, 파스칼을 비롯해, 낭만주의 희곡, 19세기의 운문과 산문이 추가된다.

마무리 학년에서는 모든 반에 공통되게 17세기 회

곡, 18세기 철학 작품, 19세기 시 소설, 20세기 작품 등이 올라 있지만 그 선택은 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바칼로레아에 대비하는 이 마무리 학년에서는 국어가 주당 2시간의 임의선택으로 밀려나고 주당 8시간의 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66

응용 훈련에서는 이미 해석한 텍스트들의 암송과 낭독법 연습, 과제로 읽은 책의 독후감 쓰기와 질의 응답, 읽은 텍스트의 구두 요약 훈련, 주어진 테마에 대한 구상과 단락 짓기 훈련 등을 주로 하며, 작문 훈련으로서 서술과 인물 묘사, 스펠리치, 대화, 문학적 도덕적인 작은 테마를 다루게 된다. 작시법 훈련과 회화 토론 훈련도 병행된다.

99

철학이 고3 모든 반의 공통 필수과목으로 주당 8시간(총시간의 30%)의 비중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물론 철학이 불어, 제1외국어, 수학과 함께 바칼로레아의 모든 계열에 공통되는 필수 시험과목이기 때문이지만, 역시 철학이 이공과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육의 바탕이 된다는 굳은 신념이 엿보이기도 해, 전통적인 유럽 교육의 깊은 뿌리가 느껴진다.

철학 과목의 프로그램은, 선택할 물음들의 개념 리스트와, 읽을 철학자들 리스트로 구성되며, 이 두 가지 요소를 서로 결합시켜가며 공부하도록 되어 있다.

개념들은 인간과 세계, 인식과 이성, 실천과 목적 등의 테두리에서 세분되어 탐구와 성찰의 방향을 제시하고, 철학자들 리스트는 고대와 중세(플라톤, 루크레티우스 등 8인), 근대(마키아벨리, 데카르트, 루소, 칸트 등 12인), 현대(헤겔, 베르그송, 바슐라르 등 12인)로 3분되어 있어, 예컨대 A반에서는 두 시대 이상에서 적어도 세 작품을 택해야 하고, 적어도 하나는 전

체가 연구되어야 하며, 이 선택은 바칼로레아의 구두시험과 직결된다.

바칼로레이란 중등교육 학위를 뜻하는 말로 그 시험 자체도 가리킨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바로 어느 대학에나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의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과리를 비롯한 25대학구에서 출제 채점되며, 문학 작품에서 출제되는 불어와 철학의 필기시험은 모든 계열이 각각 4시간 짜리 논문을 써야 하며, 그 수준도 상당한 독서 없이는 엄두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이런 까다로운 전형제도를 끈질기게 유지하는 그들의 고집에는 뭔가 철저한 신념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다.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만 사람이 된다는 그런 신념이 말이다.

그 신념은 묘하게도 우리 조상들의 그것과 일치한다. 옛날의 벼슬아치들은 다 문인이었고, 그들은 뽑는 과거는 시문 짓기가 아니었던가?

남의 나라의 앞선 실용 문화 승상이 아무리 극에 달하더라도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우리 사회의 온갖 말썽이 생각이 모자라서 빚어지는 것이라면, 나보다 나은 머리와 대화, 즉 지멸있는 독서가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하는 교육 없이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우리의 교육 개혁의 방향도 여기서 빛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박 은 수

- 서울대학교 불문학과 졸업
- 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수학
-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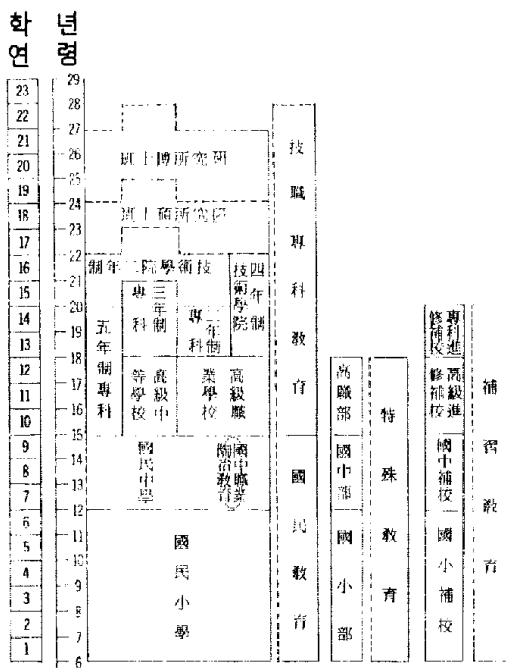
# 청소년을 위한 대만의 직업 교육

장 석 민

## 1. 일반 교육 제도

대만 학제의 기본 구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와 비슷하여 6-3-3-4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직업 교육 체계를 별도의 계열로 구조화하고 있다.

교육 체계는 크게 국민교육과정, 고급중등과정, 고등교육과정 등의 3단계로 구분되며 고급 중등교육부터 일반 계열과 직업 계열로 분리된다.



자료 : 中華民國技術及職業教育簡介, 中華民國 78年5月 ('89. 5)

<그림 1> 대만의 교육제도

국민교육과정에서는 6~15세까지 9년간 보통교육이 행해지며 국민소학(6년과정), 국민중학(3년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의무교육기간은 9년에서 국민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2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고급 중등 교

육과정은 3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여기에서 직업계와 일반 학술계(인문계)고교로 구분된다.

보통 교육 계열은 국민 중학교를 마친 후에 입학 시험을 거쳐 고급 중학교에 진학하고, 계속해서 일반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직업기술교육 계열은 국민중학교 졸업후 3년제 고급 직업학교나 5년제 전과학교에 진학하도록 되어 있다. 고급직업학교를 마치면 우리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2년제 전과학교를 거쳐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5년제 전과학교는 직업 고교 3년 과정과 2년제 전과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이어서 졸업 후 일정한 현장경력이 인정되면 기술대학 상급과정(2년)에 진학할 수 있다.

한편 학술 계열인 고급 중학을 졸업한 후 계속해서 학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는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하여 3년제 전과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 2. 직업 기술 교육 제도

1960년대 후반부터 대만의 직업 교육은 행정원 경제합작 발전 위원회의 경제 발전 계획 추진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직업학교 학생의 비율은 1970년대 초까지 40%에서 60%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다시 이 비율을 조정하여 70%수준으로 높여 놓았다. 이 계획으로 대만의 공업화 과정에 필요한 기능 인력이 충분히 배출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진학 경쟁이 줄어들게 되어 사회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고등교육 단계에 있어서도 대만은 공업 중진국 단계로 진입하면서 대량의 중급 기술 인재 즉 소위 중견 기술자(Technician)를 필요로 함에 따라 70년대에는 전과학교(전문대학)를 대폭 증설하였다.

또한 대만은 직업학교와 전과학교 졸업생 등에게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길을 열어주고, 현장중심의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술 대학을 설치하고 있다.

대만의 교육 제도는 중학교 단계까지는 보통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단계부터 학술교육 계열과 직업 기술 교육 계열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그리고 계열별 진학 체계는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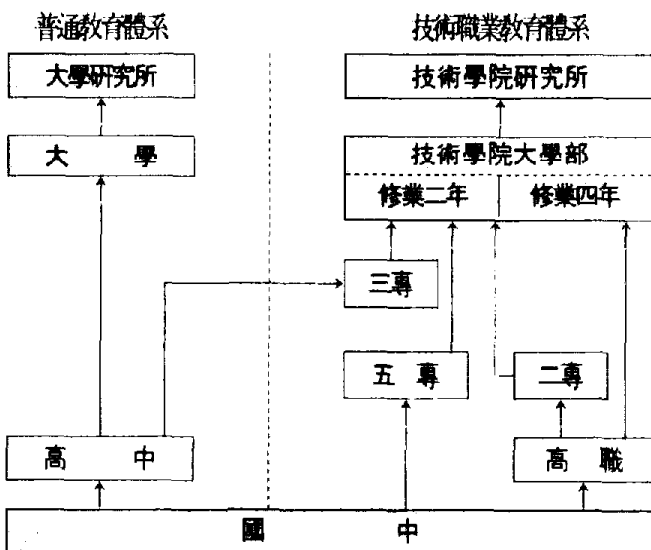
으로 32:68이며, 5년제 전문학교까지 포함하면 28:72의 비율로 실업계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급 직업 학교의 설립에 있어서는 지방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 정부인 성·시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이나 사립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립보다 사립이 더 많다. 공립은 국립 3개교, 직할시립 12개교, 성립 80개교로서 총 95개교인데 비해 사립은 121개교나 되고 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 교육은 주로 고급 직업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5년제 전과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시작되어 대학 단계까지 걸쳐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외에 인문계인 고급 중학교에 부설되어 운영되는 직업반이 있다. 이는 주로 고급 직업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고급 중학생으로서 사정이 있어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업 학교는 직업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고 직업 도덕을 길러 건전한 기층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가사계, 해양·수산계, 의료·간호계 그리고 예술계 등 7개의 대 분류 체계가 기층 기술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직업 학교는 단순 기능인이 아닌 실용적인 기층 기술인력을 길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험, 실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산학 협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학 협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동 실시법(建敎合作實施辦法)을 제정하여 국가가 직업 학교의 산학 협동을 적극 돕고 있어서 공동적 기초 기능과 현장 적용 능력을 갖춘 기능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내고 있다. 제일 환영 받고 있는 산학협동 방식은 매 3개월을 주기로 하여 학교와 산업체에서 교대로 교육 받고 실습 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자료: 馬道行, 我國技術職業教育發展向路與改革動向  
<그림2> 대만의 학교 진학 체계

### 1) 중등 교육단계의 직업 기술 교육

대만은 경제 발전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전과학교)을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직업 교육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운영함으로써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 기술 인력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있다.

기능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는 70년도 이후 급속히 증설되었고 현재 212개교가 있다.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학생 비율은 91년을 기준

공장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때에는 기본 임금의 75% 이상을 받으며, 별도로 학교에 납부하는 공납금, 숙식비, 교통비, 의료보험 등도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이러한 산학협동 훈련은 3학년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며 1, 2학년생은 교내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로 교외 실습이 부과된다.

## 2)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 기술 교육

1960년대 이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과학기술 인력 구조는 최하부 기층인 단위 기술 조작공은 감소되는 반면 기능공, 기술공의 인력 수요는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 교육 및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만들었다.

대만은 60년대 후반 및 70년대 초에 이미 공업 발전 단계의 중기에 진입하여 대량의 중간 기술 인재 즉, 중견기술공(Technician)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재편에 따른 새로운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1962년에 11개 교였던 전문대학(전과학교)이 1972년에는 76개로 적극 육성되었다.

1973년에는 교육부 당국이 기술대학(Institute of Technology)을 설립하여 직업교육을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장함으로써 직업 교육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는 국가 경제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급 공학 및 관리 기술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의 공업 기술 단계로 향상을 꾀하는 한편, 실업학교·전과학교 졸업생들에게 상급 학교 진학의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공업계의 젊고 우수한 기층 및 중급 기술 요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단계의 새로운 과학 기술 훈련을 받아 대만 공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근 대만은 산업인력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 학생의 비중을 약간 낮추는 대신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술 대학(영국의 폴리테크닉과 같은 형태의 대학)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① 전과학교

전과학교는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실업계 고교 출신자가 진학하는 2년제 전과학교, 중학교 졸업자가 진학하는 5년제 전과학교, 그리고 인문고 출신자가 진학하여 3년과정으로 이수하는 전과학교로 구분된다.

전과학교는 응용과학과 기술을 전수하여 실용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계열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과학교가 설치하고 있는 계열을 보면, 총 15개 계열로 구분되어있다. 공업, 농업, 상업, 가사, 해양, 약학, 간호, 의료기술, 체육, 신문방송, 예술, 외국어, 음악, 회극 및 기타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업계열이 26개교로 되어 제일 많다. 2개 계열을 병설하고 있는 전과학교는 총 16개교로 고급 직업 학교의 병설 상황보다는 훨씬 적다. 공업과 상업을 병설하고 있는 학교는 15개교, 농업과 공업계를 병설하고 있는 학교는 1개교 뿐이다.

전과학교의 교육 과정 편제를 보면, 공업계를 예로 하여 볼 때, 대체로 전반부에서는 폭을 넓게 하여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후반부에는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많이 두어 사회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취업도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의 장점도 최대한 받아들일도록 하고 있어 산학 협동도 강조하고 있다.

전과학교의 성적은 4개 부문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실습을 포함한 학업 성적 이외에 조행이라고 이름하는 행동평가 그리고 체육과 군사훈련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만 교육이 목적하는 五育 즉 智育, 德育, 體育 이외에 群育(집단 활동), 美育을 학교교육에서 실현하고자 함에서이다.

## ② 기술대학

기술대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급 인재를 배출

하기 위하여 1974년에 신설하였는데 공업계 기술대학 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대학의 상급 3,4학년 과정만을 두고 공학사 학위를 수여하였었다. 따라서 모집 대상도 전과학교를 졸업하고 군역을 필한 자로서 응모 학과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 현장 경력이 없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학교는 현재 산업 발전의 추세에 따라 3개교로 늘어나 있는데 기술인재 양성의 목적에 따라 전공 학과 명칭상 OO 공정 기술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점이 공과대학과 구별된다. 예컨대, 전자공정기술과, 기계공정기술과, 건축공정기술과, 전기공정기술과 등으로 이름하고 있다.

많은 공업 선진국들이 직업교육을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대하면서 기술대학을 설립하고 있다. 대만의 기술대학도 이러한 배경에서 설립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기술대학의 설립 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

만의 기술대학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국립 대만 공업기술대학을 간략히 살펴본다.

대만의 공업 기술 대학(The National Taiwan Institute of Technology:NTIT)은 직업 기술 교육 체제 내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제공하기 위한 첫번째 고등교육기관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정식 명칭이 국립 대만 공업기술학원으로서 대만 사회에 긴급히 요구되는 고급수준 공학과 기술인의 훈련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등교육 단계까지의 직업 기술교육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학부와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에 각각 9개의 학과가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학부 과정에는 4,235명의 학생, 대학원 과정에는 1,01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그리고 기술 대학에는 426명의 교수진, 137명의 교직원 이 있다.

<표1> NTIT의 1991년 학생 현황(학부 과정)

구분	2년 프로그램		PART-TIME프로그램			4년 프로그램				총계
	3rd Yr.	4th Yr.	3rd Yr.	4th Yr.	5th Yr.	1st Yr.	2nd Yr.	3rd Yr.	4th Yr.	
학생 수	1108	1187	159	172	144	370	388	382	326	4235
	2295		475			1465				

자료: 教育部, 中華民國 教育統計, 1990

<표2> NTIT의 1991년 학생 현황(대학원 과정)

구분	석사 프로그램			박사 프로그램						총계
	1st Yr.	2nd Yr.	3rd Yr.	1st Yr.	2nd Yr.	3rd Yr.	4th Yr.	5th Yr.	6th Yr.	
학생 수	440	359	27	60	46	29	21	18	12	1012
	826			186						

자료: 教育部, 中華民國 教育統計, 1990



### 3. 주요 시사점

1) 대만은 전체 교육 제도를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만과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실업계 고교로 진학하여 기술을 배운 후 사회로 배출되며, 배운 기술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육 제도 개편 및 사회여건 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만은 기술인들에게 계속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중등 교육 및 고등 교육 단계를 포괄하는 직업 교육 체계를 완전하게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기술변화 시대에 대응하고 기술인들에게 계속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반교육에 대응하는 기간 학제로서 계속 교육이 가능한 직업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실업계 고교-전문대-기술 대학으로 이어지는 계속 교육 체계 확립 방안 등이다.

3) 직업학교는 지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직업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등학교도 지역 특성 및 산업체

의 직종, 직무 등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계속 교육 체계 강화를 위해 직업학교와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 과정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실업계 고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가 전문대학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학과가 실업계 고교에는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계속 교육적인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학과 및 교육 과정은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5) 대만의 전문대학은 중학교 졸업자, 실업고 졸업자, 인문고 졸업자 등 보통 능력의 청소년, 성인, 직장인을 보다 중요한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학력층의 성인 및 기능 인력의 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산업 발전과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돕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공헌하는 대학으로서 전문대학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의 전문대학도 입학 대상의 확대, 다양한 과정 설치 등으로 보통 능력의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기술·기능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㉞



장 석 민

- 공주사대 교육학과 졸업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졸업 (철학박사)
- 본원 직업기술교육연구부장
- 「기술교육모형연구」,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 영국국민학교 참여관찰일지(III)

## —운동회—

### 이 용 숙

**필** 자는 1982년부터 인류학의 독특한 연구방법인 '참여관찰'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는 교육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글은 1989~1990년에 이루어진 「국민학교 교육 현상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를 위하여 작성된 참여관찰일지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본지에서는 영국교육과 한국교육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밝혀보기 위해서 한국국민학교와 영국국민학교의 운동회 참여관찰일지를 나란히 실어 보았다.

위의 연구에서는 10개 한국국민학교에서 운동회 관찰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도 비교적 소규모이며 사립이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학생들이 주로 다닌다는 점에서 서울영국학교와 유사한 점이 있는 장미국민학교(가명)의 운동회를 소개한다.

서울 영국국민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오전에만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Spring Fair'라고 불리는 작은 축제 행사를 갖는다. 'Spring Fair'는 주로 학부모들에 의해 준비되는 행사로서, 운동장과 학교 건물 이곳 저곳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게임과 슬라이드 쇼, 먹을 것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즐기게 한다. 또한 동시에 집에서 쓰던 옷, 책 등과 집에서 만든 케익, 과자 등을 파는 바자회 행사가 열려서 수익금은 학교 기금으로 사용된다.

장미국민학교에서는 운동회를 하루종일(오후 3시 30분까지) 실시하지만, 필자의 사정에 의하여 오전 프로그램만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학교 모두 오전에 이루어진 운동회에 대한 참여관찰일지만을 제시한다.

## 서울 영국 학교 '90년 5월

### 1. 운동회의 내용과 진행방식

서울영국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 준비 중인 Spring Fair 행사장을 둘러보고서 9시 40분경 운동회 장소인 서울외국인학교(Seoul Foreign School)의 큰 운동장으로 가니 운동회는 금방 시작된 후였다. 둘러보니 운동장 입구의 그늘 밑에 3단으로 된 긴 나무의자가 2개 놓여 있고, 그곳에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 옆의 학부모에게 물어보니 운

동회를 시작할 때 아무런 공식행사(Ceremony)도 없었으며, 곧장 운동경기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운동회 팸플렛에도 운동장 약도와 함께 70개의 경기 이름만 시간과 함께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 '폐회(Finish): 약 11시 50분경'이라고 되어 있었다.

내가 앉은 곳은 마침 관찰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다. 바로 앞에서 '뛰어가다가 넓이 뛰기'(Long jump) 경기가 진행 중이었고, 가장 많은 경기가 이루어지는 트랙의 출발선도 가까웠다. 다만 멀리있는 콩주머니 던지기





와 교사들이 참여하는 「자루 속에서 달리기」(남·녀)와 100m 달리기(남·녀), 그리고 동생들의 20m 달리가 더 있었다.

이처럼 경기의 종류는 몇 가지 안되었으나, 프로그램에는 무려

경기만은 잘 볼 수 없었으나, 그곳에서의 경기는 가끔씩만 이루어졌으며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운동 경기의 종류는

1) 뛰어가다가 넓이뛰기, 2) 던지기, 3) 단거리 달리기(학년에 따라서 30m, 50m, 100m), 4) 중거리 달리기(200m, 400m), 5) 장애물 경기의 5가지였으며, 이 중 장애물 경기는 다시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경기가 이루어졌다.

i) 50m 주으면서 달리기(50m Collecting Race) — 3학년 이상 : 트랙에 있는 1인당 4개씩의 콩주머니를 하나씩 주어서 출발선에 있는 홀라후프 속에 갖다 넣은 후 결승점까지 뛰어가기

ii) 50m 균형잡으며 달리기(50m Balancing Race) — 2학년 : 머리에 작은 링을 얹고서 뒷짐진 채 걸어가기

iii) 30m 자루 속에서 달리기(30m Sack Race) — 1·2학년 : 쌀자루 속에 들어가서 두 손으로 자루를 잡은 채 깡충깡충 뛰어가기

iv) 30m 멋쟁이 달리기(30m Fancy Race) — 준비 학급 : 모자를 쓰고 리본을 목에 걸고 있다가 중간 지점에 있는 홀라후프에 가서 홀라후프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쓴 후, 모자와 리본을 벗어서 홀라후프 안에 남겨 놓고 결승점까지 뛰어가기

v) 50m 장애물 뛰기(50m Obstacle) — 1·2·3학년 : 가운데가 빈 숟가락같이 생긴 것에 플라스틱 달걀을 놓고 뛰어가다가, 줄넘기 하면서 뛰어간 후 홀라후프를 머리에 뒤집어 써서 내려놓고, 머리에 작은 링을 얹고서 뛰어가기

이 외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게임으로, 학부모

70개나 되는 게임이 실려 있었다(어른 및 동생들의 경기를 제외하면 65개).

이는 같은 경기(예 : 100m 달리기)도 한 경기에 8명이 넘지 않도록 팀을 갈라서 실시했기 때문이다. 즉 트랙이 8명까지 동시에 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 학급을 2~4개로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했다. 저학년(준비학급과 1학년)의 경우에는 2~4명씩만 경기를 하도록 했다.(이는 아이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그만큼 상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서 70개의 경기는 모두 개인경기였으며, 집단끼리 경쟁하는 경기는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경기는 정확히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졌다. 예정 시간에서 1~2분 이상 틀리는 경우는 없었다. 같은 종류의 경기가 여러 번씩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경기를 2~4팀 정도 하고 나면 다른 학년으로 바꾸어서 다른 경기를 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했으므로, 지루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10시 30분경에 5분간의 휴식시간을 갖고, 진행자들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쉬는 기회를 가졌던 것만이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였다.

여러 가지 경기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넓이뛰기였다. 넓이뛰기는 4학년 이상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저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참여하는 경기를 다 끝낸 후에 와서 구경하는 일이 많았다.

4학년 이상의 넓이뛰기가 완전히 끝나자, 저학년 학생들도 한 번씩 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기 진행자

는 그들도 줄을 서서 넓이뛰기를 해 보도록 했으나, 진짜 경기처럼 된 길이를 재어 주거나 두 번씩 뛰어서 그 중 좋은 점수를 기록하도록 해 주지는 않았다.

마지막 경기인 400m 달리기 시작되자 한편에서는 정리를 시작했다. 이 경기는 상당히 힘든 듯,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빨리 뛰지 못했다. 1등이 결승점으로 뛰어 오자 모두들 박수를 쳤다.

모든 경기가 끝나자 교장은 학부모 몇명과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핸드마이크로 안내방송을 한 후 주스가 준비되어 있는 곳 근처의 언덕진 곳 위로 올라가서 섰다.

아이들은 교장 밑의 언덕받이에 교장에게는 등을 돌린 자세로 앉았다(학생들이 교장에게 등을 돌리고서 교장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교사들과 대부분의 학부모(모두는 아님)도 근처에 둘러 섰다. 교장은 바로 옆에서 있는 40대의 안경 쓴 남자를 가리키며, "이사장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사장(chairman of the school board)은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아주 좋군요. 교직원(staff)과 사친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바쁜(quick) 아침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빠르게 진행시켰지요.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 준비한 것(체육학습이 잘 되었음을 의미함)을 축하합니다.[이때 학부모들은 박수를 쳤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장이 간단히 말했다. (첫째 문장은 잘 못 들음) "사친회에서는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자 교장은 농담을 했다.] 아! 그게 아니고, 3분의 2의 아이들에게만 주기로 했는데 저도 이유는 모릅니다.[학부모들은 "우!"하고 장난섞인 야유의 소리를 냈다.] 상당히 시간을 잘 맞추어서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Spring Fair까지는 90분이 남았으니 그 동안 식사를 하시고,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세일을 하고 있으니 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여기에 있는 축구대를 마음



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아이들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격려(stimulation)를 주셔서 감사하며,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서울영국학교의 운동회 진행 방식은 영국학교와 우리나라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되었다. 그 동안 우리 연구팀에서 관찰한 10개 한국국민학교의 운동회에서는 개인경기는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경기는 한 학년을 청군·백군으로 나눈 집단 경기였다.

서울영국학교에서와 같은 개인 경기는 일단 학생수가 적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산촌에 있는, 학생수가 서울영국학교보다도 작은 '분교'에서도 운동경기의 종류는 서울의 대규모 국민학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중시' 대 '집단중시'의 문화적 풍토의 차이가 아닐까?

한국학교의 운동회에서는 개인별 경기가 드물 뿐만 아니라, 개인 경기(보통 달리기)를 하는 경우에도 1, 2, 3등 이외의 참가 학생이 소개되지 않는다.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영국학교에서는 각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출전하는 어린이들의 이름이 일일이 소개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서울영국학교의 운동회에는 개회식, 폐회식, 마스게임, 무용 등의 전시적인 행사가 전혀 없고, 단체 경기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전 연습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점이다(폐회식만은 비형식

적으로 이루어졌다.)

체육 수업을 받으면서 닳은 기량을 운동회날 발휘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학교의 운동회는 열린 교육을 실시하는 영훈국민학교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운동회를 제외하면, 모두 상당한 사전 연습을 필요로 하는 행사였다. 특별히 내빈이나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아름다움과 통일이 강조된 프로그램이 많았고 공식적인 개회식과 폐회식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영국학교의 모든 행사가 사전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 음악회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외국어련이들의 민속춤공연과 같은 행사를 했을 때에는 '협동'과 '조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된 수업시간 이외에도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연습을 했었다.

이처럼 많은 사전 연습을 요구하는 행사도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의 운동회를 관찰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보통 2주일 이상) 교사와 학생들이 9월의 피약별 아래 운동장 먼지 속에서 보내야 했을 뿐 아니라, 운동회 당일에도 학생들이 동원되거나 혹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이에 비해서 영국학교 학생들은 운동회 진행 중에 똑바로 줄맞추어 앉도록 강요되지도 않았고, 긴 시간동안 개회식·폐회식을 위해서 서 있을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이 차일 없는 비닐 자리 위에 앉아있기는 해도, 5월의 온화한 날씨가 더울 것 같지는 않았다. 또한, 각 학급 옆에는 물통이 하나씩 놓여 있어서 아이들은 목이 마른 것을 참을 필요도 없었다.

이들은 교사의 인도에 따라 자신이 참여하는 경기에 출전하는 것만 제외하면, 학년별로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흥장난을 하거나 응원을 하고, 서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 학부모 또한 자리가 없어서 몇 시간씩 서서 관람해야 하는 곤욕을 치를 필요도 없었다.

## 2. 시상 방식

서울영국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운동회를 시작할 때 서울영국학교의 문장과 「서울영국학교 운동회(Sports Day)」라는 글씨가 함께 적혀있는 리본을 하나씩 받아서 가슴에 달았다. 이외에 학생들에게 상품으로 주어진 것은 각 경기의 1·2·3등에게 주어지는 각기 다른 색의 리본 뿐이었다. 각 리본에는 1등, 2등, 3등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각 경기에서 1등은 파란색 리본, 2등은 빨간색 리본, 3등은 초록색 리본을 하나씩 즉석에서 받아, 받는 대로 가슴에 달았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게 나누어 준 하얀색의 운동회 리본만 달고 다니게 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상을 하나도 못 타서), 로리처럼 파란색 리본만 4개나 타서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내가 본 아이들 중에서 로리는 제일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종합성적에 따라서 주는 상은 없었다.

이러한 시상 방식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처럼 반드시 공책이나 연필 등의 물질적인 상을 주는 것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점은 운동을 잘 못하는 아이들로서는 속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2~5번(준비학급은 2번, 1학년은 3번, 2·3학년은 4번, 4학년 이상은 5번씩)의 경기 참가 기회가 있었는데, 리본을 한 개도 못 받은 아이들도 5~6명 눈에 띄었다. 이들에게는 속상한 날일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리본을 준다면, 경기의 의의가 없어 질테니,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한 학부모(어머니는 한국인)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 오늘도 2학년 여학생 한명이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울었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들에게 리본을 하나라도 받게 하면 좋을 것 같다(예: 위로상). 예를 들어, 빨간색 리본 하나만을 달고도, 한 여학생은 무척 호뭇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상으로 받은 리본을 몹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여교사와 어머니들의 경기에서 자신의 엄마가 7등을 해서 리본을 받지 못하자, 한 여학생은 자신이 상으로 받은 리본을 대신 달아주려고 했다.

### 3. 운동회 경비

오늘 본 서울영국학교의 운동회에는 예산이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았다. 팜플렛은 서무직원(비서)이 타자를 친 프로그램을 큰 복사지에 양면 복사하여 반으로 접은 것이었으므로 복사비 밖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상품으로 나간 리본값, 트랙을 그리는 석회, 장애물 경기에 동원된 소품, 1등이 테이프를 끊을 때 사용한 리본 테이프 값을 다 합쳐도 미미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외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큰 석수병에 든 주스가 5병 정도 있었을 뿐인데, 이는 사친회에서 준비한 듯 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없어도 즐거운 운동회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운동회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그 동안 방문했던 학교(특히 공립)의 교장·교감·교사들이 “예산때문에” 운동회를 제대로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일까?

우선은 상품은 꼭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유인 것 같고, 모든 참가학생에게 “공책이라도 한권씩”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유겠다. 또 경기 운영에서 돈이 들어야 하는 소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모두 똑같은 트레이닝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번 1인당 2~3만원이나 하는 트레이닝을 지급하는(대개 학부모회에서 마련) 관행이다. 서울영국학교에서는 교사도 학생도 정

해진 운동복을 입지 않았다. 학교 유니폼인 체육복을 입은 학생도 몇 명밖에 없었다. 교사들(교장 이외의 교직원)은 모두 여자는 1~2명 이외에는 모두 앞기편한 폭넓은 치마차림이었다.

### 4. 운동회 진행을 위한 역할 분담

서울영국학교의 운동회날,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교장이었다. 썬글라스를 끼고 피악벌에 앉은 교장은 핸드마이크를 들고서, 경기의 진행에 대한 안내방송을 혼자서 도맡아서 했다. 또한 중간 중간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는 곳’, ‘휴식 시간’ 등을 알리는 방송도 모두 혼자 했다.

이에 비해서 교사들은 자기반 아이들을 데리고 앉아 있다가, 시간에 맞추어서 3가지 경기 중 한 곳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보내거나, 데리고 가는 역할만을 했으므로, 훨씬 쉬워 보였다. (이것만 해도 결코 편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점심시간에 만난 한 교사는 무척 피곤해 보였다.)

교장과 함께 운동회날 특히 수고를 하는 사람은 기록대에 앉아 있는 두 비서(서무직원)였다. 이들은 각 경기의 입상자들이 경기진행자로부터 받아온 색 메모지(파란색·분홍색·연두색)에 1등, 2등, 3등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받고 대신에 같은 색의 리본을 주었으며, 기록지에 입상자들을 기록했다.

운동회에서 적은 수의 교직원들이 비교적 편하면서도(교장과 서무직원 제외) 원활하게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세 곳에서 이루어진 경기의 진행은 모두 학부모들이 맡았다. 넓이뛰기는 3명의 아빠가, 던지기는 2~3명의 아빠가, 트랙은 6~7명의 학부모들(여자도 2명 이상 포함)이 맡았다. 이들은 아이들을 출발시키고, 푸리 길이를 재고(넓이뛰기), 장애물을 늘어놓거나,

테이프 들고 서있기, 1·2·3등에게 등수표 주기 등의 모든 일을 오전 내내 했다. (이들은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여유가 많았지만, 한 가지씩 맡은 일을 교대없이 끝까지 한다는 것은 학부모로서는 상당한 희생이었을 것이다.) 이외의 학부모들은 그들에서 이야기를 즐기거나 음료수를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고, 때에 따라서는 (특히 자기 아이가 출전할 때) 경기가 진행되는 곳으로 다가가서 응원을 해가며 보기도 했다.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는 사람들도 여러명 보였다.

이런 식의 학부모 자원 봉사제도는 우리도 도입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 교사들만 운동회에서 죽어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이들도 좋아할테고, 그런데 학부모 자원봉사제도는 서울영국학교가 작은 학교라서, 학부모들도 대개의 아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넓이뛰기를 시키는 아빠들도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넓이뛰기를 시키고, 격려·칭찬을 해주며, 필요하면 (손을 짚거나, 발을 잘못 디딘 학생)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하여튼 여러가지 면에서 '작은 학교'는 좋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보면서 가장 놀라왔던 것은, 교장의 역할이 우리 나라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었다. 우리 나라의 운동회에서는 교장들이 차일 밀에 마련된



높은 본부석에 편안한 의자를 내놓고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며 육성회장 등 내빈 접대와 경기를 관람하다가, 개회사·폐회사와 시상만 하면 되는 것에 대비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경기 진행은 교감이 총괄하고, 안내 방송도 주임교사가 담당하고…….

이런 차이가 학교의 크기 (즉, 일할 수 있는 교직원의 많고 적음)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교장이 직접 안내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그렇다면 서울영국학교 교장은 38세의 젊은 사람이라는 것이 관련있을까?

어쩌면 영국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서구학교에서도) 교장이 처음 되는 나이가 보통 '30대'라는 사실 자체가 영국과 우리 나라의 교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또는 문화)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50이 넘어야 교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교장을 '학교의 일꾼'이기 보다는 '학교의 어른'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른'의 이미지에 맞는 연장자가 교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영국학교에서 교장은 '학교의 일꾼'이며, 교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대신에 교사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이상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따라서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젊은 교장이 환영받으며, 이미 교장 역할을 새로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로 간주되는 50대에 초임 교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받아 들여진다. (외국학교 교장과 우리 나라 교장의 역할 비교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외국에서의 학교장의 역할", 「사학」 제 58집 1991년 가을호 참조.)

어쨌든 교장이 교사들보다 힘들게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 1. 운동회의 내용과 진행방식

장미국민학교(가명)에 도착한 것은 운동회 시작 20분 전인 9시 10분이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보니, 많은 학부모들이 손에 돛자리, 먹을 것 등을 들고 들어가고 있었다.

우선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교감은 교장실에서 손님과 함께 있다가 곧 나왔다. 총무라는 리본을 단 교무주임이 교감에게 '부대회장'이라는 리본을 달아주었다. ('대회장'은 교장) 사무실에서 팸플릿을 하나 얻은 나는 교감과 함께 본부석으로 갔다.

교감은 나를 안내해 주면서, 운동회 연습을 별로 많이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주일간 하루에 1간씩) "추석때문에 1주일 까먹고 나니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학부모들을 위한 차일이나 의자도 어느 학교보다 많이 마련되어 있고, 경로석에는 모든 사람 앞에 빵과 음료수가 놓여져 있었다.

본부석을 향해서 걸려있는 10줄 이상의 만국기 이외에도, 가설 스탠드 위에는 파란 천에 흰 글씨로 학교 이름을 쓴 현수막이 있고, 하늘에는 '탐구하는 학교'라는 깃발을 매단 큰 풍선이 높이 떠 있었다.

## 2. 시상 방식

장미국민학교에서는 운동회를 끝내고 이긴 팀과 진 팀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지를 미리 보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공책이나 연필을 모든 학생에게 주되 이긴 팀에게는 개수를 많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장미국민학교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상은 달리기왕에게 주어진 메달과 학생이 아닌 참가자(조부모, 부모, 동생 등)에게 주어진 공, 볼펜, 치약 등의 상품이었다.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 운동회에서 '상'이란 물 질적인 것이며, 이는 운동회 경비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 3. 운동회의 경비

우리나라 운동회는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경비를 필요로 한다. '상'과 경기에 필요한 소품 이외에도 운동장은 반드시 만국기 등으로 장식되며, 팸플릿 인쇄비도 필요하고 교사들에게는 대개 새로운 트레이닝복과 모자가 지급된다. 장미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일반학교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음에 틀림없다. 우선 학교가 어느 학교보다도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팸플릿도 화려했으며, 상도 푸짐했다. 또한 다른 학교와는 달리 모든 학생들에게 음료수가 제공되고, 경로석에는 음료수와 빵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은 이 학교의 운동회 경비는 대부분 극소수의 육성회 임원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학교의 육성회 임원쯤 되면 이런 정도의 돈이 무리가 될 형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에 이 학교의 육성회 이사들이 받는 대접 또한 어느 학교보다도 융숭했다.) 다른 학교에서는 육성회에만 이러한 부담을 지울 수 없으므로 체육진흥회, 새마을 어머니회, 동창회 등의 보조를 받기도 했다.

구체적인 경비 부담자가 누구이건 간에 공통된 점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운동회 경비로 운동회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학교에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우리 학교(학생수 5천명 이상)의 경우 운동회 경비로 교육청에서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 공채 한편씩 사 주기도 어려워요. 하다 못해 선생님들 트레이닝이라도 하나씩 사 주어야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운동회를 합니까? 할 수 없이 학부모회와 동창회 도움도 받고, 동네유지들 도움까지 받게 되지요.”(읍 지역 공립학교 교감)

#### 4. 운동회 진행을 위한 역할 분담

운동회 진행을 위한 역할 분담에 있어서만은 장미국민학교와 다른 학교간에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우리나라 운동회에서 의례 교장은 시상과 연설, 사열 등을 위해서 서 있을 때 이외에는 단상에서 앉아서 학부모(특히 육성회 임원) 접대에 신경을 쓰면서, 가끔씩 교감이나 교사들중 한 명을 불러 필요한 지시를 한다. 교감은 주로 단상 아래 운동장에서 운동회 진행을 총감독한다. 주임교사는 운동회 진행(사회), 총무 등의 일을 맡고, 다른 교사들은 학생 정렬, 트랙그리기(수시로), 소품나르기 등의 일을 맡는다. 시상식의 보조와 무용지도는 여교사가 맡는다.

이런 일들을 하는 한편 경기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뛰고 조용히 지켜야 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운동회 날은 정말 고생스러운 날일 수밖에 없다. 장미국민학교의 경우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크게 고생스러운 것이 없었지만, 교사들에게는 고생스러운 날로 보였다.

우리나라 운동회는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날’이지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날’은 아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있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운동회의 준비나 진행과정에는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운동회 준비와 진행과정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산촌의 분교에서 열린 운동

회에서만 관찰되었다. 어머니들이 다 함께 가마솥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인 이 학교의 운동회는 학교와 마을이 혼연일체가 된 ‘운동내 잔치’였다.☉

\* 이 연재의 전호(3·4월호 및 5·6월호)에 소개된 참여관찰일지의 원전을 정정합니다.

3·4월호(국민학생의 하루)의 원전은 「국민학교 교육현상에 대한 문화 기술적 연구」(1990)와 「교수-학습 자료 활용 실태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인류학적 국제비교연구」(1986)이며, 5·6월호(교직원 회의)의 원전은 「국민학교 교육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1990)와 「한국 교육의 종합 이해와 미래구상(III)」(1992)이다.



이 용 숙

-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인류학 석사)
- 미국노스웨스턴대 대학원(교육인류학 박사)
- 본원 국제협력부장
- 「수업방법」, 「국민학교 교육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의 다수

# 음악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

—벧에게 띄우는 음악예찬가—

장 기 범

장마의 기승이 봄꽃 소식과는 다르게 아픔을 주는 한여름의 문턱에서 그나마 짬을 내어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자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네.

지금 내 곁에는 모짜르트가 가난에 지쳐 있을 때 비엔나의 한 귀족으로부터 딸의 결혼식에 쓸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곡했다는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이 흐르고 있고, 요크 강아지 <조이>가 음악에 맞추어 즐기고 있지.

삶에 지친 네가 재충전을 위해 떠난 후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음악과 자네에 대한 궁금증뿐이네.

그 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지. 자네가 있는 곳에 해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웠다네.

비발디의 <사계>나, 드뷔시의 교향시 <바다>, 베토벤이 그려낸 <전원 교향곡> 등은 우리에게 사색과 위안을 주지만, 정작 그들이 바라보았던 자연 자체는 때로는 거역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물론 그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때 더 없이 삶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자네의 삶이 때때로 밀려드는 장마나 해일로 인하여 혹시 지쳐 있다면, 오랜만의 우리의 대화로 조금은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네.



- 서울대학교 기악과 졸업
-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졸업 (음악교육학박사)
-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 「지휘자를 위한 총보 학습 1.0」

음악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지.  
음악은 이상적으로  
내적 성찰을 자극  
시키며, 개인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음악은 우리의 철학적  
· 종교적 관조를 더할  
나위없이 고양시키며,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지.

그러니까 자네가 동해로 떠나기 전날이던가... 대학로의 마로니에 밑에서 자네는 낭만시대 최고의 바이얼리니스티이며 작곡가인 파가니니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의 구애를 받고 “내 음악을 매일 공짜로 들으려는 속셈에서 나와 결혼하려고 한다”고 했다는 일화를 들어가며 음악인의 철저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속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지.

“과연 음악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냐, 왜 필요하냐, 아니 도대체 교육은 무엇이고, 삶의 질은 무엇이며, 음악 예술은 과연 뭐 말라 비틀어진 호사스런 의상인가, 너는 왜 사니, 너희 예술장인들이 배고픈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며 말이지.

자네가 토해 내던 그 질문들은 나에게 적지 않은 도전을 불러 일으켰고, 나는 이제서야 그러던 자네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면을 메꾸어 가고 있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음악을 포함한 예술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교육되어야 한다는 내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네.

아니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요즘 들어 더욱더 확고하게 굳어져 가고 있지. 삶의 실제 가치를 찾아 헤매는 자네가 어찌면, 이제는 내 입장



# 하지 않는다

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네.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그의 저서 『정신의 구조』(Frame of Mind)에서 음악적 재능은 모든 인간이 개발하여야 할 '인지'(human intelligences)라고 하는 인간의 7가지 천부적인 지적 능력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교육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라면, 음악은 반드시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나는 어떤 분으로부터 텔레비전이 문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적이 있네.

안타깝게도 내 대답은 둘 다 '아니다'라는 것이었지. 텔레비전 자체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일세.

굳이 플라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음악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음악의 우주는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말일세.



내게 있어서 음악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한다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할까? 현대의 학교, 아니 현대의 교육은 은연 중에 모든 문제에는 틀림없이 정답이 하나만 있다고 가르치고, 정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매일매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선다형의 문제들과 정-부(true or false)형의 문제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강화되지...

이러한 상황과 학교 밖의 상황을 비교해 보세.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환경보존의 문제, 빈곤의 문제, 세계평화의 문제, 고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애정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 우리가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명료한 해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공식이나 점진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게 마련이지.

자네도 알다시피 삶은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음악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단히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네.

음악적인 문제들은 다양한 해답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음악 작품들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지.

음악과 예술은 정답에 매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들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네. 이런 면에서 음악과 예술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진실한 삶 그 자체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오늘날의 교육은 세상을 옳게 볼 수 있는 균형잡힌 관점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전에 자네가 침을 튀기며 역설했으니 나는 더이상 말하지 않겠네. 무엇보다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 교육의 보편적인 성향인 '정답에 대한 집착'이 학교를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위적 환경으로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네.

미학자인 수잔 랭거(Suzanne Langer)는 인간이 그토록 음악을 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인간이 4가지 중요한 상징체계—언어, 문학, 수학, 그리고 음악—를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지. 이들 상징체계들은 각각 실체의 각기 다른 면들을 보여 주지만, 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네.

내가 자네의 비판을 들어 가며 그래도 교단에서 음악을 논하는 이유





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언어, 문학, 수학의 상징기능을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 음악의 상징기능을 공부해야만 한다고 믿기 때문 일세.

‘상징을 만들어 낼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랭거의 주장에 자네도 이의는 없을 줄 믿네.

자네가 삶의 참 의미를 찾아 도시를 버리고 해변가 벽지 학교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나, 내가 날이 갈수록 배금주의 사상이 기승을 부리는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강의실에서 ‘상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생활비를 버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인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은 결국은 동질의 몸부림이 아닐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왜 우리가 자신의 ‘상징제작능력’(symbol-making capacity)의 한 갈래인 음악적 능력을 기르고, 강화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네. 우리가 상징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독특한 능력을 기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것을 위축시킨다면, 우리의 인간성을 자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 아니겠나.

나는 요새 음악이 내게 없었다

면, 난 어떻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네.

물론, 밥벌어 먹는 일이야 신체 건강하니까 무엇이든 했겠지만, 나의 삶 자체의 질은 참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음악의 중요성과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이 이와 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교육 목표는 순전히 지적능력만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네.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언어, 수학, 그리고 과학을 배워야 하지만 음악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그 결과,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언어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 신문에 떠들썩하게 실리게 되고 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거세지지.

또한 어린이들이 과학과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면, 비용에 상관없이 그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음악적 문맹’(illiteracy in music)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 사실 아닌가? 음악은 실용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거리도 되지 않지.

왜 이런 바보 같은 현상이 계속 되냐구? 한 가지 이유는 교육에 관

한 현대의 많은 글들이 과학기술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것을 과대선전했기 때문이라고 믿네.

과학기술이 현대문명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 과학은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질병들을 퇴치했으며 따라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담배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도니까.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진보된 통신수단을 제공해 주어서 세계의 구석구석에 별 쓸데없는 말이라도 전달해야만 될 것 같은 시대가 되지 않은가.

과학기술은 모든 학문의 지식 수준을 극대화시켜 놓았지. 그럼에도 과학기술은 아직까지 인식론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 “이 세상에 참 지식이 존재하는가?”

과학 만능의 사고에서 자네도 조금은 탈피할 수 있기를 바라네.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음악도 인류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하네.

그러나 과학기술과는 달리, 음악에는 어두운 측면들이 없었네. 음악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지. 음악은 빈부의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는 대신 누구든지 풍요롭게 하지.

음악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역사가 시작된 후부터 음악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지.

음악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 구원과 위로, 영감과 열광 그리고 치유를 우리에게 주었으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절묘한 균형감을 규칙적으로 맛볼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 과목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네. “참된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자네가 물었었지.

배운 지식은 잊어 버렸어도 우리에게 지식이 아닌 그 무엇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육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음악이 오직 재능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자네의 견해도 달라져야 하네.

왜냐하면 음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세. 부인하지 말게, 쉬운 예로 음악을 전공한 나보다 자네가 노래를 훨씬 잘 부르는 것을 생각해 보게. 스즈키는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생각은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적 능력이 없다는 말과 똑같이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했지.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하지.

문제는 음악교육을 일찍 시작해

야 한다는 것이며, 어린 아동들은 그들이 다양한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작고도 많은 신호들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우리가 그런 신호들을 포착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게 되며, 그 후에 이루어지는 학습은 교정학습이기 때문에 훨씬 비효과적이라는 것일세.

모든 사람은 음악학습을 충분히 일찍 시작하기만 한다면, 예외없이



훌륭한 아마추어 음악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게.

만일 우리가 교육의 목표는 사람들의 생존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식위주의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일세.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건 말건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 모든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를 원하지. 그러나 무엇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나? 어떻게 그것을 측정할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

입과 삶의 질을 같은 것이라 생각하지.

과연 삶의 질이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오디오 세트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일까……?

나는 삶의 질이란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해 하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을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네.

그리고 삶이 만족스럽고 목적이 있으며, 가치있게 되는 것은 자아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될 때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네.

첫째 사실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삶과 연관시켜 생각하기 쉬운 재산이나 재물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지속적인 자아 성장에 필수적인 조건들은 아니기 때문이지.

두번째는, 음악이나 여타 예술들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의 자아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네.

위의 두 가지 조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네. 음악은 우리가 자아를 실천하며, 자기충족적인 생신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 모짜르트	디베르티멘토 제2번 D장조 K. 136
• 맥스 부르크	신의 날 (KOL NIDREI)
• 드뷔시	교향시 바다
• 비발디	바순 협주곡 E 단조
• 말러	교향곡 대지의 노래 1악장
• 바하	무반주 첼로 모음곡
• 모짜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
•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허밍 코러스
• 브람스	독일 진혼곡

뿐만 아니라, 표현적, 창조적, 예술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을 손꼽아 보게.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음악을 능가할 것은 흔치 않지. — 군에서 전역할 때 군악대가 연주해 주던 행진곡을 들으며 눈물 펄펄 흘리던 자네를 생각해 보게.

음악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지. 음악은 이상적으로 내적 성찰을 자극시키며, 개인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음악은 우리의 철학적·종교적 관조를 더할 나위없이 고양시키며,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지. 음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 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할 때 한없이 즐거움을 안겨 준다는 것을 음악회장에 가 보면 금방 경험할 수 있지.

후세인들이 한 시대의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GNP, 수입·수출의

균형, 강력한 군대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대인들의 예술, 인간성 등에 끼친 공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을 자네도 잘 알지.

예를 들어, 바하가 남긴 6곡의 콘체르토를 제외하고는 브란덴부르크의 마르그라베 (Margrave of Burandenburg) 공(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 작품들이 그와 그의 공국(公國)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닌가?

따라서, 예술과 인간성 (art and humanity)으로 대표되는 인류 문화의 위대한 업적보다 소비재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네.

교육의 목적은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네.

돈버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 인간다움 삶을 사는 방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자네가 말했지. 성공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게.

음악에는 신비함이 있으며, 그 신비함 때문에 유사 이래로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음악에 매료되어 있지. 음악은 마치 삶이라는 과자 속에 들어 있는 초콜릿 조각과 같다고 생각하네. 음악의 즐거움은 한번 주어지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 내가 아끼는 자네가, 내가 아끼는 음악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가 즐겨 듣는 곡 중 몇 가지를 추천하며 이 음악 예찬론을 마치려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게. 또 보세. ☺

# KEDI 데이터베이스 활용안내 1

## 이 목 화

(컴퓨터운영관리부장)

### 샘플링과 우편발송 주소찍기를 도와주세요

A 연구원은 교장 임기제에 관한 교장 및 교사들의 의견을 알고자 질문지 발송을 계획하였다.

전국의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200개의 학교를 추출하여 교장용 질문지 1부와 교사용 질문지 2부씩을 보내고자 한다.

아울러 추출된 학교에 우편으로 질문지를 발송하기 위해 편지 봉투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일을 끝낼 수 있는가?

A 연구원은 이 일을 위해 전산실로 찾아가 의논하였다. 전산실에서 이러한 일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DB 시스템을 KEDI DB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더욱이 A 연구원은 이 일을 자기 방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한다. A 연구원이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기까지의 절차를 간추려 정리하였다.

### 1. 전화선으로 주전산기 연결하기

KEDI DB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산실의 주전산기 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KEDI DB를 사용하려면 자기방의 컴퓨터를 전산실의 주전산기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 연결을 통해 컴퓨터간에 통신이 가능해지는데 하드웨어적인 단계와 소프트웨어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단계를 알아보자. A 연구원의 방에 있는 컴퓨터를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와 연결하려면 전화선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따라서 전화선을 연구원의 개인 컴퓨터에 접속시키면 된다.

이를 위해 개인 컴퓨터에는 모뎀이라는 카드가 컴퓨터 속에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 카드는 요즘은 가격이 많이 내려서 몇 만원 정도로 살 수 있다. 이 카드를 컴퓨터에 내장시키면 컴퓨터 뒤에 전화선을 끼우는 잭이 두 개 생긴다. 전화선을 이 잭에 연결시키면 이로써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끝나게 된다. 이제 컴퓨터에 영혼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몫이다.

컴퓨터 통신은 보통 "이야기"라고 부르는 통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야기는 5.3버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분은 전산실로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개인 컴퓨터를 KEDI 주전산기에 연결하기 위해 다음 순서를 따라야 한다.

- (1) 개인 컴퓨터의 DOS를 부팅한다(컴퓨터를 켜다).
- (2) 통신 소프트웨어인 이야기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이야기 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1"를 입력한다.

C:\STORY>1

- (3) 이야기의 로고 화면이 나타나고 초기화 명령과 'OK'가 화면에 표시된다.

(4)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Alt+D)를 이용하면 전화번호 부 목록을 사용할 수 있다. 혹은, ATDT 441□

(본원의 구내 전화로 접속할 경우 441-444까지 이용 가능)

ATDT 9, 5716725□ (직통 전화로 접속할 경우)

접속량이 많을 경우 다음의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다.

NO CARRIER :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한다.

BUSY : 전화선이 통화 중이니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건다.

## 2. KEDI DB에 등록하기

이제 주전산기에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자.

(5) 주전산기에 연결되면 'CONNECT'가 화면에 표시된다.

잠시후 'login' 메시지가 나오면 kedidb를 입력한다.

login : kedidb

\* 'password : '가 나타난 경우에는 ENTER 키를 누르고 잠시 기다리면 'login : ' 메시지가 나온다. 이때 kedidb를 입력하여 다시 시도한다.

(6) KEDI DB 로고 화면과 공지 사항 내용이 나타난다.

공지사항을 보려면 번호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엔터 (Enter)키를 누른다.

이제 주전산기의 KEDI DB를 사

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자. 이것은 사용자 등록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7) 등록절차

① '사용자 번호 :'

BAT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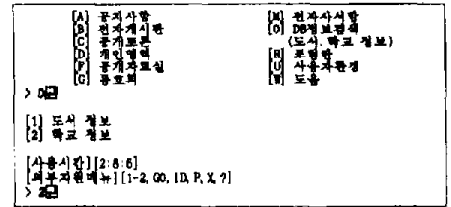
사용자 번호는 앞으로 KEDI DB 시스템 내에서의 자기 이름이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자 번호 입력 칸에 아라비아 숫자나 영문 알파벳을 이용하여 5자에서 8자의 사용자 번호 (ID)를 입력한다. 이제부터 A 연구원은 KEDI DB 내에서는 사용자 번호인 BATMAN으로 불리게 된다.

② '사용자 암호 :'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 암호를 입력한다. 이 암호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BATMAN으로 행세할 수 없다. 입력하는 사용자 암호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나 컴퓨터는 암호를 받아들인다. 사용자 암호는 확인을 위해 두 번 입력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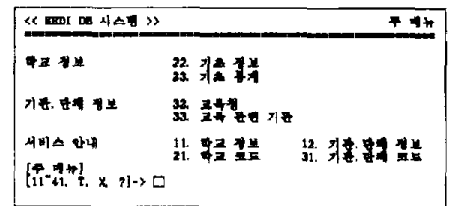
③ 처음 등록하는 경우, 이 후 가입에 필요한 메시지에 답을 하며 진행한다. 주소와 전화 번호 등을 물어보는 이 절차는 처음 등록할 때 한번만 하면 된다.

(8)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입 축하 화면이 나오며 KEDI DB 시스템의 주메뉴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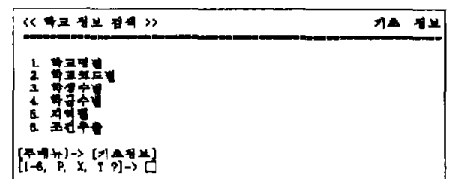


## 3. 표본 추출하기

(9) KEDI DB 중 학교 정보 "2"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10) 22번 기초 정보를 선택하면 다음의 검색 메뉴 화면이 제시된다.



무작위 추출을 위한 조건 설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A 연구원은 앞서 밝힌 전국 단위의 모든 학교급별로 15개 학급 수 이상의 학교 200개를 무작위 추출하고자 한다. 6번을 선택하게 되면 이러한 조건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11) "조건 추출 검색"을 선택하여

조건을 부여하자.

● 조건 추출 검색 입력 화면

« 학교 정보 검색 »		조건 추출 검색
1. 학교급	: 0 전체	
2. 학급수	: 10 이상	
3. 학생수	: 15 이상	
4. 교원수	: 5 이상	
5. 설립별	: 0 전체	
6. 설립년도	: 1900 이상	
7. 지역	: 0 전체	
8. 추출학교수	: 200 개	

[주메뉴]-> [기초정보]-> [조건추출]  
[Y, P, R, X ?]->  
학교명:

- ① 학교급을 입력한다(전문대학, 대학은 제외) : (1.국 2.중 3고 4.특수 0.전체)
- ②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를 입력한다. : (가능한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최소의 수를 입력)
- ③ 설립별(국,공,사립)을 입력한다.
- ④ 설립년도 범위를 입력한다.
- ⑤ 지역을 선택한다.
- ⑥ 추출 학교수를 입력한다.

이상의 내용이 맞으면 엔터키를 누르고 확인 메시지에 'y'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시작한다.

조건을 줄 때 관련이 없는 항목은 최소값을 주어 표본 추출 대상이 되도록 주의한다.

"데이터 추출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잠시 후 컴퓨터는 서울지역의 학교부터 자료를 제시한다.

화면으로 자료를 확인해 본 뒤 만족하면 우편 발송을 위해 추출 자료를 전송받아 이를 프린트 아웃한

다.

'P'로 상위 메뉴로 갈 수 있다.  
주메뉴 > 기초정보 > 조건추출 > 리스트

#### 4. 파일 전송 받기

(12) 'DN'을 입력하면 다음의 메뉴가 나온다.

1. 전체 내용 (132 칼럼용)
2. 발송 봉투용 (소 : 20\*10cm)
3. 발송 봉투용 (중 : 25\*18cm)
4. 발송 봉투용 (대 : 30\*25cm)
5. 레이블용 (10.3\*3.3cm)

A 연구원은 5번을 선택하여 주소를 프린트 한 스티커를 만들어 봉투 크기에 관계없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주소를 담은 파일을 하드디스크나 디스켓에 전송받은 뒤 이 파일을 인쇄해야 한다.

- ① 전송 내용을 선택한다(전체 내용, 발송봉투별, 라벨용).
- ② 수신할 드라이브와 파일명을 입력한다.

(예, C:\address.txt 하드 디스크 C:드라이브 address.:파일명)

- ③ PgDn 키를 누른다(Z 모뎀을 선택한다).
- ④ 전송을 시작한다.

#### 5. 시스템 종료 및 주소 스티커 인쇄

이제 주소를 인쇄할 차례이다.

KEDI DB로 받은 주소데이터를 프린트 할 때는 전화를 끊은 후, DOS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먼저 KEDI DB 시스템을 끝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3) KEDI DB 시스템을 끝내고 싶으면 종료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 ① 종료를 하려면 'X'를 입력한다.
- ② '접속을 종료하시겠습니까 (Y/N)?'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Y를 입력한다.
- ③ 시스템 사용 시간이 나타난 후 종료된다.

(14) 이제 DOS 상태가 되었다. 프린터를 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한다.

- 형식 1) C:\>COPY 파일명 > PRN□  
2) C:\>TYPE 파일명 > PRN□

(혹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집한 뒤 프린팅 하여도 된다.)

A 연구원 : 알라라라 ☹

본란은 컴퓨터 운영관리부에서 KEDI DB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계속 연재할 예정입니다. KEDI DB 사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은 본란을 통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도 교육연구원 활동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합동보수 교육 실시

서울시 교육연구원 교육상담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16일(3일간, 9시간)에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김유숙 교수를 초빙하여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라는 내용의 보수 교육을 학교건강관리소 2층 강당에서 상담봉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가족 모두가 어떻게 예방하고 또는 치료할 것인가의 진지한 내용의 강의는 모두가 주부 봉사자들에게 시기 적절하고도 유익한 내용으로 반응도 좋았고 효과도 큰 보수 교육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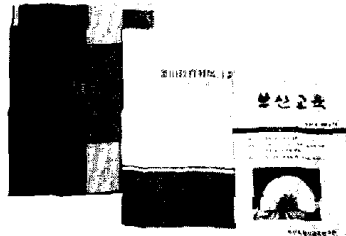
##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부산교육발전계획('93~'97)발간  
부산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부산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부산교육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부산교육 발간

부산 교육의 중점시책에 따른 국·중·고교의 135개 우수교육 실천사례를 발굴, 각급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여, 학교의 교육계획 수립과 학교 경영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직할시 교육연구원 소식

인천 직할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하기 휴가를 맞이하여 각종 연수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검토 협의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안) 검토협의회

본원이 교육부로부터 6차교육과정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학교급별로 초안을 작성하여 7월에 연구 및 심의위원, 지도위원을 모시고 1차 검토 협의회를 가졌다.



또한 물리(고교), 중학교 기술·산업·고교 공통과학 등 각 4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본원에서 연수회가 있었다.

국민학교 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초등과학 실험이 '93. 8. 2~8. 13(1기) 8. 16~8. 27(2기)에 걸쳐 본원에서 있었으며, 컴퓨터 연수가 초·중등 학교 교사 380명을 대상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류하여 '93. 7. 19~8. 13 사이에 본원에서 연수 활동이 이루어졌다.

## 광주직할시 교육과학연구원

### 「광주직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1996학년도부터 적용할 광주직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실태분석으로 관내 26개 고등학교 학생 2,664명, 교사 1,168명과 교장, 교감, 전문직 216명, 학부모 600명 등 4,648명을 대상으로 7월 7~8일 양일간에 설문조사를 마쳤다.

오는 8월 하순경에 나올 이 연구의 결과는 광주직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기 위하여 국·중·고등학생 51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에 컴퓨터 경진대회 예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본선대회는 국·중·고등학생 58명과 일선교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마쳤고, 시상식은 7월 15일에 가졌다.



## 대전직할시 교육과학연구원

### /// 교과별 협의위원회 개최 (중학교)

제6차 중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교과별 협의위원회(제1차: 6월 22일)를 개최하였다.

3차에 걸쳐 개최된 협의 위원회에서는 대전직할시 중학교에서 교과 과정 이수 기간 중 교과별 기본 방향, 학습 중점, 평가 등에 관해서 대전직할시의 학생과 학교와, 지역에 일맞게 구체화, 적합화, 적정화하는데 따른 교과별 협의 위원회였다.

앞으로 몇 차례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대전직할시 수준에 적합한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완료할 계획이다.

## 경기도 교육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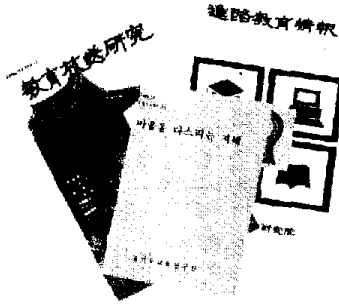
### ///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4집 발간

우리 교사나 학부모는 청소년들의 바른생활, 바른 정신을 갖고 바른행동, 바른습관, 바른인격을 다져가는데 모범을 보이고 감화를 주어야 하겠다는 교육적 필요에 따라 우리 교사나 학부모로 하여금 마음의 양식이 되고 지혜의 길잡이가 되게 하고자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4집을 발간하였다.

### /// 교육방송연구 5집 발간

정보화 시대의 학교 교육에서 방송매체와 컴퓨터 등 정보 공학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우수한 방송매체와 첨단 기계를 활용하는 교육방송의 발전적인 접근을 도모하고자 교

육방송연구 제5집을 발간 보급하여 학교교육의 보완 및 질 향상은 물론 교육의 본질추구를 지원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 /// 진로교육 정보자료 발간

학생들에게 정보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계간지로 발간하여 직업세계, 진학안내, 진로교육 우수사례, 상담지원 봉사제 운영,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예절, 취업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정보 자료제공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 충청북도 교육연구원

### /// 역할놀이 수업모형 영상자료 개발·보급

본 연구원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역할놀이 수업모형 영상자료를 (가) 역할놀이의 상황 설정 (나) 역할놀이 준비 (다) 역할놀이 참가자 선정 (라) 청중의 자세 준비 (마) 역할놀이 시행 (바) 역할놀이의 토론과 평가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보급하였다.

### /// 복식학급 간접학습자료의 개발·보급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수력의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어·사회 2과목 3·4·5·6학년용 복식학급 간접 학습자료를 1992년도에 1학기분을 개발·보급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2학기분을 활용이 용이하도록 차시별로, 카드식으로 개발하여 일선 국민학교와 분교장에 보급하였다.

##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 /// 시범수업 장면 VTR영상자료 제작

본도 역점시책인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전교과별로 VTR 영상자료 8편을 제작하고자 지난 7월 14일 자료개발위원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수업의 질을 높여 가르치는 '신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배움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여 금년 11월초에 일선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 /// 국민학교 교사 예·체능교과 실기연수 실시

예·체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93. 7. 21(수)~7. 31(토) 10일간 아동국민학교에서 일반연수(60시간) 과정으로 실기연수를 실

시하였다.

연수대상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별 각 80명 총 240명이며, 실기 지도 방법에 대한 집중연수로 예·체능 교과 현장 학습방법 개선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 기본생활 습관 지도 영상 자료 제작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은 '91, 92년에 이어 금년까지 3년동안 매년 학생들의 기본생활 습관 지도를 위한 영상(비디오) 자료를 개발 제작해 오고 있는데 '91년에는 기본생활 습관의 30개 기본 실천 사항을 중심으로 제작한 바 있다.

한편, 3차년도인 금년에는 국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생활에 시간을 맞추어 기상에서 등교 전까지의 생활, 등교 이후의 학교생활, 그리고 귀가 이후의 생활 등 크게 3영역으로 나누어 개발 제작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도내 각 국민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 「도표로 익히는 진로교육」 자료 개발 보급

진로교육에 관한 이론을 구조화, 도식화하여 학생 및 교사가 진로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본 자료는 8월 허순경 도내

전 초·중·고교에 보급할 계획이며, 이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 선택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라남도 교육연구원

교육과정 연구위원 3차협의회개최 교육부지정 교육과정 연구기관으로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위원 3차 협의회를 7월 26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는 각급 학교별 연구위원 162명이 참석하여 설문조사 결과 분석, 도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요령, 교과별 중점, 교과별 재구성 사례 작성에 대한 집중 협의가 이루어졌다.

#### 「수업연구 10호」 발간 보급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실제 수업사례 정보를 제공하여 일선 현장 교원들의 수업방법과 수업 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수업연구 10호」를 2,500부 발간하여 도내 초·중·고 전학교에 7월 3일~5일 배부하였다.

#### 글짓기 TP교재의 제작과 활용 자료 발간·보급

국어과의 쓰기 교과서 글짓기 분야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도내용을 정선하고, 학년 단계에 맞도록 계열화한 TP교재를 제작하여 도내 전

지역 교육청에 보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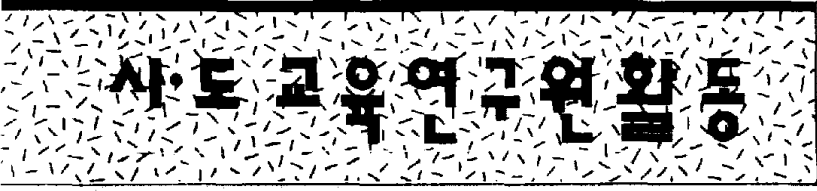
내용은 TP자료의 특성·내용·구성원칙 활용상의 유의사항, TP자료와 지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주도 교육연구원

#### 제주도의 서당교육 실태 조사

향토교육의 뿌리인 서당의 발자취를 더듬고 정리·보존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절박한 시점에 즈음하여 서당교육의 실태를 조사·정리함으로써 제주인의 교육에 정신을 전승하고, 소중한 교육 유산을 지역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당교육 실태를 파악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28일 서당교육실태조사위원회 연수회를 개최하고 우리 고장에서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적인 서당, 개량서당, 의숙에 대한 자료 조사를 4~8월 중에 실시하고, 9~11월 중 자료 수합 정리와 자문위원 감수를 거쳐 12월 중에 제주도의 서당교육 책자를 발간, 학교 현장에 배부하여 학습자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 기획처

- \* 7월 21일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 어학담당관은 KEDI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원을 방문하였다.



## 교육과정연구본부

- \* 7월 1일 교육과정연구부 주관으로 국정교과서 집필계약 및 집필자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제1회의실에서 있었다.
- \* 7월 8일 교육과정연구부 주관으로 2학기 교과서 원고 및 지도서 체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의실에서 있었다.
- \* 7월 12일 13일 양일간 교육과정연구부 주관으로 국민학교 1, 2학년 1학기 원고 본 검토를 위한 협의회가 본원 제1회의실에서 원

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 \* 7월 13일 교육과정연구부 주관으로 교과서 집필에 관한 중간 검토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의실에서 있었다.

- \* 7월 14일 교육과정연구부 주관으로 지도서 집필 방향에 관한 설정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회의실에서 있었다.

- \* 7월 22일 23일 양일간 교육과정연구부 주관으로 '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 원고 검토를 위한 연구진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원 회의실에서 있었다.

- \* 7월 22일 교육과정연구부 주관으로 '슬기로운 생활' 교사용 지도서에 관한 체제 확정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제1회의실에서 있었다.

- \* 7월 30일 교육과정연구부 주관으로 공업계고교체제개편 방안 연구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제1회의실에서 있었다.

## 교육정책연구본부

- \* 7월 2일 교육정책연구부 주관으로 교육연수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제1회의실에서 있었다.

### 교원 연수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 \* 7월 9일 교육정책연구부 주관으로 소규모 중등학교 경영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전라남도 제2차 지역 협의회가 있었다. 전남 여천 교육청에서 실시한 본 협의회에는 원내외 인사가 참석하였다.

- \* 7월 14일 교육정책연구부 주관으로 소규모 중등학교 경영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전라북도 제2차 지역협의회가 있었다. 전북도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본 협의회에는 원내외 인사가 참석하였다.

- \* 7월 23일 교육정책연구부에서는 수탁사업으로 연구중인 교육자치 특위 회의 및 연구에 관한 중간 발표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에서 있었다.

## 컴퓨터교육연구센터

- \* 7월 7일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주관으로 질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로 회사실에서 있었다.
- \* 7월 7일 컴퓨터연구센터 주관으로 교수·학습을 위한 도구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예시 자료 개발에 관한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 \* 7월 8일 컴퓨터연구센터 주관으로 학교 컴퓨터교육추진 협의회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원 제1회의실에서 있었다.
- \* 7월 8일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주

관으로 교육용 S/W공모전 일반화 사업 중간 보고가 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 \* 7월 16일 컴퓨터연구센터 주관으로 전국 컴퓨터교육 담당 장학사 협의회가 제1회의실 및 컴퓨터 연수실에서 있었다.
- \* 7월 19일 컴퓨터연구센터 주관으로 교육용 S/W 개발 요원 일반 연수(3기)의 개강식이 본원 제1회의실에서 있었다.



## 방송통신교육센터

- \* 7월 19일 방송통신교육센터에서는 방통고 담당교원 및 관계자를 위한 사전 교육을 본원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 KEDI동문회

본원 동문회에서는 동문회 전체 이사회와 제1회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 시 : 1993년 8월 27일 (금)
2. 일 정
  - 12:00 - 전체 이사회 개최
  - 15:00 ~ 16:30 - 동문회 총회
  - 16:40 ~ 17:20 - 특강 (한국교육에서의 KEDI의 역할과 위상)
  - 17:20 ~ 18:00 - 주제발표
  - 18:00 - 창립 21주년 기념 리셉션 (KEDI 원장 주최)
3. 장 소 : 본원 제1회의실
4. 회 비
  - 동문 여러분께서는 연회비 2만원과 입회비 1만원, 이사들께서는 이사회비 5만원을 입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 납입처 : 국민은행 : 070-01-0386-720 (교육개발원 동문회)

##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한국교육개발원

# KEDI 교육자료안내

## 민주시민 교육자료

1989~93

### <자료의 특징 및 활용상 이점>

- 우리나라에서 종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민주시민 교육자료」이다.
- 「모듈식」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하기가 편리하다.
- 일반교과(사회 또는 도덕)시간, 특별활동시간, 또는 학교재량시간(국민학교), 선택과목시간(중학교)이나 교양선택과목시간(고등학교)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자료의 종류>

- 유치원용 1종(교사용 지도서 포함 2책) - 「유치원용 민주 시민



### 교육 프로그램

- 국민학교 1~2학년용 1종(교사용 지도서 포함 2책) - 「우리나라」
- 국민학교 3~4학년용 1종(교사용 지도서 포함 2책) - 「우리나라」
- 국민학교 5~6학년용 1종(교사용 지도서 포함 2책) - 「우리나라」
- 중학생용 1종(교사용 지도서 포함 2책) - 「민주 사회 민주 시민」

- 고등학생용 1종(교사용 지도서 포함 2책) - 「민주 사회 민주 시민」
  - 성인용 1종: 「민주 사회 민주 시민」
  - 민주적인 학교 운영 지침서 1종 - 「민주적 학생 지도 민주적 학교 운영」
- <대행출판>
- 대한교과서(주): 전화 (02) 234-7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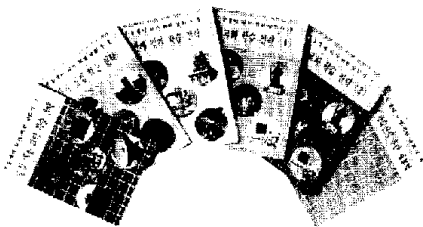
## 학습전략 훈련 프로그램 자료

1988~90

### 우등생이 되기 위한 글 읽기-

#### <자료의 특징 및 활용상 이점>

- 효율적인 학습과 창의적인 사고



- 를 위하여 새로운 학습이론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학습 전략 프로그램으로서 국민학교 상급학년과 중학생 수준에 알맞는 자료이다.
- 이 자료에 제시된 글들은 교육과정 내용과 관계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설명문 형태의 글로서 글 읽기 방법에 관한 학습뿐 아니라 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지식을 풍요롭게 한다.
- 고도의 상상력, 추리력, 독해력, 분석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자료이다.

### <자료의 종류>

- 우등생이 되기 위한 글 읽기 6종 (I)~(VI)
  - (I): 관계짓기 파악 전략
  - (II): 중심내용 파악 전략
  - (III): 자기점검 전략
  - (IV): 정교화 학습전략(I) (국민학교용)
  - (V): 정교화 학습전략(II) (중학교용)
  - (VI): 읽기학습전략 훈련 지침서
- <대행출판>
- 삼화출판(주): 전화 (02) 776-6687, 6688

## 국민학교 환경교육 자료

1992~93



### <자료의 특징 및 활용상 이점>

- 어린이들이 스스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알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료이다.
- 재미있게 배우도록 많은 동화, 동시, 천연색 사진 및 삽화를 사용하였으며,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실생활 장면을 소재로 하였

다.

- 자료를 모듈식으로 구성하여, 관련 교과 시간은 물론 특별활동 시간, 또는 6차교육 과정상의 「학교 재량 시간」에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배우는 동안에 저절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구성된 자료로서 개발하였다.
- 창의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열려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자료의 종류>

- 보람찬 환경탐구 (5~6학년용)
- 재미있는 환경탐구 (3~4학년용)
- 즐거운 환경탐구 (1~2학년용)  
: '93년도 개발 중
- 환경 탐구 시리즈 교사용 지도서 (전학년용) : '93년도 개발 중  
<대행출판>
- 삼화출판(주) : 전화 (02) 776-5313, 6688

### 유아인지 학습자료

1992

#### <자료의 특징 및 활용상 이점>

- 4, 5세 유아들이 자료를 직접 가지고 노는 동안 논리·수학적 사고가 발달될 수 있도록 꾸몄다.
- 유아들의 발달과 학습특성에 맞추어 기본색과 친숙할 소재를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조작 자료를 포함하였다.
- 우리나라의 전통문양과 소재를 많이 활용하여 유아기부터 '우리'의 것에 친숙해지도록 하였다.
- 유아 혼자서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된 활동 및 게임카드를 포함하였다.

- 교사들이 교사·학습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해설서와 지침서를 포함하였다.



#### <자료의 종류>

- 유아용 인지학습자료 1질 (기본자료, 카드류, 배열판과 카드류, 조작류, 게임류의 5유형, 1, 2수준 26종)
- 유아용 활동카드 2종 (1, 2수준)
- 유아용 게임카드 2종 (1, 2수준)
- 교사용 해설서·지침서 2종 (1, 2수준)  
<대행출판>
- 국민서관(주) : 전화 (02) 7107-777, 781~790

### KEDI 집단지능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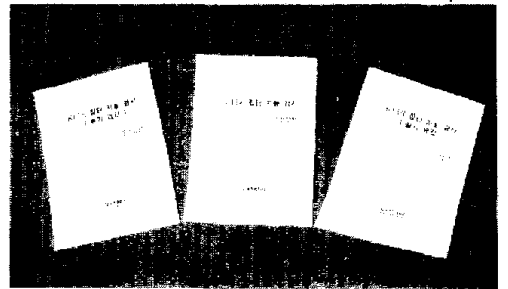
1992

#### <자료의 특징 및 활용상 이점>

- 이 검사는 최신규준을 갖추고 있어, 지능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다.
- 국·중·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규준, 남·녀 규준, 도·농 규준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교의 경우 전국 규준, 계열별 규준을 가지고 있다.
- 검사는 언어, 수, 공간의 3개 영역을 측정하는 7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문항은 총 115문항으로 검사 실시 시간은 60분 정도 소요된다.

- 지능지수가 산출되는 것 외에 인지 과정적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추가검사를 통해 학생의 지능지수 산출 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류의 문제를 어려워하며 어떤 유형의 오류를 범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자료의 종류>

- 국민학교 4, 5, 6학년용 (A형, B형)
- 중학교용 (A형, B형)
- 고등학교용 (A형, B형)
- 대학교용 (A형, B형)
- 추가검사 및 실시요강(언어 : 국·중 공용, 수 : 국·중·고 공용)

#### <대행출판사>

- 한국적성검사소 : 전화 (02) 515-5722~5

## [KEDI 도서회원]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 배부함으로써 한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87 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 회), '한국교육'(연 1 회) 우송
- (2) 당해년도 '연구보고서' 20 종~25 종(발간 즉시 우송)

### 2. 연도별 회원제

회원자격은 1년간 주어지며, 가입년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월중 발송)와 정기 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 4. 연 회비(1구좌당)

- 가입 년회비 : 60,000 원

###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0006202,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01-0379-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정보센터 출판부(대표전화 572~5121, 교환 408)

◎ 가입신청서는 이면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거나 복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신청서'를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 멀리서 보는 향기

윤 양 희

(본원 교육과정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나는 70년대 초부터 몇년 동안 청운동에 있는 경기 상업 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다. 일본식 붉은 벽돌의 본관과 그 앞에 늘어선 작은 반송, 단풍나무들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학교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그 때는 내가 어린층에 끼어서 교무실 문쪽의 낡은 책상과 의자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의자는 회전 의자이기는 해도 움직일 때마다 비껴거리는 소리가 마음 놓고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의자 등받이에는 밤색 비닐이 덮여 있고 그 위에는 흰 페인트로 “處染常淨 泥中蓮花”라 쓰여 있었다. 바로 그 의자는 金冠植 시인이 앉았던 것으로 글씨 또한 그의 육필이었다. 그 때부터 나는 김관식의 기이한 삶과 시와, 자신을 연꽃으로 생각했던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의자에 붙어 있던 비닐에 쓴 글씨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고향의 연못이나 사찰의 탕화에서 흔히 보는 연꽃에 관한 한 아름답다는 생각없이 나이를 먹었고, 왜 김관식이 연화이고 싶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沈復의 소설 ‘乳生六記’에 나오는 주인공 쫓는 어머니같고 누이같은 동양적인 아내다. 그가 달인 차는 항상 그윽한 향기를 지녔는데, 그 비법이 늘 궁금했다. 남편이 어느 날 그의 차 달이는 과정을 숨어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른 새벽 연못에 배를 띄우고 지난 밤 벌리지 않은 연꽃 봉오리에 넣어 두었던 이슬 머금은 찻잎을 꺼내어 달이는 것이 아닌가. 蓮香 자체는 잔잔한 것이긴 해도 그 아내의 정성은 산꼭대기가 아닐 수 없었고, 그래서 그 차는 더욱 일품이었을 것이다. 黃檗의 ‘古文眞寶’라는 책 속에는 周茂叔이 지은 愛蓮說이 있는데, ‘향기는 멀수록 더 맑으며, 우뚝하게 깨끗이 서 있는 품은 멀리서 바라볼 것이요, 가까이서 매만질 수 없다.’ 했으니 좋은 향기는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닐는지…….